"주석사찰에서 다비의식을"
연화회 '사찰 다비' 생전접수
상담문의 010-4727-6065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51호 HYUNBULNEWS.COM 2025년 10월 22일(음력 9월 2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고운사에 울려 퍼진 위로의 선율 의성 고운사 경내에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선율이 잔잔하게 울려 펴졌다. 화마로 스러진 전각과 파손된 기와, 불 탄 범종을 쓰다듬은 피아노 선율은 그 자체가 '위로'였다.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경북 산불이 발생한 지 200일이 지난 10월 11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위로와 기억 연주회'를 고운사에서 개최했다. 500여 관객이 참여한 이날 연주회는 '영혼을 위한 소나타2'를 주제로 모차르트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섬세하면서도 절제된 고요함이 어우러진 깊은 울림의 무대가 펼쳐졌다.
글=신중일 · 사진 제공=의성군

행방 묘연한 도난 불교문화유산 187건

임오경 의원 '국가유산 도난 미회수 현황' 공개

1986~2015년 신고 사례 집계
553건 중 33.8%가 불교유산
'송광사 진영' 등 보물만 5건
비지정 불교유산 피해 집중
임 의원 "수사전문인력 필요"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도난 신고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불교문화유산이 18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유산 도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회수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2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국가유산 도난 미회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1986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된 피해 사례 가운데 여전히 행방을 찾지 못했거나 원래 소유자나 관리자에 돌려보내지 못한 유물들의 현황을 집계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 도난 후 돌아오지 못한 국가유산은 553건에 달했다. 국가지정유산 유형별로 보면 △국보 1건 △보물 10건 △민속문화유산 5건 △천연기념물 2건 △등록문화유산 1건 △사적 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불교문화유산은 187건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의 33.8%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가지정유산 보물은 5건, 사적은 1건, 시도유형유산은 18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난 미회수 보물 중 절반이 불교문화유산이다.

도반 미회수 보물 중 대표적인 불교문화유산은 '송광사 16국사 진영'이다. 송광사가 승보사찰임을 보여 주는 상징적 성보지만 1995년 1월 27일 국사전 후면 흙벽을 뚫고 침입한 도굴꾼들로 인해 1세·2세·14세 3점의 진영을 제외하고 13점이 전부 도난당했다.

그나마 1세 보조 국사 진영과 제2세 진각 국사 진영은 성보박물관 전시실에 전시 중이었고, 14세 정혜 국사 진영은 충균 피해로 수장고에 보존 관리 중이어서 해를 면할 수 있었다.

도난 이후 송광사와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경찰 등은 13점의 진영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아직 그 행적이 묘연하다. 2010년에는 송광사와 정부 기관이 합동으로 인터폴에 등록해 국제적으로 수사망을 넓혔으나 이렇다 할 소식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1989년 4월 보물로 지정됐으나 그해 12월 도난당한 '강화 백련사 철조아미타여래좌상'도 있다. 전문 털이범들은 1989년 12월 11일 늦은 밤 불상이 봉안된 극락전의 창호지를 뚫어 문고리를 푼 다음 불상을 훔쳤는데, 30여 년이 지난 기금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이외의 보물들은 주로 부재를 도난당하는 피해를 봤다. 남원 실상사 백장암 석등은 보주가, 경주 기림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감지은니묘법연화경·감지금니묘법연화경)이 도난당했다.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 상륜부 보륜·보주 역시 전문 털이범들이 훔쳐 갔으며, 사적 남원 창림사지 내 석탑재들도 사라졌다.

도난 국가유산들 대부분이 비지정 문화유산인 점도 주목해야 한다. 전체 도난 미회수 유산 중 90% 정도가 국가 및 시도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비지정 문화유산이었으며, 불교유산 역시 187건 중 167건(89.3%)이 비지정 성보다.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며 보호범위를 비지정문화유산까지 확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도난 예방 시스템 구축·운영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도난 문화유산 회수율을 끌어올릴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 현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이 멸실·유실·도난·훼손된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가유산청에 신고하게 돼 있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시·도 기관을 거쳐 국가유산청에서 처리한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사범단속팀이 사건을 맡으며, 필요 시 경찰과 공조한다.

임 의원은 "도난 문화유산에 대한 회수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국가유산사범단속팀 내 전문 인력 보완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난 문화유산 연구를 지속해 온 최선일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전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은 "수사 전문 인력 확충과 더불어 도난 유산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화는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난 문화유산 매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현재 도난 유산의 매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은밀히 수장(收藏)하거나 꼬리를 잡히지 않으려고 아예 소실시키는 경우도 있다"며 "도난 유산 소유자가 어떻게든 자발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한시적 양성화 정책 등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종교 편향' 장동혁 "부족한 점 있어"

10월 4일, 통도사서 합장·삼배
21일 진우 스님 재예방 '주목'



기독교 편향 발언으로 불교계의 강한 비판을 받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월 4일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아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예방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4일 종정 성파 스님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교편향 발언과 관련해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정치권에서 불교계의 목소리를 더 잘 담아내고, 불교계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살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더 잘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예방 당시 합장 대신 목례를 하고 "제 마음을 다해 인사드린 것"이라고 해명해 물의를 빚은 장 대표는 이날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등에게 합장으로 인사하고, 종정 스님을 예방하는 자리에서는 삼배로 예를 갖췄다.

이어 10월 21일에는 진우 스님을 재차 예방하고 논란에 대해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연석회의에서 총무부장 성웅 스님은 "장동혁 대표가 충분한 사과를 전해 왔다. 21일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하고 직접 사과할 예정이다. 이후 중앙종회에도 별도 사과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성미·김내영 기자

진종오, 태고종 찾아 유감 표명

16일 총무원장 상진 스님 예방
진종오 "언급 無…불편엔 유감"



'서울시장 경선에 특정 종교단체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태고종이 지목되게 했던 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월 16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찾아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진 의원은 9월 3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선에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동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고, 일부 언론이 해당 단체로 태고종을 지목하며 논란을 빚었다.

이에 태고종은 기자회견과 성명 등을 통해 진 의원과 해당 언론의 사과를 촉구했다. 태고종의 거센 비판에 결국 진 의원은 16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예방하고 "태고종 스님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신 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진 의원은 "저는 기자회견에서 태고종을 언급하지 않았다. 제보받은 내용에 따라 특정 종교단체의 회원 명부가 불순한 의도로 사용되는 정황을 지적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상진 스님이 "이번 일로 태고종이 거센 비판을 받았고 그 시작이 진 의원의 발언이었던 만큼, 직접 입장을 밝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자 진 의원은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스님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신 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심기가 불편하셨을 것 같아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신문 캠페인 | '불교'로 답해요 2025 인구주택 총조사

우리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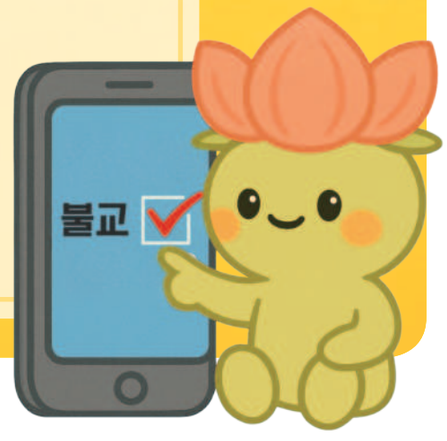
인구주택 총조사 '종교' 문항은?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5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가 시행됩니다.
(*전국 가구의 20%를 대상으로 조사 예정)

향후 10년간 한국 종교 지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종교' 문항 조사! 신자들의 적극적인 응답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매주 정기법회에 참석하지 못해도,
아직 재적사찰이 없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교를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면
우리 모두 '불교' 신자입니다!



종교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당당하게 '불교' 신자임을 알려주세요!

조계종 청사 업무동 12월에 재입주

조계종 TFT, 10월 15일 기자간담회
복구 상황 공유…예산 140여 억원
국제회의장은 내년 2월 완료 계획
고압세척 등으로 분진 청소에 최선
시설관리 · 화재대응 메뉴얼 점검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올해 6월 화재 발생 이후 복구 공사 한창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올해 6월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이 12월 업무동 재입주를 목표로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계종은 피해 시설의 원상복구와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인테리어 개선 작업을 통해 한국불교 위상에 걸맞은 공간으로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화재복구 TFT(단장 성웅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는 10월 15일 서울 전법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TFT에 따르면 화재는 6월 10일 오전 10시 22분경 기념관 국제회의장 입구 복도 천장에서 발생했다. 이후 소방·경찰 합동감식 결과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원인미상'으로 결론났다.

이 화재로 국제회의장 복도 천장이 전소됐고, 회의장 내부와 업무동이 화재분진과 소방수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과 문화유산 피해는 없었다.

화재 직후 조계종은 조계사 담소를 비롯해 인근 9개소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해 종무행정 공백을 최소화했으며, TFT를 구성해 즉각적인 복구에 착수했다. TFT에는 단장 성웅 스님과 재무부장 여학 스님, 박주현 재무차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6~7월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마쳤고, 7월에는 국제회의장 구조안전진단과 기초 청소를 진행했다. 8월에는 국제회의장 외벽 등 피해시설 철거를 시작해 9월 16일 마무리했고, 설계 완료 후 시공사를 선정해 9월 26일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조계종 총무부장 성웅 스님이 화재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현재 업무동은 12월 재입주를, 국제회의장은 구청 해체심의 절차에 따라 내년 2월 복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불교중앙박물관 역시 12월 중 재개관할 예정이다.

복구 예산은 총 140억 3000여 만원으로 편성됐다. 화재보험금(약 90억원), 후원금, 종단 예산 등을 통해 충당한다. 예산에는 임시사무실 임차료, 각종 용역비, 집기·장비 교체비, 시공비 등이 포함됐다.

성웅 스님은 "현재 각 부서가 흩어져 업무를 보고 있어 불편함이 크다. 건물 골조는 유지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전면 시행해 12월 초에는 업무동 입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제회의장은 중앙종회가 열리는 주요 공간인 만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속히 복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테리어 공사는 2004년 준공 이후 노후화된 설비를 전면 교체하고, 1층과 4층 로비를 새롭게 단장해 한국불교 대표시설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분진 등 유해물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 설비와 사무집기를 교체하고, 고압세척과 특수약품 처리를 포함한 단계별 청소를 거쳐 입주한다. 또 서버실은 현재 정상 가동 중이지만, 전문가 의견에 따라 장기적으로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조계종은 화재 재발 예방을 위해 종단 소유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와 화재대응 매뉴얼을 일제 점검해 미비사항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성웅 스님은 "이전보다 더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로 개선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종단의 전통을 살리면서도 소방 안전 취약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 재발을 막겠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일감·보륜·법주 스님 당선


일감 스님


보륜 스님


법주 스님

직능선출위, 10월 15일 선출
보륜 스님은 단독후보 무투표
법주 스님, 128명 중 69표 얻어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직능직(선원) 대표에 일감 스님, 직지사 보륜 스님, 백양사 법주 스님이 각각 당선됐다.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10월 15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제48차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일감 스님을 선출했다.

성웅 스님의 총무부장 임명으로 치러진 이번 직능직 보궐선거에는 성화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단장), 현민 스님(서울 호압사 주지), 일감 스님이 입후보했으나 성화 스님과 현민 스님이 각각 10월 2일과 14일 후보직을 사퇴해 단독후보로 치러졌다.

일감 스님은 원융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0년 사미계를, 1994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장과 제16·17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미래본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제8교구본사 직지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는 보륜 스님이 당선됐다. 제8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6일 치러진 제18대 중앙종회의원 8교구 보궐선거에서 보륜 스님이 단독후보로 무투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는 묘장 스님의 총무원 기획실장에 임명으로 치러지게 됐다.

보륜 스님은 법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1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4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고방사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직지사 부주지, 더프라미스 이사를 맡고 있다.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기호 1번 법주 스님(완도 신흥사 주지)이 당선됐다. 법주 스님은 10월 16일 백양사에서 열린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총 투표자 128명 중 69표를 얻어 당선됐다. 기호 2번 법공 스님(광주 문빈정사 주지)은 59표를 얻었다. 만당 스님(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의 입적으로 치러진 이번 보궐선거에는 법주 스님과 법공 스님, 성진 스님(양주 성관사 주지)이 입후보했다. 이후 성진 스님이 후보 사퇴해 양자대결로 치러졌다.

법주 스님은 지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7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2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백양사 재무국장을 지내고 현재 완도 신흥사 주지를 맡고 있다.

여수령 기자 · 김내영 기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종 중앙종회 11월 정기회 봉은사서 개원

10월 15일, 제14차 연석회의서
직능대표선출위 · 선거법 등 논의

오는 11월 5일 개원하는 조계종 중앙종회 제236회 정기회가 이번에도 서울 봉은사 봉은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 종책모임 회장단은 10월 15일 서울 룸비니빌딩 5층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14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정기회 장소와 주요 안건 등을 논의했다.

정기회는 11월 5일 오전 10시 봉은문화회관 2층 에메랄드홀에서 개회하고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이후 휴회하고 6일에는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정감사를 실시한다. 7일 속개해 남은 안건들을 순차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주경 스님은 "애초 봉은문화회관 공사 일정으로 장소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기회 진행을 위해 공사 일정을 조정하기로 해 이곳에서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우 스님은 "현재 봉은문화회관이 사용되지 않아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청소와 공기 정화 등을 철저히 해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선거법 제77조 '직능대표선출위원회' 구성 등 현안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총무원 삼원 체제 당시 총무원장·교육원장·포교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됐다. 이후 총무원 일원 체제 전환으로 교육원장과 포교원장 직제가 폐지되면서 7인 체제로 축소됐다. 이에 종회의원 스님들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를 다시 9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선거법 개정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종책모임별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주경 스님은 "간선위원 선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잡음을 줄이고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19대 중앙종회의 안정적 구성을 위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종사·명사 법계 특별전형을 자동품수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선광 스님은 "대종사·명사 자격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세납을 이유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대종사·명사 법계를 받는 스님들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별도의 법 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사면·경감·복권 시행

10월 28일까지 호법부로 접수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화합승가' 실현을 위해 사면·경감·복권 절차를 시행한다. 2018년 3월 21일 중앙종회에서 제정된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 공포 이래 처음이다.

조계종은 10월 2일 공고를 통해 "2569(2025)년 사면·경감·복권을 종정 성파 대종사에게 상신하고자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접수는 10월 28일까지이며 사면·경감·복권 신청서, 수징기간 수행이력서(증명서류 포함), 참회서, 제적의 수징자의 경우 승적업무에관한령 제3조 1항에 따른 서류 일체를 준비해 총무원 호법부(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로 제출하면 된다. 김내영 기자

국가지정 명승 | 호리병속의 별천지 쌍계사, 우리들의 이상향 청학동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총림 雙磎寺

쌍계사개산 1302년 · 차나무식재 1197년 · 창건 1185년 기념 대축전

10월 27일~11월 2일(음력 9월 7일~13일) 7일간 법회 및 행사 일정

지혜증장·학업성취·소원성취 발원

대방광불화엄경 고산화상약찬가 독송기도

■ 일시 : 10월 27일~11월 2일(음력 9월7일~13일)까지 7일간
■ 장소 : 화엄전 | 오전 9시

화엄경 약찬가는 고산대강백께서 80권 화엄경을 노래 형식으로 요약하시고 '화엄경 약찬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화엄경약찬가를 독송하면 80권 화엄경을 다 읽으신 것과 같습니다. 정성껏 독송하시고 지혜증장과 학업성취 하시길 바랍니다.

일해덕민 대강백의 초의선사 동다송 특강

■ 일시 : 양력 10월 30일~11월 1일(음력 9월10일~12일)까지 3일간
■ 장소 : 문화예술관 대강당 | 오후 2시

차나무식재 1197주년 기념 세미나

주제 : 우리나라 차나무의 품종과 수령은?
■ 일시 : 양력 11월 1일(음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 장소 : 문화예술관 대강당

쌍계사는 828년 대렴공이 당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귀국하면서 차나무종자를 가지고와 왕명으로 쌍계사일대에 처음으로 식재 했다. 그후 840년에는 육조혜능조사의 현손인 진감혜소선사가 삼법대비의 난야터에 육조영당을 짓고 옥천사(쌍계사의 옛이름)를 창건하시고 화개골 일대에 차나무를 번식시켜 차의 발상지가 되었다. 그러므로 화개골 전체가 1,200년된 차나무 밭이라 할 수 있다. 1,200년 동안 수많은 문인 묵객들이 다녀가면서 많은 선차시를 발표하였고, 쌍계사 청학동을 다녀가면서 사람 살기 좋은 곳이라고 칭송하였다. 이에 쌍계사에서는 일해덕민 대강백을 초청하여 초의선사 동다송 특강을 통해서 차의 진수를 공부하고, 쌍계사와 차의 변천사를 공부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는 많은 외침을 받았다. 일제 식민 치하에서는 우리나라 역사 왜곡을 심하게 하였다. 특히 식민사관植民史觀자들에 의해서 더욱 심했는데 화개골도 마찬가지다, 차나무 시배지 토종차나무를 뽑아내고 일본 종자를 심고 일본차 공장을 세워 일본차를 생산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과연 우리나라의 차나무는 어떤 종자이고 수령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천년된 차나무라고 왜곡시키고 있는 자들이 있어 이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제40회 쌍계사 본 말사 연합회 자비 방생 대법회

■ 일시 : 양력 11월 2일(음력 9월 13일) 일요일 오전 9시
1부 방생의식 / 2부 법요식 및 방생



문의 : 쌍계사 종무소 055-883-1901

쌍계사 본 말사 연합회 일동

60돌 관음종, 태허 조사 '전법 정신' 되새긴다

10월 24일 탑골공원서 기념법회
'거리 전법' 태허 조사 유훈 선양
"인류애 · 문화창달 메시지 전달"
16일 총본산서 종단 60년사 봉정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이 종단 60년사를 봉정하고 있다.

올해 창종 60주년을 맞은 관음종이 개산조 태허 조사의 '전법 정신'을 되새기고 유훈을 선양하기 위한 대법회를 연다.

관음종(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10월 16일 총본사 서울 종로 낙산묘각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종 60주년 기념법회 계획을 발표했다.

'겨레와 함께한 60년, 인류와 함께할 60년'을 표어로 진행되는 관음종 창종 60주년 기념법회는 10월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관음종 종정 영산 홍파 대종사, 총무원장 법명 스님과 종단 주요 소임자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

일한불교협의회장 후지타 류조 스님, 스리랑카불교 부종정 나람바나아웨 아난다 스님 등 해외불교 지도자들도 법회에 참석해 관음종 창종 60돌을 축하할 예정이다.

관음종이 총본산 낙산묘각사가 아닌 종로 탑골공원에서 기념 법석을 여는 이유는 태허 조사의 전법 정신을 되새기고 계승하기 위함이다.

조계종 선암사 경운 원기 선사의 문하로 출가해 득도한 태허 조사는 경북 백화산에서 대한민국의 안정과 국운융창을 발원하며 6년 동안 고행을 했다. 한국전쟁 중 서울이 수복되자 상경해 참상을 목도하고 대중교화에 나섰다.

수행자로서 선방에만 앉아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태허 조사는 후학들에게 "우리 수행자는 일반 신도나 속인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설파하며 대중교화에 나섰다. 1958년부터 2년 동안 매일 오전 10시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종로3가 파고다 공원에서 거리 설법을 했다. 그 이후에는 전국 오일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전했다.

이번 기념법회는 위민안락과 불법(佛法)홍포를 위해 거리에 나서 부처님 법을 전했던 태허 조사의 정신을 널리 전하고 문화를 통한 사회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법석이 될 예정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관음종 부원장 도각 스님은 "종로 탑골공원은 만해 한용운 스님을 비롯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민족의 성소이자 관음종 개산조 태허 조사가 2년 동안 거리 설법을 설한 성지"라면서 "사람으로 치면 환갑의 나이가 된 종단이 조사 스님의 정신을 되새기고 나아갈 길을 선포하는 법석의 장소로 탑골공원만한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종 50주년을 맞아 관음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노동자들의 유해를 한국으로 송환하는 등의 사업을 전개해왔다. 60주년을 맞아서는 다문화 가정,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전법의 초점을 맞추려 한다"면서 "이번 법회를 통해 한국불교의 인류애와 문화창달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 간담회에 앞서 관음종은 이날 오전 '태허 조사 탄신 12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관음종 60년사〉를 부처님과 태허 조사에게 봉정했다. 〈관음종 60년사〉에는 태허 조사의 행장과 60년 동안 이뤄진 종단 발전 과정, 현황을 담았다.

조계종, 11기 국제교류위원 위촉

10월 14일, 위원 10명…임기 2년
진우 스님 "한국불교 세계화 앞장"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국제 종책과 불교 교류 분야 자문을 담당할 제11기 국제교류위원회를 구성했다. 해외포교 경험이 풍부한 스님들이 위원으로 위촉돼 국제 교류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14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제11기 국제교류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2년이다.

국제교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사회부장 진성 스님과 당연직 위원 포교부장 정무 스님을 비롯해 해외특별교구장 직무대행 정범 스님(중앙종회의원), 국제전법단장 문종 스님, 마음치유학교장 혜민 스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경완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장 대행 원걸 스님,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자헌 스님, 해외특별교구 자문위원 혜운 스님(일본 조동종)으로 구성됐다.

진우 스님은 "불교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시아에 집중돼 있고, 수행 중심의 종교로 전법과 포교에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은 국제 교류와 연대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대다. 한국불교 세계화는 종단이 이끌어야 할 주요 과제인 만큼 위원회가 그 역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10기 환경위 출범…"자비로 환경 정화"

진우 스님, 16일 위원 19명 위촉
3년 임기…불교 환경 종책 마련



사찰수행 환경 보존과 현대사회 생태·환경 등 현안에 불교적 대안 마련을 이끌 조계종 10기 환경위원회가 출범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16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10기 환경위원회 위원 19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생태 및 자연환경, 기후위기, 환경법, 폐기물, 산림복지, 환경교육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인 총무원 사회부장 진성 스님과 해인사 사회국장 무진 스님, 통도사 사회국장 정원 스님을 비롯해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중앙종회의원) △울산 신흥사 주지 인경 스님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조계중 순천대 산림자원조경학부 교수 △조시경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설동근 숲생태지도자협회 이사장 △신대윤 조선대 명예교수 △오창길 자연의 벗 소장 △정규원 숲산사 대표이사 △최원형 불교생태콘텐츠 연구소장 △최윤호 백두대간연구소장이 위촉장을 받았다. 임기는 3년이다.

진우 스님은 "환경은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라며 "불교는 본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종교로, 지금까지 산사와 사찰림이 잘 보존돼 있는 것은 스님들이 오랜 세월 불상생과 조화·공존의 마음으로 지켜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환경은 물리적 차원뿐 아니라 마음의 환경까지 포함된다"며 "자리이타 정신에 입각한 자비와 상생의 마음으로 마음과 세상을 정화하는 데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진각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의 뜻을 이어 대내적으로는 사찰수행 환경을 잘 보존하고 대외로는 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소년·청년 출가자 증가 "특수성 고려한 수계교육 필요"

출가장려특위, 제6차 회의
출가제도 개선방안 등 논의
교구별 출가학교 운영 현황도



매년 소년·청년 출가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수계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장려를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범 스님, 이하 출가장려특위)는 10월 14일 서울 룸비니빌딩 5층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출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위원장 정범 스님과 위원 상원·법해 스님, 포교부장 정무 스님, 교육부장 유정 스님 등 위원 9명 중 5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부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소년·청년 수계자 현황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제64기 사미·사미니 교육에서는 사미 10명·사미니 3명, 제65기에서는 사미 8명·사미니 2명이 수계했다. 이어 2024년 제66기에서는 사미 12명·사미니 5명, 제67기에서는 사미 14명·사미니 3명, 2025년 제68기에서는 사미 16명·사미니 1명, 제69기에서는 사미 23명·사미니 2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소년 출가자의 경우 행자교육 면제로 바로 기본교육기관에 입교하면서 대중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교의 법적 수업일 이수를 병행해야 하는 제도적 한계도 존재한다. 이에 위원 스님들은 현실을 반영한 소년·청년 출가자 수계교육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장 정범 스님은 "소년 출가자는 행자교육을 면제받아 기본교육기관에 입교하지만, 이미 행자교육을 마친 40~50대 출가자들과 함께 지내며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소년 출가의 행자교육을 면제하는 특별법과 현장의 현실이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년·청년·중년·은퇴출가 등으로 나눠 세밀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습의사 등 인력 운영의 문제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출가를 결심한 소년들은 늘고 있는데, 이들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현실적인 교육 시스템이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법해 스님은 "일부 소년 출가자들이 동국대 진학만을 목표로 삼는 경우도 있어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문제도 분명 존재한다"며 "이들에게 사명감과 원력, 자존감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원 스님은 "정책을 세우기 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며 "습의사 스님들과의 소통 자리가 더 많아져야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각 교구별 출가학교 운영 현황을 공유했으며 '청소년출가단기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 수정, 세대별 출가자를 위한 전문행자교육원 설치, 외국인 행자 확대 방안 등의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내영 기자

眞際大禪師 2025 경주 APEC 성공기원 대법회

이제 세계가 禪의 진수를 알아 화평해질지어다

일시 2025년 10월 25일(토) 오전 10시 장소 대한불교조계종 해운정사



대한불교조계종 제 13 ·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제대선사께서 경주 APEC 성공을 기원하는 대법회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공동체의 밝은 미래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법회를 엽니다.

10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부산 해운정사 대법당에서 진리의 주장자를 높이 드나니 그 가르침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부디 동참하시어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향상향하자재용
向上向下自在用 하야사
향상구와 향하구의 진리를 자재하게 써야사

천상인간무등필
天上人間無等匹 이로다
천상세계와 인간세계에 짝할 자가 없음이로다

10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해운정사에서 펼쳐지는 경주 APEC 성공기원 대법회에 함께하십시오.

주최 I 대한불교조계종 해운정사 주관 I 대한불교조계종 해운정사 후원 I 한국불교대표방송 BTN
문의 I 051-746-2256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 40-6

봉선사 조실에 밀운 대종사 승좌

10월 9일, 개산대재 및 승좌식
밀운 스님 "지계 · 보살행 실천"
운허 스님 글씨 '운허체' 배포도

남양주=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이 10월 9일 열린 승좌식에서 조실 밀운 대종사에게 불자를 봉정하고 있다.


'운허체'로 작성된 '이산혜연선사발원문'.

교종본찰 봉선사 조실에 밀운 부림 대종사가 10월 9일 승좌했다. 1056주년 개산대재와 조실 승좌식이 열린 이날, 한글날을 맞아 평생을 한글 역경에 매진한 운허 스님(1892~1980)의 친필로 제작한 '운허체'가 공개돼 의미를 더했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가 9일 큰법당 특설무대에서 봉행한 1056주년 개산대재와 밀운 부림 대종사 조실 승좌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와 원로의원 두산 일면 대종사, 명예원로의원 여산 암도 대종사를 비롯한 본말사 스님들과 홍지선 남양주 부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의 아내 박주영 여사 등 정계 인사, 김남명 25교구신도회장과 자명화 봉선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승좌식에 앞서 열린 '운허체' 배포식에서는 남양주시와 운허기념사업회가 개발한 '운허체'가 공개됐다. '운허체'는 봉선사 홈페이지와 무료폰트 사이트 등을 통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봉행사에서 "오늘 개산 1056년 기념식과 운허 스님의 한글 사랑의 뜻을 더하는 '운허체' 배포식을 함께 열게 되어 무척 뜻깊다"며 "특히 종단의 여러 소임을 역임하고 봉선사와 종단 발전에 힘써 오신 밀운 부림 대종사를 조실로 모시게 된 것은 더없는 영광이다. 앞으로 어른 스님들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교구를 잘 이끌어나가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남명 25교구 신도회장은 "봉선사 사부대중은 조실 스님을 부처님처럼 존귀하게 모시며 가르침 따를 것"이라며 "스님께서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무시며 깊고 묘한 진리 전해 주시고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길 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지 호산 스님이 불자를, 능엄승가대학장 정원 스님이 주장자를 봉정하고 삼배의 예를 올렸다. 올해로 세납 93세인 밀운 스님은 스스로를 '부목 조실'이라 칭했다.

밀운 스님은 법어에서 "교종본찰인 봉선사는 대대로 대강백 스님들이 조실을 하셨는데, 경학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부목 소임만 해 온 저에게는 과분한 자리"라며 "저는 그저 '부목 조실'로 사중을 돌보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 자리이타행을 하셨기 때문"이라며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오계를 지키고 보살행을 실천해야 한다. 보살행이 없는 깨달음은 가치가 없다. 오계를 지키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자리이타행"이라고 당부했다.

밀운 스님은 1954년 대오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72년 봉선사에서 운허 스님을 법사로 건당 입실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봉은사 주지, 총무원 재무부장·총무부장,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 법규위원장, 봉선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2004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고 원로의장, 명예원로의장, 봉선사 회주로 후학 지도와 도량 수호에 힘써 왔다.

'님의 침묵' 100주년…광화문서 민족 화합 노래한다

동국대 · 인제군 10월 11일 선포식
2026년 진행 기념사업 계획 발표
지역 함께하는 '청년만해축제'도



독립운동가이자 민족문학의 큰 별, 만해 한용운 스님의 대표작 〈님의 침묵〉 발표 100주년인 2026년을 맞아 스님의 사상과 문학정신을 그 뜻을 다양한 기념행사가 마련된다.

동국대와 인제군, 님의침묵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10월 11일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 설악관 대강당에서 '님의 침묵 100주년 다시 만해를 부른다'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윤재웅 총장과 최상기 군수가 직접 진행한 선포식에서는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다양한 기념사업 계획들이 소개됐다. '문화예술 전시·공연'은 내년 5월로 행사가 집중됐다. 동국대는 내년 5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민족 화합·통합'을 주제로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하고 만해 영상 콘텐츠 페스티벌, 만해 시 손글씨 시화전도 함께 연다.

인제군은 만해 스님의 독립운동 활약상을 판소리로 구현한 창작 판소리 '만해의 사자후-독립선언에서 님의 침묵까지'를 내년 5월 중 선보일 계획이다. 또 항일 민족시인들의 시집과 유품을 전시하는 '항일민족시인 특별전'과 흩어진 만해 스님의 유묵과 친필을 모아 전시하는 '만해 한용은 친필·유묵 전시회'도 진행된다.

학술·교육 행사도 다채롭다. 동국대는 교내 만해연구소를 중심으로 2월과 5월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 기념 국제·국내학술대회를 각각 개최하며 만해아카이브 구축과 자료총서 발간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한다. 인제군에서는 법륜 스님과 저명 문학인 초청 강연을 5월 중 진행하며, 올해 9월부터 진행 중인 '만해 인문학 아카데미'도 내년 한해동안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인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청년만해축제'도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선보인다. 5월에는 홍대, 이태원 등에서 활동하는 젊은 버스커와 락밴드를 초청해 주민노래경연 수상자들과 함께하는 '청년만해 뮤직 페스트벌'과 인제군과 수도권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예술창작캠프가 진행되며 여름휴가 시즌에는 지역민과 피서객이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창작판소리, 클래식 공연이 이뤄진다.

윤 총장은 "문화강국의 성장은 기적이 아닌 노력의 결과다. 이번 100주년을 계기로 만해의 정신을 민족문화의 자산으로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시·공연·학술·강연·탐방 등의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군수는 "인제의 불교문화와 만해의 사상을 잇는 사업으로 인제군민과 함께 오세암 대장전 복원 불사와 만해의 길인 단풍나무 숲길 조성, 청년만해축제를 성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포식에 앞서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는 '대한민국 경전의 도시 인제, 그리고 만해 한용운의 정신세계'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 석좌교수는 "인제군 남면 갑둔리에서 간행된 〈동경대전(東經大全)〉은 지식인에게는 한문경전으로, 민중에게는 한글 가사경전으로 전해진 개벽의 사건이었다"며 "이는 만해 스님이 〈십현담 주해〉와 〈님의 침묵〉을 함께 집필했던 열린 사유의 맥락과 통한다"고 강조했다.

인제=이동격 강원지사장

동국대 '영캠프' 열기 수계대법회로 잇는다

불교동아리 학생 · 장학생 대상
APEC 간화선 프로그램 점검

3500여 동국인이 불자로 거듭났던 '2025 영캠프'의 열기를 이을 수계법회가 열린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는 10월 15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차 건학기본기관장 연석회의'를 열고 하반기 주요 계획과 성과를 공유·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업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2025 불교동아리 수계대법회'다. 11월 초 봉행될 예정인 수계대법회는 지난 9월 16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영캠프'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실제 올해 영캠프는 참가신청 시작 2분 만에 매진되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고, 500석 규모의 추가 신청도 접수 개시와 동시에 마감됐다. 수계법회는 불교동아리 학생 및 불교계 장학금 수혜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건학위원장)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봉행된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맞춰 간화선을 세계인에 알리는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동국대 WISE캠퍼스는 10월 28일 교내 대선방·중선방·공양동 등 선센터에서 'APEC 2025 KOREA 선(간화선)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APEC에 참석하는 각국 사절단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동국대 출판문화원에서 발간한 〈불교사전〉이 네이버 오픈사전PRO 표제어로 등록된 결과도 공유됐다. 이에 따라 네이버 통합검색 및 어학사전의 표제어 검색결과로 〈동국역경원 불교사전〉이 노출될 수 있게 됐다.

신중일 기자

"10·27법난 기념관, 공공시설로 기능해야"

'제45주년 10·27법난 세미나'
교육 · 연대 프로그램 모색

1980년 10월 27일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국가폭력 사건인 '10·27법난'의 발생 경위와 피해 실태를 알리고, 갈등 치유와 피해 구제 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10·27법난 기념관 및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국가적 공공시설로 기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진성 스님)는 10월 14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제45주년 10·27법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10·27법난 갈등 치유와 피해 구제 시설 건립 실태'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과 국가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및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불교적 해법으로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서울 봉은사에 들어서는 10·27법난 기념관은 부지면적 1만 2870㎡, 연면적 3만 1220㎡ 규모로 지상 3층, 지하 4층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공연장과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등을 갖춘 복합 문화 추념 공간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성 아미타불교요양병원에 건립될 치유센터는 연면적 3675㎡,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추진 중이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발제 '10·27법난 기념관 및 트라우마 센터 건립 현황'에서 "기념관과 치유센터가 항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 국가적 공공시설로 기능해야 하며,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교육적 접근 방식이 연구돼야 한다"면서 "지역 학교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제적 연대 방안 모색, 인권운동 전개 등 사회적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 수륙대법회 연다

11월 8일, 경내 적광전 앞 무대
극락왕생 발원…가족 평안 기원

선망조상·수자령·자살영가·반려동물 등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남은 가족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법회가 열린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 금강경봉찬기도회는 11월 8일 오후 1시 경내 특설무대에서 '금강경봉찬기도 영가천혼수륙무차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지난해 실시한 영가천혼무차대회를 넘어 수륙재를 포함해 영가천혼수륙무차대법회로 확장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조상천도, 낙태아와 수자령, 영유아천도에서 자살영가와 반려동물도 포함했다. 영가의 천도와 해원, 그리고 남은 가족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다.

반려동물 천도는 전체 인구 30%에 달하는 1550만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염원을 반영한 천도다. 특히 월정사 부도밭에는 개부도 3기가 위치해 있다. 한국불교사상 유래없는 일로, 이는 통일신라 성덕왕의 셋째 아들로 추정되는 김지장이 신라 개[犬]인 '선청'을 데리고 수행하며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추앙받게된 일화와 연결된다.

자현 스님은 10월 15일 서울 월정사불교문화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가에 수계첩을 통해 계율을 주고, 수륙무차법회를 개설해 천도하고자 한다"면서 "영가의 이고득락과 살아있는 이들의 죄의식을 소멸하고 도리를 다하게 해 행복으로 인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33-339-6791 임은호 기자


"조계사 국화축제서 가을 만끽하세요" 시민들에게 향긋한 국화 향기로 가을 정취를 전하는 서울 조계사 국화화엄 축제가 10월 15일 막을 올렸다. 이번 국화축제는 10월 30일까지 이어지며 경내 곳곳에서 '성도부처님' '연꽃부처님' '초전법륜부처님 · 회화나무부처님' '열반부처님' '사적비' '하트 다리' '탄생부처님' 등 다양한 국화 조형물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김내영 기자

인하대 학생들, 수계법회로 참 제자 거듭

10월 2일, 인불회원 30여 명 동참
수미정사 주지 금선 스님 전계사로



인하대 불교학생회(회장 변유진, 이하 인불회)가 교내에서 처음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 참 제자로 거듭났다.

인불회는 10월 2일 교내 동아리방에서 지도법사 금선 스님(인천 수미정사 주지)을 전계사로 수계식을 봉행했다. 수계식에는 인불회원 3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전계사로 인불회 회원들에게 직접 계와 법명을 전한 금선 스님은 "부처님처럼 살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오계를 받고 부처님 제자로 새로 태어남을 축하한다"고 격려하고 "경전에 '물고기를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기가 난다'고 했듯, 오늘 받은 법명처럼 앞으로 부처님 제자로서 지혜롭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계불자들은 참회 진언을 염송하며 연비와 함께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하고 법명과 그 의미가 적힌 수계첩을 받으며 부처님 제자로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임은호 기자

청춘콘서트 신화, '청년페스타'로 재탄생

11월 7~9일 정토사회문화회관서
법륜 스님, 조인성 등 강연 진행

2018년까지 청년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희망을 나누며 선풍적 인기를 구가했던 '청춘콘서트'가 7년 만에 새 모습을 갖춘 청년문화축제로 부활한다.

청년페스타 운영위원회(위원장 전해종, 이하 운영위)는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 서초동 정토사회문화회관에서 '2025 청년페스타: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움직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5 청년페스타'는 높은 자살률과 실업률 등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활력과 영감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순한 강연을 넘어,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지금 이대로 괜찮은 나'를 체험하며, 서로 연결되고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대규모 축제로 꾸며진다는 게 운영위의 설명이다.

'청년페스타'는 대표 강연 프로그램으로 우리 시대 소통의 대가들이 함께한다. 법륜 스님은 3차례에 걸쳐 즉문즉설, 사회 실천, 미래 비전을 주제로 청년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 방송인 김제동,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 배우 조인성 등이 청년들과 진솔한 대화의 장을 가질 예정이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김예지 국회의원 등은 각각 청년 교육과 평화, 경제, 미래 정치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갖는다. 이외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화세움 특강, 국제구호활동가들의 체험을 교류하는 NGO 토크 등 다양한 소통의 장이 펼쳐진다.

'2025 청년페스타'는 종교와 상관없이 2030 청년이라면 참여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youthfesta.com)서 가능하다. 신중일 기자

Interview

2025국제선명상대회가 10월 29일 국제컨퍼런스를 끝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한다. 조계종 선명상 자문위원으로서 선명상 체계화와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주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을 만나 선명상 대중화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들었다. 〈편집자 주〉

‘선명상’ 불교·사회 잇는 다리, 전담조직·플랫폼화 과제



주경 스님은…설정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사미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총무원 기획실장, 불교신문 사장, 동국대 감사, 조계종 의례의원 등 역임했다. 5선 중앙종회의원으로 현재 제18대 중앙종회의장을 맡고 있다. 동국대 전자불전콘텐츠연구소장, 선명상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선명상 자문위원 주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명상 대중화는 시대 요청
공교육 접합해 사회 공헌
제2의 템플스테이로 추진

다양한 명상 ‘연대’ 필요
사찰 법당 활용 플랫폼화
선명상위원회 중심 조직화

Q. 불교 명상이 마음챙김이나 MBSR 등 서구식 명상으로 역수입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A. 명상은 본래 자기 마음을 바로 보는 수행입니다. 서구식 명상이 치유·힐링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그것도 불교 수행의 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불교는 기도 외에 대중이 접근할 만한 수행체계가 부족했기 때문에 서구의 방식을 차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간화선·위빠사나 등 전통 수행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선명상’ 이름으로 체계화해야 합니다. 불교적 수행이면서도 현대인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Q. 현대인들이 명상을 치유와 힐링의 기능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님께서 보시는 근본적인 명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A. 명상은 ‘나를 아는 일’입니다. 현대 사회는 풍요롭지만 삶의 의미를 잃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책임감이나 역사 인식이 약하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외면한 채 ‘잘 먹고 사는 것’에만 몰두합니다. 명상은 이런 ‘자기 존재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 과정입니다. 자기를 바로 알면 타인을 이해하고, 사회적 책임도 회복됩니다. 명상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 회복을 위한 길입니다.

Q. 그런 의미에서 명상의 공교육화가 추진 중이고 그 일환으로 10월 29일 국제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A. 명상은 사회의 ‘새는 구멍’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교사·학부모·학생 모두 책임과 공동체 의식을 잃은 시대에, 명상은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게 합니다.

불교 색채를 강조하기보다, 건강한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적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곧 전도선언에서 밝힌 ‘중생의 이익(利益)·안락(安樂)·행복(幸福)’입니다. 명상은 그 세 가지를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Q. 조계종 차원에서 ‘선명상’을 통해 명상 대중화에 나선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종단 주도 대중화 사업이 자칫 기존 명상 수행법을 획일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명상 대중화를 강조하는 주경 스님.

A. ‘선명상’은 대중화를 위한 거대한 담론입니다. 오히려 각 전통과 현대 명상을 연결하고 체계화하는 통합 플랫폼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간화선·위빠사나·MBSR 등 다양한 수행 전통이 공존해야 하며, 종단은 이들을 묶어 연구·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로 묶는 단계가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연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선명상이 명상이라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대표 플랫폼이 되지 않으면 하나의 이벤트나 행사로 전락해 사라질 것입니다.

Q. 어떻게 보면 명상 대중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도 보이는데요.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서는 각 종단과 기관의 협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역할이 요구될까요?

A. 조계종이 중심이 되어 선명상위원회를 통해 하나의 에너지 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교도소·군 등에서 명상이 필요할 때, 그 수준에 맞게 불교적 자원을 연결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각 기관의 역할보다 명상이 우리 사회 고통을 치유하는 길이라는 공감대 형성입니다. 공감이 있어야 역할이 만들어 집니다.

Q. 스님께서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초대 사무국장으로 템플스테이가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템플스테이처럼 선명상도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A. 맞습니다. 템플스테이는 처음 35개 사찰에서 시작했습니다. 선명상도 마찬가지로 공간과 사람을 확보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각 사찰의 법당과 강당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해 주말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도자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해 전문성을 갖추게 해야 합니다.

저는 교구본사를 포함해 40개 사찰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제안했고, 4~5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선명상 체험관·수행원’을 세우고, 다양한 명상 지도자들을 연계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Q. 선명상을 종단 차원에서 주도하려면 전담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A.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명상사업단’과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도사 자격을 갖춘 스님과 재가자들이 학교·공항·교도소 등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명상을 통해 사회적 이익과 치유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지, 전도가 아닙니다.

현재는 속도가 더디지만, 중앙조직이 인력과 공간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명상 지도자의 안정적 활동 보장이 대중화의 핵심입니다. 실무자 이직이 잦으면 지속될 수 없습니다. 명상 생태계를 하나의 ‘선명상 네트워크’로 묶고, 종단이 보호·육성해야 합니다.

Q. 앞으로 선명상이 한국불교와 사회에 어떤 의미로 자리하길 바라십니까?

A. 선명상은 단순한 수행법이 아니라, 불교와 사회를 잇는 다리입니다. 명상을 통해 국민이 행복을 찾고, 불교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면 그것이 곧 부처님 가르침의 완성입니다. 선명상이 그런 길을 여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교육+명상’ 미래 모색 ‘2025 국제컨퍼런스’ 개최

10월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서
진우 스님, 공교육 명상 도입 필요성 연설
라이클 · 혜주 스님 등 석학 4인 발제

선명상 대중화로 현대인의 정신 건강과 마음의 평온을 기원하는 조계종의 ‘2025 국제선명상대회’ 대미는 국내외 석학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과 명상의 미래를 모색하는 ‘국제컨퍼런스’가 장식한다.

조계종은 10월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 국제선명상대회 국제컨퍼런스(Seon Meditation Summit 2025 International Conference)’를 개최된다. 주제는 ‘깨어나는 교육, 연결되는 우리-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 전환의 제안’이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주호영(국회 부의장), 김영호, 조정훈, 고민정, 문정복, 김대식, 김준혁, 정을호, 김용태(국회 교육위원회), 이헌승, 추미애, 김영배, 김형동, 이수진, 염태영, 김동아, 문진석, 박희승, 이만희, 임호선(정각회), 조승래(마음챙김포럼 대표의원), 한지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등 국회의원 22명이 공동주최해 의미를 더했다.

개회식에 이은 기조연설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맡는다. ‘한국 전통 명상과 공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조계종이 제시하는 명상 교육의 비전과 공교육 속 명상 도입의 필요성을 밝힌다. 특히 진우 스님은 한국 불교 명상이 지닌 전통적 가치와 현대 교육의 만남을 통해 교육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전과 오후 세션에서는 국내외 석학 4인의 발제가 진행된다.

발제 이후에는 미산 스님(KAIST 명상과학연구소장)의 사회로 종합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조계종은 이번 ‘2025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교육과 명상을 잇는 실질적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과 확산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명상은 단순한 수행을 넘어 전인적 교육의 열쇠”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한국 공교육 속 전인적 발달을 실현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내영 기자

2025
국제선명상대회
국제컨퍼런스 & 폐막식

깨어나는 교육, 연결되는 우리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 전환의 제안’

2025.10.29.(수) 10:00~17:00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기조연설 진우스님 Ven. Jinwoo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발제1 킴벌리 A. 쇼너트 라이클 Kimberly A. Schonert-Reichl 일리노이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발제2 로버트 로저 Robert Roeser 에모리대학교 명상과학과 자비 기반 윤리 연구센터 연구책임자
발제3 김누리 Kim Nury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독일어문학 교수
발제4 혜주스님 Ven. Hyeju 동국대학교 아동청소년교육학과 교수

오프라인 사전 신청 (선착순 200명)
온라인 사전 신청

공동주최 | 국회의원 주호영, 김영호, 조정훈, 고민정, 문정복, 김대식, 김준혁, 정을호, 김용태, 이헌승, 추미애, 김영배, 김형동, 이수진, 염태영, 김동아, 문진석, 박희승, 이만희, 임호선, 조승래, 한지아,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주관방송 | BBS 불교방송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통도사 미디어아트, 가을밤 도량을 밝히다

10월 3~29일, 통도사 경내서
빛 · 자연 · 인연 주제로 18작품
QR코드 설치해 영상 감상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통도사가 개산 1380주년을 맞아 선보인 '2025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산문의 빛, 마음의 정원에서 인연을 만나다' 는 10월 29일까지 이어진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개산 1380주년을 맞아 선보인 '2025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산문의 빛, 마음의 정원에서 인연을 만나다'가 추석 연휴 기간 큰 호응을 얻으며 가을밤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전시는 10월 3일부터 29일까지 통도사 경내 전역을 배경으로 빛과 자연, 인연(因緣)을 주제를 디지털 예술로 풀어낸다. 사찰의 다섯 문(영축산문·영축총림문·일주문·천왕문·불이문)과 무풍한송로, 성보박물관 등 주요 공간을 따라 총 18가지 미디어아트 콘텐츠가 설치돼 관람객이 산문을 따라 걸으며 불교미학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10월 3일 예정됐던 공식 개막식은 우천으로 취소됐다. 통도사는 "비로 인해 첫날 행사는 진행하지 못했지만 전시는 예정대로 운영된다"며 "다만 비가 내릴 경우 관람객 안전을 위해 행사가 취소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일기예보와 통도사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전시는 미디어파사드, 인터랙티브 콘텐츠, 레이저쇼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불교적 상징과 자연 풍경, 사찰의 역사와 정신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각 산문에는 '통도사의 부름', '빛이 머무는 길', '마음의 배', '머무는 자리' 등 상징적 주제가 더해졌으며, 문마다 QR코드를 통해 관람객이 인연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성보박물관 앞에서는 메인 콘텐츠인 공연형 영상 '하나의 연(緣)'이 상영된다. 조명과 영상, 음향이 어우러진 퍼포먼스형 미디어 작품으로, 사람과 사찰, 불교의 관계를 예술적으로 표현한다. 상영시간은 오후 7시 30분과 8시 30분 두 차례 예정이었으나 관람객 증가로 7시, 8시 회차가 추가돼 총 네 차례(19:00/19:30/20:00/20:30) 운영된다.

특히 무풍한송로 구간은 자연의 어둠과 조명이 어우러져 가장 인기 있는 포토존으로 꼽히며, 불이문 앞 '빛의 정원' 구간은 인연과 공존을 상징하는 장엄한 공간 연출로 주목받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 단위 관람객과 관광객이 몰리며 도량 곳곳이 조명과 영상으로 물들었다. 관람객들은 "산사의 고요함과 빛의 예술이 어우러져 감동적이었다", "통도사가 예술로 이렇게 새롭게 느껴질 줄 몰랐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는 매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도보 입장 마감은 오후 8시 30분이다. 차량은 오후 5시 30분부터 출입이 제한된다.

주지 현덕 스님은 "통도사 미디어아트는 매해 발전하고 있다. 올해는 사찰 경내 전체를 활용해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를 마련했다"며 "천년고찰의 전통과 첨단 디지털 기술이 어우러져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비로 인해 개막은 미뤄졌지만 통도사의 '빛과 인연의 길'은 계속된다"며 "가을밤 도량을 걸으며 불교의 정신과 자연의 조화를 함께 느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개원 1주년 대마도 황룡사, 한일 화합 상징 '우뚝'

비로자나불 개금불사 회향식
제주 4·3 희생자 공양탑 참배
선조 이연왕희 묘 헌다례도


개원 1주년을 맞은 대마도 황룡사가 10월 10일 '비로자나불 개금불사 회향 및 개원 1주년 기념법회' 를 봉행하고 한일 불교 교류 활성화를 발원했다.

일본 대마도(對馬島)에 세워진 최초의 한국 사찰 황룡사(주지 보혜 스님)가 10월 10일 '비로자나불 개금불사 회향 및 개원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지난 1년간의 포교 성과를 되돌아보고, 대마도에 깃든 한국의 역사와 아픈 발자취를 되새기며 한일 불교 교류의 가치를 확장하는 의미로 마련됐다.

법회에는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범어사 재무국장 도은 스님을 비롯해 (사)부산영산재보존회 스님들과 부산시민취타대 및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보혜 스님은 "대마도 주민들과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황룡사 개원의 밑거름이 됐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사랑과 인연으로 맺어진 이 도량이 자비의 도량으로 빛나도록 정진하겠다"며 "모든 대중의 공덕으로 황룡사가 한일 간 불교문화 교류의 중심 도량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법문에서 "과거의 근심과 미래의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청정한 마음을 내는 것이 부처님을 모시는 참된 점안의 의미"라며 "맑은 마음 속에서 지혜와 자비의 눈을 뜰 때 황룡사가 금빛 광명의 도량으로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회 후에는 대마도 북서쪽 좌호만(佐護湾)에 위치한 제주 4·3사건 희생자 공양탑을 찾아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참석 대중은 수장(水葬)된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발원했다.

이어 11일에는 조선 제14대 임금 선조의 딸 이연 왕희(李姸 王姬)를 추모하는 헌다례가 봉행됐다. 임진왜란 당시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에게 납치돼 대마도로 끌려온 이연 왕희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1613년 생을 마감했다. 대마도 우나쓰라(女連) 마을에는 현재 '조선국왕희묘(朝鮮國王姬墓)'가 조성돼 있다. 정오 스님과 보혜 스님을 비롯한 대중은 헌다례로 왕희의 넋을 위로하고, 한일 간 평화와 화합을 발원했다.

한편 황룡사는 기장 청량사 주지이자 (사)향기로운문화동행 이사장을 맡고 있는 보혜 스님이 지난해 8월 23일 대마도 히타카츠항 인근 이즈미 마을에 창건했다. 지난 1년간 15차례의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현지 주민과의 교류를 이어왔으며, 일본 내 한국 사찰로서 불교문화 교류의 중심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 대마도=이도경 부산지사장

태고종 부산교구종무원장에 자관 스님

"종도와 함께 교구 도약 이루겠다"



태고종 부산교구종무원 제21대 원장에 자관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10월 10일 태고종 부산교구종무원사에서 진행됐으며, 부산교구 소속 스님 60명이 참석했다.

자관 스님은 "부산 태고종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종도들의 역량을 모으겠다"며 교구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부산교구종무원의 중심은 언제나 종도들"이라며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종도 수를 확대하고, 부산교구종무원사 신축을 추진해 안정된 수행과 종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교구 간 연대와 교류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스님은 "오는 11월 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태고종 국제수계법회에 부산 지역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동참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부산교구의 결집력과 종단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자관 스님은 부산 동래 자비암 주지로, 동래구불교연합회 회장과 동래경찰서 경승실장으로 활동 중이다. 과거 제18대 부산교구종무원 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박병금 시인, 통도사 영축문학상 대상

10월 12일 경내 해장보각서
상금 1000만원과 상패 수여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10월 12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제7회 영축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 불교문학의 진흥과 수행정신의 문학적 계승을 위해 마련된 영축문화상은 통도사가 주최하고 영축문학회가 주관한다.

제7회 영축문학대상에는 박병금 시인의 시 '장경각 뜰에는 고래가 산다'가 선정됐다. 박병금 시인은 2005년 〈문학세계〉로 등단해 일상 속에서 발견한 깨달음과 자비의 정서를 시로 형상화하며 꾸준한 창작활동을 이어왔다. 부산여성문학인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문인협회 회원, 부산강서문인협회 자문위원이다. 영축문화대상에는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견강암, '가을 효(孝) 산사음악회'

10월 15일, 경내 특설무대



부산 사상구 견강암(주지 향공 스님)이 10월 15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가을 효(孝)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자비·사랑·행복·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주제로 마련돼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가을 정취를 나눴다.

향공 스님은 "오늘 산사음악회는 부처님 법인 자비와 사랑, 행복과 나눔을 실천하는 지혜의 울림이 시작되는 법회"라며 "이 울림이 여러분의 가슴마다 등불이 되어 번뇌는 잦아들고 자비의 꽃이 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무대에는 지역 가수와 예술인들이 출연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으며, 어르신들에게는 TV, 압력밥솥, 전자레인지, 선풍기, 이불 등 푸짐한 경품이 전달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564회 사명대사 추계 향사
일시 : 2025년 10월 25일(토) 오전 10시 장소 : 표충사 사당
대한불교조계종
밀양 표충사
주지 진각
사부대중 일동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1338 전화 055)352-1150

BTN 불교TV
태학산자연휴양림 제9회
태학사 가을 음악회
2025. 11. 1(토) 오후 5시
태학사 특설무대
천안시 동남구 휴양림길 159
박시환 윤성 손진욱 조연호 정홍일 강성희
BTN 라디오
| 주최 | 한국불교태고종 태학사 | 주관 | BTN 불교TV
| 후원 |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농협, 스마트치과, K-솔루션, 전망대365광고
| 문의 | 041-566-7491

“참회합니다” 임란 왜장 후손, 가산사 참배

10월 10일, 가산사 ‘참회와 화해’
일본군 후손 호국충혼탑서 ‘참회’
임란 433년만 한일 후손 한자리
진우 스님 “치유-미래 여는 계기”

유재상 충청지사장


10월 10일 옥천 가산사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및 한일 평화의 날’ 행사에서 임진왜란 참전 일본군 후손들이 머리 숙여 참회의 뜻을 밝혔다.

임진왜란 발발 433년 만에 참전 일본군 후손이 한국 사찰을 찾아 조상들을 대신해 참회하고 양국이 함께 화해의 길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옥천 가산사(주지 지원 스님)는 10월 10일 호국충혼탑 앞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및 한일 평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주지 지원 스님이 3년 전 일본 교토의 조선인 ‘귀무덤’ 위령제에 참석해 한일 양국의 참혹한 역사를 목도하고 진정한 참회와 화해가 절실하다는 것을 느껴, 김문길 부산외국어대 명예교수와 함께 추진해 마련된 자리다.

국가보훈부가 주최하고 가산사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성웅 스님, 가산사 주지 지원 스님을 비롯해 이종학 충무공 이순신 장군 후손, 황의옥 황진 장군 후손, 서재덕 서예원 진주 목사 후손, 류근철 류형 장군 후손과 히로세 유이치 일본군 도리다 이치 장군 후손, 히사다케 소마 일본군 쵸소 카베모토치카 장군 후손 등이 참석했다. 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광 육군 제37사단장, 추복성 옥천군의회 의장 등 정관계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법회는 김형길 가산사 신도회장의 개식 선언으로 시작해 국기에 대한 맹세와 애국가 제창, 법주사 남전 스님의 집전으로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독이 진행됐다. 참석 대중은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에 순절한 호국영령을 위해 묵념했다.

일본군 후손 대표 히로세 유이치(70) 씨와 히사다케 소마(24) 씨는 “조상들의 침략과 폭력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히사다케 소마 씨는 “433년 전 조상의 죄를 대신해 참회한다. 이제는 화해와 평화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히로세 유이치 씨는 “전쟁의 상처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자. 이 법회가 양국을 잇는 평화의 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스님은 기념사에서 “임진왜란의 아픈 고리를 풀기 위해서는 참회와 화해, 용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가 433년 만의 결단이자 한일 양국이 함께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성웅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데서 평화는 시작된다”며 “오늘의 법회가 한일 양국이 새로운 신뢰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영규대사와 조헌 선생의 호국정신은 단순한 역사적 기억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평화의 뿌리다. 불교의 자비와 지혜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열자”고 강조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참회와 화해를 통해 인류 보편의 평화가 실현되길 기원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 땅을 전쟁터로 만들었던 슬픈 역사가 오늘 화해와 평화의 자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깊은 감동을 느낀다”며 “한일 평화도, 남북 평화도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강할 때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광복 80주년 기념위원 호사카 유지 교수는 “임진왜란의 상처를 잊지 않되, 그것을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로 바꿔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나라가 새로운 관계를 다짐하는 뜻깊은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참회·화해·평화’ 족자 서명식이 진행됐다. 일본군 후손은 ‘참회’가 적힌 족자에, 조선군 후손은 ‘화해’ ‘평화’가 적힌 족자에 서명해 교고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화해의 뜻을 나누었다. 가산사는 일본군 후손들에게 ‘동아시아 평화의 첫걸음’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감사패를 전달했다.

불갑사, 만당 스님 100재 및 주지 고불식 봉행

11일, 만당 스님 100재 추모
덕상 스님 “청정 계율로 정진”



10월 11일 영광 불갑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만당 스님 열반 100재 및 신임 주지 덕상 스님 고불식에 참석한 스님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영광 불갑사(주지 덕상 스님)는 10월 11일 대웅전에서 만당 스님 열반 100재를 맞아 신임 주지 덕상 스님의 고불식을 봉행했다. 고불식은 만당 스님의 원력을 기리고 신임 주지 스님의 출발을 축원하는 의미로 엄숙하고 장엄하게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백양사 원로의원 암도·성오·진공·일수·원진·수인 대종사와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 율원장 법장 스님, 종회의원 덕유·설암 스님 등 백양사 본·말사 주지 스님들이 함께했다. 또 김강헌 영광군의장과 임영민·정선우·강필구 군의원, 정길수 불갑사 신도회장, 박성기 동문회장, 강순희 합창단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신임 주지 덕상 스님은 취임 인사에서 “오늘 은사 스님을 추모하는 마음과 더불어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됐다”며 “부족하지만 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며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불문을 통해 “새로이 주지 소임을 맡게 되었음을 부처님 전에 고한다”며 “만당 스님의 깊은 원력과 청정한 수행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며, 그 뜻을 이어 불갑사의 법등이 꺼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세속의 욕심을 버리고 자비심과 지혜로 중생을 이롭게 하며, 청정한 계율로 불갑사를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덕상 스님은 2007년 마곡사 계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법주사 승가대학과 선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이후 공주 영은사 주지와 총무원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교육부 복지국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9월 16일 불갑사 주지로 임명받아 이날 공식 취임했다.

불갑사 신도를 대표해 박성기 동문회장과 손옥희 합창단장, 강순희 부회장이 덕상 스님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만당 스님을 추모함과 동시에 새 주지의 출발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라며 “불갑사가 앞으로 화합으로 스승의 뜻을 이어 도량을 더욱 청정히 세워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불식에 앞서 만당 스님의 100재를 맞아 도량에는 추모기도와 불갑사 합창단의 조가가 이어졌다. 덕상 스님은 “은사 스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아직도 도량에 머무는 듯하다”며 “그 뜻을 이어 부처님 가르침이 이 땅에서 오래도록 빛나도록 하겠다”고 서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틱 뜨엉 탄 스님, 해인사 도보순례 이유는

베트남 교민 사찰 창건 발원
“힘들지만 걸음걸음이 수행”


천안 베트남 사찰 원오사 주지 틱 뜨엉 탄 스님이 10월 10일 합천 해인사까지 215km를 걷는 도보순례에 나섰다.

천안 베트남 사찰 원오사 주지 틱 뜨엉 탄 스님이 길상사 창건을 발원하며 합천 해인사까지 215km를 걷는 도보순례에 나섰다.

10월 10일 순례에 나선 틱 뜨엉 탄 스님은 “한국의 삼보사찰인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를 도보로 순례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성불의 길을 따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발원문을 통해 “광주 길상사 창건 불사가 원만히 성취되기를 발원한다”며 “순례 동안 하루 한 끼만 공양하고 길가에서 천막을 치고 자며 인연 있는 분들의 시주로 수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10일 천안 원오사를 출발해 18일까지 청주, 회인, 기대리, 하신안리, 자산, 별고을을 거쳐 해인사까지 215km를 하루 약 30km 걷는다. 스님은 지난해 순천 송광사까지 약 270km를 8일간 걷는 도보순례를 진행한 바 있다.

틱 뜨엉 탄 스님은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평화롭고, 걸음 하나하나가 수행이며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깨워 준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모든 생명은 하나”…현덕사 동식물 천도재

10월 11일 개산 26주년 맞아
반려동물 천도까지 확대 진행


강릉 현덕사는 10월 11일 동식물 합동 천도재를 봉행하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서원했다.

강릉 현덕사(주지 현종 스님)는 10월 11일 개산 26주년을 맞아 기념법회 및 동식물 합동 천도재를 봉행하고 생명존중의 서원을 새롭게 다졌다.

이날 법회는 개산 기념법회와 동식물 합동 천도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천도재는 의료 실험, 환경 파괴 등으로 희생된 생명과 반려동물의 영가를 위로하고, 인간의 탐욕을 참회하는 의미를 담았다.

법회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前 군종교구장 능원 스님, 상원사 수좌 청암 스님, 이동호 동해시의회 의장, 김기호 현덕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경 스님은 법문에서 “모든 생명은 한 몸이기에 생명을 해치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일”이라며 “천도재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심을 실천하고, 나부터 세상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주지 현종 스님은 “26년간 이어 온 동식물 천도재는 불교계 전체가 환경과 생명존중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불국토 구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서원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화엄사, 제21회 화엄문화제 성료

10월 10~12일, 요가·음악제 등



구례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바람이 물을 스칠 때’를 주제로 ‘제21회 화엄문화제’를 개최했다.〈사진〉

화엄문화제는 10일 각황전에서 한국전쟁 당시 사찰을 지킨 차일혁 경무관의 뜻을 기리는 추모재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과 어산종장 동환 스님의 집전으로 괘불재가 장엄하게 펼쳐졌다.

둘째 날인 11일 오전에는 보제루 앞마당에서 ‘제11회 UN 세계 요가의 날 기념 제5회 지리산 대화엄사 요가대회’가 열렸다. ‘오래된 미래, 더 새롭게’를 주제로 전남 요가 동호인, 구례·마산면 주민, 스님과 일반인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오후에는 웅전 앞마당에서 문화제의 하이라이트인 화엄음악제 ‘바람이 물을 스칠 때’가 진행됐다.

주지 우석 스님은 “화엄문화제는 불교와 예술,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축제”라며 “올해는 ‘미래로 100년’ 문화공간 사찰의 첫걸음을 내딛는 해로, 화엄사가 지역 문화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송광사, 제21회 금강산림대법회 입재

49일간 금강경 법문·천도재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가 49일간 조계종 소의경전 〈금강경〉을 공부하며 신심을 증장하는 대법회를 개최한다.

송광사는 10월 12일 경내 사자루에서 ‘제21회 금강산림대법회’ 입재식을 봉행했다.〈사진〉 2005년부터 시작된 금강산림대법회는 〈금강경〉을 주제로 큰스님들을 초청, 감로법문을 듣는 법석이다.

매주 1회씩 49일간 경전의 깊은 뜻과 지혜를 배우며, 영가천도재도 함께 봉행하는 송광사의 대표 법회로 자리매김했다.

법회는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일요일 경내 사자루에서 진행된다.

방장 현묵 스님은 입재 법문을 통해 “참된 지혜는 경전을 읽는 자의 마음속에 본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금강경〉의 정신”이라며 “우리의 참된 본성을 깨우치기 위해 설하신 경전이기에, 모든 부처님과 깨달음의 법이 이 〈금강경〉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빗속 울린 자비 선율, 수덕사 산사음악회

10월 13일 대웅전 특설무대서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10월 13일 지역민과 함께하는 제3회 산사음악회를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사진〉

행사에는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주지 도신 스님을 비롯한 교구 스님들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최재구 예산군수 등이 참석해 가을비 속에서 산사의 선율을 함께 했다.

이날 도신 스님은 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예산군민을 위해 수해 복구 지원금 2000만 원을 최재구 예산군수에게 전달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창원 정법사, 역대조사 다례재 봉행

10월 3일 개산 제113주년 행사



창원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는 창건 제113주년을 맞아 10월 3일 만불보전에서 제4회 역대조사 다례재 및 만발공양을 봉행했다.〈사진〉

다례재는 창건주 구하 대선사와 초대 포교사 경봉 대선사, 배달유치원을 창립한 오택언 독립지사 등 역대 조사를 기리는 행사로, 영축다도회 창립 25주년과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함께 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지 광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4회째인 다례재와 만발공양은 광복 80주년과 영축다도회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자리”라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종교평화프로그램 ‘수류금산’ 성료

10월 2~4일 모악산 성지순례



10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김제 모악산 일대에서 ‘종교평화 문화 프로그램 수류금산’이 진행됐다.〈사진〉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김제시가 공동 기획하고 금영회(회장 이지복)가 주관한 문화여행이다.

30여명의 참가자들은 금산사, 금산교회, 수류성당 등 모악산 인근의 종교 유적과 벽골제, 새만금 방조제, 죽산마을 등 지역 관광지를 둘러봤다. 또 금산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화로 아미타부처님께 공양 올리다

(사)진관사지화장엄보존회 특별전 개최
전승교육관 준공 기념…11월 30일까지
금강산 장안사 부처님 광배 장엄 지화
진관사 대중 노력으로 복원 작품 '눈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지화(紙花)는 말 그대로 '종이꽃'이다. 불교에서는 영산재, 수륙재 등의 불단 장엄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지금은 종이를 어디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지만, 조선 시대 혹은 그 이전의 시대에 종이는 귀하디귀한 재료였다. 실제 1397년 조선 태조는 수륙재를 주관하는 왕실사찰로 진관사를 지정했고, 왕실에서는 수륙재의 의례문서를 비롯해 다양한 장엄물과 지화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종이 일체를 시주했다.

그렇게 귀한 한지에 고운 꽃물을 들여 만들어 낸 지화는 당시에는 부처님께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공양물이었다. 또한 쉽게 구할 수 없던 생화(生花)를 대체하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이자 불교 공예기술의 정점이기도 했다. 이 같은 지화의 정수로 아미타 부처님 세계를 구현한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된다.

(사)진관사지화장엄보존회(이사장 성돈 스님)는 11월 30일까지 서울 진관사 전통문화전승교육관 1층에서 '맑은 수행의 꽃, 선한 인연의 꽃'을 주제로 지화 특별전을 연다.

전통문화전승교육관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연꽃 위에 태어나 아미타부처님을 찬탄하다 △아미타부처님 광명의 빛이 꽃이 되어 극락세계를 장엄하다 △불국토 장엄의 시간과 인연의 3부로 구성됐다. 특히 두 번째 섹션에서는 1924년 발간된 사진첩 〈만이천봉조선금강산〉에서 기록된 금강산 장안사 대웅전 부처님 광배를 지화로 장엄한 모습을 복원해 내 눈길을 끈다. 흑백사진 기록물이지만 진관사 사부대중의 노력으로 새롭게 구현됐다.

보존회 이사장 성돈 스님은 "종이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우리 회원들은 참 많은 시간을 들인다. 마치 꽃나무가 한 번 꽃을 피우기 위해 일 년을 보내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다"면서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수행하며 꽃으로 선한 인연과 공덕을 지은 회원님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나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는 은사이신 회주 계호 스님과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배려해 주시는 주지 법해 스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운력에 동참해 주신 사부대중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은 "보존회 이사장인 성돈 스님은 항상 용맹정진하여 불전에 올리는 꽃을 만들어 왔다"라며 "만행화를 피우듯, 오랜 정진 속에 이제 낭중지추(囊中之錐)의 때가 찾아왔다. 스님의 시절인연이 꽃핀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상찬했다.

그러면서 "저는 아름다운 꽃의 대도량에서 우리 자비문중이 언제나 화합하며 진관사 지화장엄의 전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전통에 대한 끊임없는 창조적 재해석을 통해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대중 포교와 예술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성심껏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진관사지화장엄보존회 특별전에 전시된 '아미타부처님 광명의 빛이 꽃이 되어 극락세계를 장엄하다' 작품. 1924년 발간된 사진첩 〈만이천봉조선금강산〉에 기록된 금강산 장안사 대웅전 부처님 광배를 지화로 장엄한 모습(작은 사진)을 구현해 냈다.

해외불교는 지금

태국 방콕서 비구니 대회 "부처님 법으로 단합하자"

9월 27일 출라롱콘 대학서
담마난다 스님 중심돼 열려
긍정적 후속 결과 도출 중

비구니 승단이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 기존 테라와다 불교계에서 비구니 승단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다. 10월 9일, 해외불교 전문매체인 '라이온즈 로어'는 지난 9월 27일 태국 방콕의 출라롱콘 대학에서 열린 첫 태국 비구니 대회의 모습을 상세히 보도했다.

대회에는 구족계를 완전히 수지한 92명의 태국인 비구니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태국 비구니 가운데 가장 높은 지도자로 불리는 담마난다 스님의 발원으로 열린 이 대회에는 1~2세대 비구니로 불리는 기성세대의 비구니 스님들과 젊은 세대의 출가자, 그리고 재가 신자들과의 연결과 미래를 위한 지속을 위해 열렸다.

담마난다 스님은 "비구니 승가는 서로 협력하고 상호 간의 지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핵심 키워드는 단합이다. 우리는 단합하고 그 뿌리를 법과 율에 굳건히 뿌리내려야 비구니 승가의 미래를 지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담마난다 스님은 올해 1월에 이 대회를 기획하기 시작했다. 올해로 세납 81세인 스님은 2세대 태국 비구니로 손꼽힌다. 스님은 어머니이자 1세대 태국인 비구니였던 보라마이 스님의 뜻을 이어 2001년 출가 전까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불교학자이자 활동가로서 27년간 탐마삿 대학교에서 불교 여성주의를 가르쳤다.

담마난다 스님은 "태국 불교계를 받치는 의자의 네 다리 중 한쪽 다리, 즉 완전히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니가 없어졌다. 네 번째 다리를 되찾아야 한다"며 "비구니 승가는 부처님께서 여성에게 허락하셨으나 태국에서 잃어버린 유산이며 이것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태국 불교계는 지난 1929년 당시 승단 최고 지도자였던 상가라자 스님에 의해 태국의 비구 스님들이 여성출가자를 수계하는 것이 금지된 이래 태국 내에서 비구니 승단이 생기는 길이 막혀 있는 상태다.

담마난다 스님은 스리랑카에서 2001년 사미니계를 수지, 2003년 구족계를 수계하면서 최초의 태국 테라와다 비구가 되었다. 이래로 현재 태국 38개 주에는 총 285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정진 중이다.

이번 대회는 비구니 스님들이 대규모로 모인 첫 번째 대회로 태국 불교계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다. 비구니 스님들은 종파를 불문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승단 내에 갈등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폭력인 대화와 율장에 대해 더욱 많은 연찬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태국 비구니 승가를 연구하는 작가 신디 리시콧은 "대회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치앙라이 주의 비구니 스님들은 경장과 율장을 교육하기 위한 온라인 커리큘럼 개발에 들어갔다. 또한 태국 최대 비구니 사원인 왓 송담마칼리아니 사원에서는 태국 내 비구니 승가의 인원과 사찰을 관리하는 디지털 지도 등을 개발 중"이라며 "대회가 성공적인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첫 비구니 대회에 모인 태국 비구니 스님들. 사진 출처=라이온즈 로어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⑭ 제법개공(諸法皆空)

있다, 그러나 없다. 없다, 그러나 있다.

諸 法 皆 空

불교의 초기·대승·선종·정토 등 모든 경론의 핵심 사상 중 하나는 '공(空)'이다. 〈중론〉, 〈십이문론〉에서 용수는 모든 현상이 연기(緣起)이며 곧 공임을 논증하였기에 팔종(八宗)의 조사로 불린다.

〈반야심경〉의 주제 또한 '공'이다.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모든 괴로움을 건넜다(照見五蘊 皆空 度一切苦厄)'는 구절은 공의 실상을 통찰해야 해탈과 열반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한다. 또 '그 무엇을 붙잡으려 하지 않게 때문에 모든 불안이 자리할 수 없다(以無所得故 無有恐怖)'는 말씀은, 집착이 사라질 때 불안도 머물지 않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공'에 대한 성찰과 체득은 자유와 평온에 이르는 길이다.

공이란 모든 현상, 즉 명칭과 형태, 작용을 지닌 제법(諸法)이 본래 고정되거나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분노와 증오는 처음부터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이 곧 '공'이다. 그렇다면 왜 분노와 증오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다양한 조건과 의도가 결합해 생겨난 결과이다. 이것이 바로 연기이다. 따라서 공과 연기는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없다'는 연기의 법칙을 드러내는 두 표현이다.

그러나 공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어떤 이는 존재가 전혀 없다고 여기거나, 모든 것이 완전히 소멸되어 다시는 생겨나지 않는 단절로 본다. 이는 허무주의나 체념에 빠지는 길이다. 〈중론〉은 "공의 이치가 있기에 모든 존재가 성립한다. 만약 공의 이치가 없다면 어떤 존재도 성립할 수 없다"고 설한다.

또 다른 이들은 공을 현실 밖의 초월적 이데아로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전은 "위대한 성인은 갖가지 견해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공의 진리를 말씀하셨다. 만약 공이 '존재한다'는 견해를 갖는다면 어떤 부처도 그를 교화하지 못한다"라고 경계한다.

결국 '공'이란 본래부터 '있음'과 '없음'의 구분이 없다는 의미이다. 인간의 의도가 개입하면 현상은 생겨나고, 개입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다. 공은 사견과 편견, 집착과 욕탐을 없애는 특효약이다.

생각해 보라. 지금의 번뇌는 본래부터 존재했는가? 영원히 지속될 것인가? '있음'과 '없음'이 고정되지 않기에 번뇌와 자애도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전세계 20여개국으로 수출되는 한국불교미술의 자존심! 聖鐘社 명품 범종 -성종사의 아름다운 표면처리기술-


브론즈착색(에밀레종)


유광 처리(해인사종)


부분 개금(운수사종)


부분 칠보(4보살종)/신제품


칠보 개금(칠보종)

범종명가 성종사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읍 습지길 35 / Tel : 043-536-2581 / Fax : 043-536-2582 / 홈피 : www.sungjongsa.co.kr / e-mail : won6141@hanmail.net / 대표 : 범산 원광식

물 위의 미술관, 성파 대종사가 띄운 자유의 그림

10월 12~19일, 성파선예 보경호 수상전
성파 스님 옻칠 항아리·회화 200점 띄워
형식 넘은 '자유', 자연이 거대한 캔버스
메밀꽃 만개한 장밭뜰 배경으로 펼쳐져
"형식 벗어나 본래 생명력 되찾는 자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보경호 수면에 띄워진 성파 스님의 옻칠 작품들. 붉은 항아리와 회화의 추상적 색면이 물 위에서 '자유의 미술관'을 이루고 있다. 사진 제공=통도사



통도사 보경호에서 열린 '성파선예 수상전-자유에로' 개막식에서 성파 스님이 직접 항아리를 띄우며 '자유의 예술 의식'을 펼치고 있다.

미술관 벽에서 호수 위로, 고정된 형식에서 살아 있는 자유로. 성파 스님의 예술 작품이 물 위를 유영하며 인간이 본래 지닌 자유를 드러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10월 12일 통도사 보경호(寶鏡湖)에서 '성파선예(性坡禪藝) 보경호 수상전-자유에로[自由自在]' 개막 행사를 열었다. 이번 전시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예술세계를 기리는 특별전으로, 옻칠 항아리와 회화 200여 점이 호수 위에서 바람과 빛을 따라 유영하며 '물 위의 미술관'을 연출했다.

개막식에는 통도사 수좌 명신 스님, 염불원장 법산 스님, 주지 현덕 스님, 율주 덕문 스님, 윤재갑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총감독, 이동국 경기도박물관장, 나동연 양산시장 등과 신도 및 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스님들과 시민들이 함께 전시 준비에 나섰다. 호수에 띄울 옻칠 회화와 항아리 작품들이 줄지어 놓였고, 봉사자들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작품을 옮겼다. 순백의 메밀꽃이 만개한 장밭뜰은 전시의 무대가 되어 가을빛으로 물들었다.

개막식 이후 대중이 호수를 둘러서며 퍼포먼스가 시작됐다. 성파 스님이 붉은 옻칠 항아리를 들어 조용히 수면 위에 띄우자, 항아리가 미끄러지듯 물결 위로 나아갔다. 이어 수좌 스님들이 옻칠 회화 패널을 차례로 띄웠고, 수면은 거대한 캔버스로 변했다. 물 위에서 바람과 빛을 따라 움직이는 작품들은 자유롭게 유영하며 자연과 하나가 되었다. 성파 스님은 "그림은 무(無)에서 태어나지만 벽에 걸리는 순간 형식의 틀 안에 갇힌다"며 "이번 전시는 그 벽을 벗어나 자연과 호흡하며, 예술이 본래의 생명력을 되찾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우리 인간도 이름이 붙는 순간부터 속박이 시작된다. 태어나서 이름이 생기고, 직업이 생기고, 역할이 주어지면 그에 매여 살게 된다"며 "이름과 소유, 경계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본래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고 설했다.

또한 "예술은 수행과 다르지 않다.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으면 모든 것이 스스로 비치듯, 작품 또한 바람과 빛 속에서 저절로 그려진다"며 "예술이 인간의 손을 떠나 자연과 함께 숨 쉬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강조했다.

윤재갑 감독은 "성파 스님은 미술관마저 속박으로 보신다"며 "물 위의 전시는 인간이 본래 지닌 자유를 예술로 드러낸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성파 스님의 작품은 자비와 지혜, 깨달음의 기운을 담은 하나의 경전"이라며 "호수 위를 떠다니는 작품이 시민들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국 경기도박물관장은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는 인간과 자연, 예술과 수행이 하나로 어우러진 장엄한 세계"라고 평했다.

보경호는 지난해 통도사 장밭뜰에 조성된 인공호수로, '영축산의 향기를 세상에 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날 호수 위에 전시된 작품들은 바람과 빛을 따라 모습을 달리하며 전시 주제 '자유에로'를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전시명은 성파 스님의 한시 "영축산에 있는 보배 같은 거울 호수, 그 경치와 빛은 끝이 없이 저절로 밝게 다가온다(靈鷲山中寶鏡湖 景光無盡自明來)"에서 비롯됐다. 이번 전시는 10월 19일까지 통도사 보경호 일원에서 진행됐다.

월정사, 종합 교양지 '오대산' 창간

오대산시민작가포럼 주축…연 2회 발간 계획

환경, 평화 등 지구적 문제 다뤄
이문재 시인 "지구시민이 되자"

강원도 오대산을 중심으로 지구시민을 꿈꾸는 시민작가들이 새로운 종합 교양지를 창간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지난해 10월 12일 창립대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 '오대산지구시민작가포럼'이 '인간의 목소리, 지구의 숨소리'를 슬로건으로 종합 교양지 〈오대산〉을 창간했다"고 밝혔다.

'오대산지구시민작가포럼'은 인간과 지구의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작가와 시민의 모임으로, 월정사가 중심이 돼 모든 차이와 경계를 넘어 성찰과 연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창립됐다.

포럼은 성찰하고 표현하며 연대하는 '지구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며, 이번 종합 교양지 〈오대산〉 창간은 포럼의 목표를 공유하고 저변을 넓히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는 이문재 시인의 창간사 '인간의 목소리, 지구의 숨소리'에서 잘 나타난다. 인류는 새로운 차원의 절실하며 이는 의식혁명임을 강조한 이 시인은 '지구시민'이라는 새 개념을 제안했다.

이 시인은 "지구시민은 아직 미래형이지만 인류와 지구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반드시 탄생해야 할 인간형"이라고 정의하며 "지구시민은 저마다 자기 서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작가이고, 이것이 핵심역량"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기의 삶과 꿈을 글이나 그림, 춤, 음식, 옷 등으로 표현한다면 그는 엄연한 작가다. 성찰하고 표현하고 연대하는 지구시민이 하나둘 늘어나면 마침내 지구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며 "반년간지 〈오대산〉은 지구사회 건설을 위한 실천적 담론의 산실이 되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창간호에는 특집으로 미래 사회와 종교문제를 깊이 성찰한 종교인과 전문가들의 글이 수록됐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인공지능 시대의 위험과 대응 그리고 불교의 역할'을 통해 "점차 가속화되는 인공지능 시대에 불교는 인간성의 실현과 공존의 가치 정립, 이를 통한 세계의 청정성 회복이라는 사명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정사를 중심으로 창립된 오대산지구시민작가포럼이 발간한 종합 교양지 〈오대산〉 창간호 표지.

이와 함께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의 '숲이 석탄이 되던 시절'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의 '기후지옥-초지능시대 인간은 어떤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 △조성택 마인드랩 이사장의 '다른 사람, 다른 세상: 보살인간' △정경일 성공회대 신학연구원 연구교수의 '지구 행성에 미래가 없다면, 종교는?' △김선류 가톨릭 춘천교구 신부의 '미래세대를 위한 종교의 역할'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장의 '연결된 사회와 돌봄의 실천' △최성각 작가의 '지구시민과 풀꽃나라' 등이 수록됐다.

각국 기후운동을 소개하는 '세계의 기후운동'에서는 민정희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대표가 '글로벌 남반구의 기후 정의 운동'이란 제하의 글을 통해 남미 국가들의 환경운동 현황을 전했다.

이외에도 오대산지구시민작가포럼 위원들이 각자 연구하고 활동하는 분야에서 지구적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글도 만날 수 있다.

한편, 종합 교양지 〈오대산〉은 내년부터 연 2회 정기적으로 발행되며, 지구와 인간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전문가의 글을 담아낼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수행' 주제로 3년 학술연찬결사 열린다

밝은사람들연구소 학술연찬회
2027년까지 '수행' 주제 진행
올해 연찬회, 11월 29일 개최
'수행, 초탈인가 치유인가' 다뤄

매년 다양한 불교적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열어 왔던 밝은사람들연구소가 올해부터 3년간 '수행' 주제로 연속 학술연찬결사를 진행한다.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 이하 연구소)는 11월 29일 오전 10시 동국대 본관 남산홀에서 '제24회 밝은사람들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올해부터 연구소는 '수행'을 주제로 2027년까지 3년 동안 연찬회를 진행한다. 첫 주제는 '수행, 초탈인가 치유인가'이며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을 비롯한 전문학자들이 관련 연구 논문을 발표한다.

한자경 이화여대 철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열리는 연찬회에서는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가 '수행과 명상의 현대적 의미'를, 월암 스님이 '선의 수행과 깨달음'을, KAIST 명상과학연구소장 미산 스님과 엄성민 데이터리퍼브릭 대표가 '불교수행과 명상과학: 초탈과 치유의 메타 융복합적 통합'을, 성혜영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가 '신성한 독서(lectio divina)와 수행 전통의 통합적 이해'를, 권석만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가 '구도적 수행의 심리학'을 각각 발표한다.

학술연찬회 발표 논문은 '밝은사람총서 20'(운주사)으로 묶여 11월 초 출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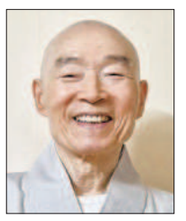
올해 연찬회가 '수행'의 면면을 큰 틀에서 다룬다면 내년부터는 세부적인 접근이 이뤄진다. 2026년 11월 열릴 연찬회에서는 '지관, 따로 닦나 함께 하나'를 주제로 다루며 초기·대승불교와 티베트·중국·한국불교, 종교학, 심리학 등의 관점에서 불교 수행의 핵심인 지관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2027년 11월 개최되는 연찬회에서는 '간화, 전통의 계승인가 창발적 혁신인가'를 주제로 진행되며 초기·선불교와 불교학, 종교학, 심리학 등의 연구를 통해 간화선의 면면과 그간의 연구 현황들을 조명한다. 연구소가 추진하는 3년간의 대장정에는 월암 스님, 미산 스님을 비롯해 정준영·이필원·권석만·박성현 교수 등이 주요 발제자로 참여한다.

박찬욱 밝은사람들연구소장은 "올해부터 3년 동안 수행 전통들을 살펴보고, 현대인에게 적절한 수행 방편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이러한 작업들이 삶에 대한 우리의 안목이 명료해지고 성장과 성숙, 이고득락(離苦得樂)으로 나아가는 걸음걸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제25회 현대불교문학상에 청화 스님, 이승희 시인

오는 11월 15일 시상식 개최



청화 스님



이승희 시인

제25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로 청화 스님(정릉 청암사 주지)과 이승희 시인이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 스님)과 현대불교문인협회(회장 수완 스님)는 "제25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로 문학 부문에 이승희 시인을, 선문학 부문에 청화 스님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작은 이승희 시인의 시집 〈작약은 물속에서 더 환한데〉(문학동네, 2025), 청화 스님의 시집 〈나를 찾는 소리〉(불교문예, 2023)이다.

이승희 시인은 1999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수상시집을 비롯해 〈여름이 나에게 시킨 일〉, 〈거짓말처럼 맨드라미가〉 등의 시집을 출간했다. 전봉건문학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선문학부문 수상자인 청화 스님은 1977년 불교신문 신춘문예와 197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물이 없는 얼굴〉, 〈사람입니까〉 등을 펴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심사위원회(박수완·이하석·공광규)는 "이승희의 시가 감싸는 사물과 사람에 대한 연민과 슬픔은 스스로를 낮춰 연꽃봉오리를 드러내는 연잎 같다"고 평가했으며 "청화 스님은 출세간의 세계를 편안하고 자애로운 시선으로 전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청주시립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신중일 기자

묵연에 깃든 수행 세계 만나다

통도사 성보박물관
가회 윤영화 사경전



윤영화 작가의 작품 '홍로일점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사경 수행의 깊은 정신을 예술로 풀어낸 '가회 윤영화 사경전-묵연(墨淵) 속에 깃든 세계'를 개최한다.

전시는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며, 윤영화 작가의 오십여 년 예술혼이 담긴 사경작품 50여 점이 선보인다.

윤영화 작가는 반세기 넘게 서예와 사경에 매진해 왔다. 대한민국서예대전·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이자 심사위원으로 다수의 수상 경력을 쌓았고, 부산미술협회·부산서예협회 등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특히 지난 13년간 통도사 승가대학에서 학인 스님들에게 서예를 지도하고 있다. 김해포교당 바라밀선원 금니사경탱 등 다수의 불사에도 참여했다.

주지 현덕 스님은 "사경은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수행"이라며 "쉼 없이 정진해 온 작가님의 예술혼에 경의를 표하며, 이번 전시가 불법을 전하는 귀한 결실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055-384-001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15~10/21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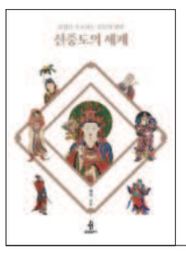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운명을 바꾸는 법	정공법사/이기화	불광출판사
2	자비도량참법	김현준	효림
3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	원영스님	불광출판사
4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절집 말씀	목경찬	불광출판사
5	그림자 속의 향기	청전	담앤북스
6	부처의 인생 조언	정운	유노북스
7	독송용 금강반야바라밀경 세트	김강유	김영사
8	참선 수행자를 죽비로 후려치다(참선경에)	원택	장경각
9	한글 원각경(함허 해)	함허득통/원순	법공양
10	염주의 역사와 수행이야기	태경	조계종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2	열반경(2)	이운허 옮김	동국역경원
3	열반경(1)	이운허 옮김	동국역경원
4	불교사회 복지(프라즈냐총서60)	명안	운주사
5	격절록역주(선어록총서6)	원오극근	운주사
6	불교성전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7	아비달마불교(불교입문총서3)	권오민	민족사
8	요가디피카(아헹가 요가시리즈1)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9	불멸(1)	이각 지음	지혜의눈
10	한글아함경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불법을 수호하는 신들의 향연



신중도의 세계
현주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3만5000원

한국불교 독창적 신앙 세계
신중도 기원·전개·도상 해설
욕망 지닌 존재·친밀성 높아
"문화 콘텐츠 활용 기반 되길"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부처님 곁에는 불법을 지키는 신들이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중생을 보호하고 법을 수호하는 존재들. 바로 신중(神衆)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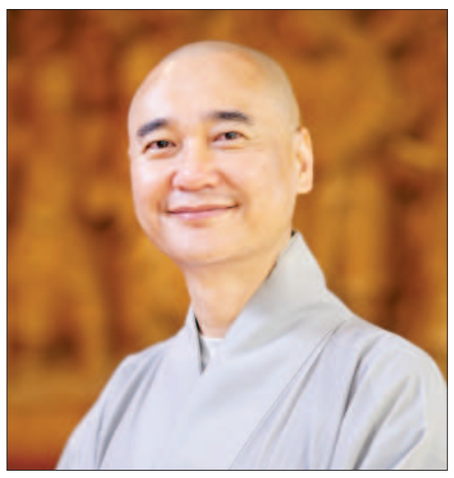
인도의 전통적인 신에서 비롯된 신중은 불교의 전파에 따라 그 지역의 토속신들도 받아들였다. 조선 시대에는 제석천, 범천, 위태천 등 다양한 신중도가 제작됐다. 이처럼 호법선신(護法善神)을 예배 대상으로 삼아 불전 안에 봉안한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국불교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신중도의 세계〉는 현주 스님이 장엄한 신중 도상의 세계를 학문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스님은 해인사승가대학을 거쳐 동국대 미술사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신중도 관련 논문만 13편을 발표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과 국가유산청 문화재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스님은 한국 신중신앙의 특징은 〈화엄경〉을 바탕으로 한 '화엄신중신앙'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고려 시대까지 호국불교와 결합해 동아시아에서 독특한 신앙으로 전개됐다고 분석한다.

무엇보다 신중은 "부처님이나 보살, 나한보다 아래 위치한 존재이지만, 인간과 마찬가지로 욕망을 지닌 존재"로서 신도들과 심리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놓여 있다. 그 친밀성으로 신중신앙은 불교 초기부터 꾸준히 이어졌고 중국과 한국 등지로 전파되면서 각 지역의 민간신앙까지 수용했다. 때문에 스님은 신중도를 "가장 서민적이며 개방적인 불화"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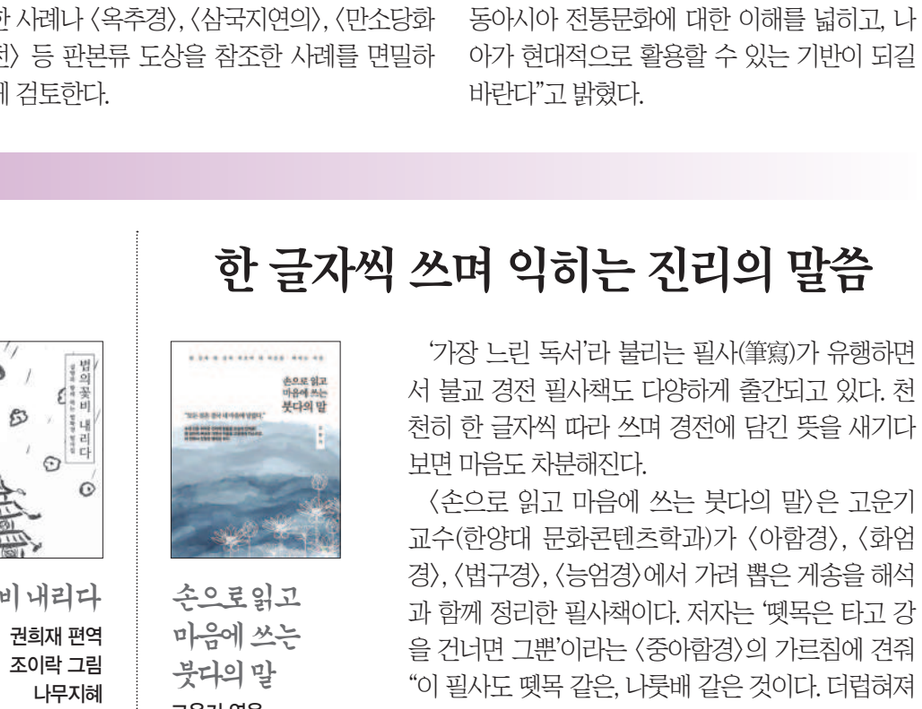
책은 여러 호법선신을 한 화면에 담은 신중도를 중심으로 신중신앙의 기원과 성립 배경, 제작 양상 등을 꼼꼼히 추적한다. 18세기부터 1945년까지 제작된 신중도 567점을 바탕으로 천상·지상·명계(저승)를 대표하는 제석천·위태천·염마라왕이 어떻게 신중도의 구성 요소로 자리 잡았는지 살피고, 신중도 속 다양한 신상(神像)의 정체를 밝힌다.



신중도 연구에 천착해 온 현주 스님(전남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사진 제공=불광출판사

특히 조선 후기 민간 토속신을 수용해 '104위 신중'으로 정비된 것은 우리만의 고유의 신앙 구조이자 "한국불교의 융합성과 개방성을 상징하는 결과물"이라 설명한다. 도교의 신선인 여동빈(呂洞賓)·종리권(鍾離權)·철괴리(鐵拐李)와 문배(門排)의 문신, 우리나라의 민간신앙인 조왕신, 〈삼국지〉의 관우 등이 신중도 속으로 들어오게 된 과정을 볼 수 있다.

조선 후기 신중도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판본류(板本類)의 차용이다. 신중도에 등장하는 장수형 호법선신들은 전통적으로 계승된 도상 표현이 제한적이었기에 다양한 삽화나 화보 등 판본류의 도상을 참고해 그려졌다. 책에서는 관우의 도상을 조왕신 표현에 차용한 사례나 〈옥추경〉, 〈삼국지연의〉, 〈만소당화전〉 등 판본류 도상을 참조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한다.



신중도는 인도의 신들뿐 아니라 신선, 문신, 민간신 등을 수용한 '한국불교의 융합성과 개방성'을 보여주는 불화다. 사진은 서울 보문사 대웅전 신중도(1867). 사진 제공=불광출판사

현주 스님은 "한국의 신중도는 불교를 매개로 인도와 동아시아의 문화를 포괄하면서도 한국적인 특징으로 재탄생한 문화 콘텐츠"라며 "이 책이 대중들에게 불교를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나아가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로 나온 책

읽고 암송하고 필사하는 〈법화경〉



법의꽃 피어나다
권희재 편역
조이란 그림
나무지혜
2만5000원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일컫는 〈법화경〉은 〈화엄경〉, 〈금강경〉과 함께 대승삼부경으로 여겨진다. 많은 경전이 '수행을 통해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하는 데 반해 〈법화경〉은 이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다. 소승의 수행으로는 아라한이 되어 윤회를 벗어날 수 있어도, 진짜 부처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법화경〉은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암송집 〈법의꽃 피어나다〉와 필사집 〈법의꽃비 내리다〉는 〈법화경〉의 핵심 가르침을 전하는 108 구절을 가려 담은 책이다. 두 책 모두 올해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텀블벅 펀딩 '부처님의 성불 보증서-법화경 수행 세트' 프로젝트로 출간됐다.

암송집은 '서품'부터 '묘음보살품-보현보살권발품'까지 108구절을 사진·그림과 함께 실었다. 고려불화연구소를 운영하는 조이락 작가가 수월관음도, 만오천불도 등의 고려불화를 재현하거나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 눈길을 끈다. 필사집은 〈법화경〉 구절의 원문과 우리말 번역, 필사 공간을 차례로 배치했다. 각 장마다 해당 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다.

책을 엮은 권희재 씨는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법화경종요〉, 〈간추린 법화경〉 등을 펴냈다.

법의꽃비 내리다
권희재 편역
조이락 그림
나무지혜
1만8000원

한 글자씩 쓰며 익히는 진리의 말씀

손으로 읽고 마음에 쓰는 붓다의 말
고운기 엮음
맘에드림 / 1만7500원

'가장 느린 독서'라 불리는 필사(筆寫)가 유행하면서 불교 경전 필사책도 다양하게 출간되고 있다. 천천히 한 글자씩 따라 쓰며 경전에 담긴 뜻을 새기다 보면 마음도 차분해진다.

〈손으로 읽고 마음에 쓰는 붓다의 말〉은 고운기 교수(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가 〈아함경〉, 〈화엄경〉, 〈법구경〉, 〈능엄경〉에서 가려 뽑은 게송을 해석과 함께 정리한 필사책이다. 저자는 '뗏목은 타고 강을 건너면 그뿐'이라는 〈중아함경〉의 가르침에 견줘 "이 필사도 뗏목 같은, 나룻배 같은 것이다. 더럽혀져도 좋으니 펼쳐서 쓰며 강을 건너는 데 벗이 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밝혔다.



불교 교리와 현대 과학기술의 만남!
인공지능과 석가의 자비
AI시대에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즉 무아, 연기, 자비 등이 AI 시대의 새로운 철학적, 윤리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성찰하였다.
이석주 지음/신국판/408쪽/값 27,000원

한국 현대불교 80년 역사를 한 권에!
한국 현대불교사
광복 직후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한국 현대불교가 정치, 사회, 문화적 격변 속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종교로서의 본령을 회복해 왔는지를 조목조목 짚어낸다.
김경집 지음/신국판/356쪽/값 23,000원

이별의 상처를 치유하는 붓다의 지혜!
사랑은 아프다
온갖 종류의 이별과 상실로 인한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마음챙김 수행법과 불교의 지혜 그리고 따뜻한 조언이 담긴, 실용적이면서 위안을 주는 책이다.
드로 린즐러 지음, 우정석 옮김/국판 변형/208쪽/값 14,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죽음, 삶을 비추는 마지막 거울



한 권으로 읽는 인간의 죽음
최준식 지음
한울
2만7000원



과학이 주목하는 죽음 이후의 일들
김성구 지음
불광출판사
2만3000원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죽음은 인간이 가장 오래 사유해 온 주제이자, 여전히 해답 없는 수수께끼다. 종교와 철학은 죽음을 '삶의 그림자'로, 혹은 '해탈의 문'으로 해석해 왔다. 그러나 현대의 학문과 과학은 이제 이 오래된 물음을 새로운 언어로 탐구하기 시작했다.

최근 출간된 두 권의 책 〈한 권으로 읽는 인간의 죽음〉과 〈과학이 주목하는 죽음 이후의 일들〉은 각각 죽음학과 과학의 시선으로 '죽음'을 사유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죽음학 아닌 생사학

〈한 권으로 읽는 인간의 죽음〉의 저자 최준식 한국죽음학회장은 "죽음학은 죽음을 공부하지만, 사실은 삶을 위한 학문"이라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죽음학은 '생사학(生死學)' 혹은 '사생학(死生學)'으로, 삶과 죽음을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본다. 저자는 "죽음이 삶을 떠나 홀로 존재할 수 없듯 죽음을 공부하는 것은 곧 삶을 성찰하는 일"이라며 "제대로 된 죽음 공부는 결국 더 충실한 삶으로 이끈다"고 강조한다.

책은 저자가 BTN불교TV에서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1장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를 다룬다. 인간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며 임종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사별의 슬픔은 어떻게 극복하는지 등을 설명하는 '임종 안내 지침'이다.

2장은 '사후 세계 안내서'로 읽힌다. 영혼과 사후 세계를 긍정하는 세계 각국의 전통과 종교적 사유를 통해 '근사체험', '사후통신' 같은 낯선 개념을 소개한다. 특히 사후 세계, 카르마 법칙, 환생 등의 주제를 학문적으로 풀어낸 점이 눈길을 끈다.

죽음학의 시선에서 보면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완성하는 과정이다. 저자는 "죽음과 삶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가야 전체가 된다"며 죽음을 직면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인간은 전체적인 삶의 얼개를 그릴 수 있다고 말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無常)과 연기(緣起)의 이치와 같다. 모든 존재는 생멸의 순환 속에서 서로 기대어 존재하기에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변화를 의미한다.

윤회로 성찰하는 존재의 본질

김성구 교수의 〈과학이 주목하는 죽음 이후의 일들〉은 임사체험과 윤회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삶과 죽음의 의미를 밝히는 책이다. 저자는 서울대학교와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이론물리학을 공부한 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불교에 관심이 깊어 은퇴 후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과 학부와 석사 과정을 마쳤다. 현재 경남 함양에 약천사를 건립하고 공부와 수행을 하고 있다.

죽음 직전의 의식 경험을 일컫는 임사체험은 그간 정통 과학에서 공상이나 허구로 취급받고 그에 관한 연구는 '사이비 과학'이라 여겨졌다. 그러나 저자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임사체험자, 전생 기억자의 경험에 주목하고 관련 사례와 연구를 과학적 방법론으로 검토한다. 종교적 신앙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사후 세계를 과학적 언어로 재조명한 것이다.

저자는 임사체험과 윤회에 관한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두 전문가 집단의 주장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질문을 불교의 무아 개념과 양자 역학의 세계관을 통해 고찰한다. 불교에서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를 부정하지만, 인과적 흐름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으로서의 나'는 인정한다. 그리고 윤회하는 '나' 역시 동일성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연속성으로서의 '나'를 말한다. 이는 양자 역학의 세계관과도 맞닿아 있다. 저자는 "윤회는 단순한 생명 순환이 아니라 자신의 업(業)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 구조"라고 해석한다. 윤회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삶 전체에 대한 도덕적 자각을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죽음은 '끝' 아닌 '통찰의 문'

'죽음'을 말하는 두 책은 한 지점에서 만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거울이자 통찰의 문이라는 점이다. 죽음을 회피하거나 공포로만 대하는 태도는 결국 삶 자체를 왜곡한다. 반대로 죽음을 깊이 공부하고 직시할 때, 우리는 생의 본질을 더 투명하게 볼 수 있다.

죽음을 공부하는 일은 '지금 여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일이다. 그리고 그 물음 앞에서 다시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된다.

"모든 것은 생멸하지만, 법(法)은 사라지지 않는다."

불교적 사유의 문학적 형상화



그냥 해 보는 말
홍사성 시집
인북스 / 1만2000원

'불교와 문학'에 대한 응답

"진흙탕 속 연꽃 피우는 삶"

"모란은 조용히 / 장미는 때가 돼야 / 연꽃은 기다렸다가 / 구절초는 저 혼자 핍니다 // 필 때는 말없이 피었다가 / 질 때는 그냥 집니다."

–시 '꽃밭 화엄경' 중에서

불교언론인이자 시인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의 다섯 번째 시집이자 인북스 시인선 첫 번째 시집이다. 불교와 문학을 함께 공부해 온 시인은 '시인의 뒷말-불교로 쓴 시, 시로 쓴 불교'에서 "불교를 앞세우면 문학이 무거워지고 문학을 앞세우면 불교가 가벼워지기 십상"이라는 고충을 털어놓으며 "이 시집은 그 난제에 대한 나름의 응답이자 실험"이라고 말한다.

오랜 세월 불교의 품 안에서 살아온 시인은 삶 속에서 체득한 깨달음을 자연과 사물, 사람들의 모습에 투영한다. "차면 얼고 / 뜨거우면 끓습니다 / 둥근 잔에서는 둥글고 / 네모 그릇에서는 네모가 됩니다('나는 물입니다' 중에서)"처럼 변하는 모습 속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 물의 속성을 통해 삶의 지혜를 노래한다. 또 "몸은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기운이 없다"며 "언젠가는 나도 그럴 줄 알긴 알았는데 // 정말로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만각' 중에서)"고 세월의 흐름을 담담히 토로하면서도 "가게 되면 가리라 / 오게 되면 오리라 // 애태움, / 더는 그런 데 목매지 않으리라('선객' 중에서)"고 읊조리며 삶의 본질을 돌아보게 한다.

시인은 불교적 사유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75편의 시를 통해 "불교적 삶이란 세속과 유리된 삶이 아니라, 일상의 진흙탕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삶이어야 한다"는 점과 "불교가 중요시하는 바는 결국 인간과 삶, 그 자체"임을 일러 준다.

신경림 시인은 그의 작품에 대해 "부처님 앞에 무료하게 앉았을 때처럼 편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시들"이라며 "그러면서도 한 대목 한 구절 그냥 지나가지 않고 번쩍 정신 나게도 만들고 가슴을 후벼 파기도 한다"고 평한 바 있다.

시인은 2007년 〈시와 시학〉으로 등단해 시집 〈내년에 사는 法〉, 〈터널을 지나며〉, 〈고마운 아침〉을 펴냈고 2023년 〈샹그릴라를 찾아서〉로 제55회 한국시인협회상을 수상했다.

여수령 기자

부처님 말씀 따라가는 수행법



월호 스님의 게송 명상
월호 스님 지음
맑은소리 맑은나라 / 1만8000원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

사리자는 길에서 만난 앗싸지 존자의 게송을 듣고 수다원과를 얻어 곧바로 출가했고, 급고독장자의 아들 깔라는 용돈을 받으려 게송을 외우다 그 의미를 터득해 수다원과를 얻었다. 수다원(須陀洹)은 '성스러운 법의 흐름에 들어선 이'라는 뜻으로, 욕계·색계·무색계의 견혹(見惑)을 끊은 성자를 말한다. 정말 게송을 듣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수다원과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일까?

〈월호 스님의 게송 명상〉은 월호 스님(행불선원장)이 '게송을 듣고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법을 안내하는 책이다. 스님은 "인생의 목적은 해탈이라. 해탈의 인(因)은 명상이요, 해탈의 연(緣)은 게송이다. 명상을 하며 게송을 듣거나, 게송을 듣고 명상을 하는 것이 해탈의 지름길"이라고 말한다.

책은 부처님이 아들 라훌라에게 직접 전한 호흡명상법으로 문을 연다. 들숨과 날숨에 마음을 두고, 코밑 허공에 모든 시비분별을 맡기며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이다. 월호 스님은 "명상의 시작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들숨과 날숨을 '관(觀)'하는 일"이라 말한다. 각 장은 짧은 게송 한 편과 그 뜻을 풀어 주는 설명, 명상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조사선·묵조선·간화선·정토선 등 여러 수행 전통과 참선법을 소개함으로써 "참선은 수행자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을 넘어, 게송 한 구절로도 일상의 수행을 이어갈 수 있음을 알려준다.

호흡명상부터 참선법까지 안내

"게송 명상은 해탈의 지름길"

책의 마지막 장에는 '극락 가이드'라는 독특한 개념이 등장한다.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세음·대세지보살 등 극락으로 인도하는 보살과 원효·의상 대사 등 역대 조사들의 일화를 통해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염하면 사후 극락에 태어나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

월호 스님은 "중생 제도의 방편으로 장엄된 극락정토를 무시하면 공(空)에 떨어지고,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면 상(相)에 떨어진다"며 지혜와 방편, 공과 상, 이론과 실천의 균형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길임을 일깨운다.

여수령 기자

"불교는 지금 나를 깨우는 새로운 언어다!"

'절집의 숨은 고수' 고광 스님이 40년 탐구 끝에 되찾은 진짜 '붓다의 말'
알면 알수록 수수께끼 같은 삶이 이해된다!

새롭게 다가오는 붓다의 말,
더욱 선명해지는 삶의 지혜

고광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

고광 지음
430쪽 | 24,000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결국은 살아진다!

계절을 건너듯 다정히, 삶의 무게를 다독이는 원영 스님 산문집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

울어도 쓰러져도,
다시 살아지게 하는
힘에 관하여

원영 지음
200쪽 | 18,000원



오늘도 어제처럼
웃음이 사라진 하루였나요?
떠밀려가듯 무기력한 나날이
버겁게만 느껴지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루를 버티는 힘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는 힘입니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교구자치시대, 24교구본사를 가다

❸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조계종은 24곳의 교구본사를 통해 교구 자치를 실현 중이다. 지역 불교에서 전법 포교를 책임지는 교구본사와 말사들. 한국불교 유지 계승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포교, 복지,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군분투 활동하고 있는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만나 각 교구의 활약과 미래를 생생히 조명한다. 〈편집자 주〉



호산 스님은…종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수계했다.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문경 봉암사와 합천 해인사, 김천 수도암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양평 상원사 · 용문사 · 서울 수국사 주지, 제16 · 17대 중앙종회의원, 중앙종회 사무처장, 총무원 총무부장, 동국대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봉선사 주지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사단법인 상월결사 이사장을 맡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2010)과 문화체육관광부 템플스테이 공로 표창(2014)을 받았다.

"능동적 참여가 쌓은 신뢰…봉선사를 '젊은 사찰'로!"

대담=한명우 대표이사 · 정리=김내영 기자

"얘들아, 불교는 좋아. 그러니 믿어."

이제 이런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맹목적인 권유는 아이들이 사찰과 불교에 흥미를 잃고 멀리하게 했다.

봉선사는 방법을 바꿨다. 아이들이 직접 법회를 집전하고, 한글 칠정례를 익히며, 문화공연과 지역 행사를 주도하게 했다. 스스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와 스님에게 신뢰와 애정을 쌓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작은 실천에도 칭찬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고, 서로에게 감동과 동기를 주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았다. 그렇게 봉선사는 매일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문턱 낮은' 도량으로 거듭났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2023년 10월 8일 주지로 취임한 호산 스님이 있다. 한국불교 미래를 위해 청소년·청년 포교가 필수적이라는 확신으로 호산 스님은 2년 만에 봉선사를 지역과 세대를 잇는 열린 사찰로 바꿔 놓았다.

청소년·청년 포교에서부터 문화공연, 반려견 선명상 축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꽃축제와 음악회까지 시대의 변화에 맞춰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9월 31일, 봉선사에서 호산 스님을 만나 그간의 소회와 주요 사업, 향후 계획 등을 물었다. 스님은 청소년·청년 포교의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는 동시에 봉선사가 수행과 명상, 기도와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내실 있는 도량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Q 임기 반환점을 맞은 소회는 어떠신지요?

10월 9일로 주지 소임 2년입니다. 본사 교구장 소임과 상월결사 3대 이사장으로서 전법 사업을 병행하며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교구 내에서는 100년 만에 3여래 2조사 사리가 제자리를 찾아 회암사로 환지본처되는 뜻깊은 불사를 원만 회향했고, 반려견 선명상 축제와 지역사회 행사 등 봉선사를 알리는 외부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상월결사 차원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불교 동아리 창단을 지원하고, '잠시 멈춤-쉼, 포즈' 문화공연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포교에 힘썼습니다.

남은 2년은 내실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올해 동안거 정진과 스리랑카 성지 순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선명상센터 건립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수행과 포교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봉선사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Q 특히 청소년 · 청년 포교에 힘쓰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 포교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너무 바쁘기에 절에 오는 것 자체가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봉선사는 중고등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했고, 이는 대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봉선사 청소년 법회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집전하고 우리말 칠정례를 봉독합니다. 스님보다 학생이 주도하는 법회가 대학생들에게도 자연스레 동기부여가 됐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일깨웠습니다. 대학생과 청년들은 복지관 봉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역할을 찾아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문화도 포교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그 바탕에는 반드시 불교적 사상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댄스 경연대회, 교리 경시대회, 독립선언 재현행사 등 모든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직접 준비하면서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부처님 말씀을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 담겨 있어 교육적 효과도 큽니다.

봉선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지역 만세운동의 시발지였는데, 그 역사적 맥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사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셈입니다.

Q 봉선사는 '지역과 함께하는 사찰'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달집태우기, 연꽃축제, 음악회 등 봉선사의 전통문화 행사는 지역민들의 열띤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늘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직접 부스를 열어 불교를 소개하고, 행사 운영과 봉사로 현장을 이끌어 갑니다. 한 해 동안 꾸준히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과 '응원상' 등으로 노력과 참여를 격려합니다. 그래서 포교 기금이 꼭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다 보니, 지난해 회암사 사리 다례재에는 700명이 함께 108배를 했고, 무안 여객기 사고 희생자 추모 108배에는 예상보다 두 배 많은 200명이 모였습니다. 특히 진로를 고민하던 중학생들이 갑자기 공부에 몰두하고 '동국대에 가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등 불교를 통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사회와 함께하며 쌓아 온 경험 덕분에 최근 2년간 10대, 20대 출가자가 9명이나 나오는 성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회 등 청년들 주도적 참여 주도
장학금·응원상 등으로 노력 격려
2년간 10 · 20대 출가자 9명 배출
'멈춤' 체험 선명상센터 올해 완공
수행 · 포교 조화 이룬 도량이 목표
"하루 중 5분이라도 느리게 가기"

Q '출가 절벽' 시대에 청년 출가자 배출이라는 뜻깊은 성과입니다.

출가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어야 합니다. 스님이 된다는 것, 머리를 깎고 절제된 생활을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은 강요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대신 스님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멋진 일인지 보여 줄 때, 한순간 출가에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법회나 대학교 불교동아리 등에서 출가를 결심하는 이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발심은 자율에 맡기되, 사찰이 두렵지 않고 스님이 존경받는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엄격함보다는 이해와 배려로 청년들이 출가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청소년 · 청년 전법이 지속되기 위한 노하우는 무엇일까요?

청소년과 청년들이 전법에 참여하려면 먼저 스님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합니다. 제가 스노우보드 꿈나무들을 위한 '달마배' 대회를 20년 넘게 지원해 온 것도 그런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전법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꾸준히 관심을 두고 함께해야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사부대중이 똘똘 뭉쳐 전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 것입니다. 포교가 차선이 되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또 제가 가진 역량만큼 꾸준히 쏟아부으면 예상치 못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든 억지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차근차근 쌓아가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반려견과 함께하는 선명상 축제'도 화제였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헤아립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반려견과 반려묘가 가족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에 반려동물은 주인에게 행복과 위안을 줍니다. 봉선사는 대웅전을 제외한 경내에 반려견 출입을 허용하고, 보호자들이 배설물을 치우는 등 기본 규칙만 지키면 자유롭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선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산책과 포행을 명상과 결합해, 반려견과 함께 걸으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경험을 제공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해 10월 25일에도 반려견 선명상 축제를 개최합니다.

봉선사는 나아가 반려영옥 같은 위패를 계획 중이고, 올해 준공 예정인 경내 전법회관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법당과 장례, 추모가 가능한 공간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Q 교구본사 최초의 선명상센터 건립 불사가 한창입니다.

혼돈과 불안이 만연하고 환경 문제와 재해, 전쟁 등으로 사람들은 우울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극복할 대안이 바로 '선'과 '명상'입니다. 조계종의 정체성인 간화선을 사부대중에게 쉽게 전하고, 수행과 체험을 통해 '잠시 멈춤'과 자기 정체성을 돌아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선명상의 목표입니다.

누구나 선 수행으로 분별심을 끊고 자아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자연 속에서 쉬고, 자극 없이 마음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종교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채우도록 돕는 것이 선명상센터의 역할입니다. 10월 토목 공사 마무리, 11월 콘크리트 타설을 거쳐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교구 활성화를 위해선 말사와의 유기적 관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봉선사는 90여 개 말사를 두고 있습니다. 말사마다 사정과 규모는 다르지만, 스님들 모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본사는 말사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행정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한편, 서로의 장점을 벤치마킹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말사와 본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전체 교구와 종단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Q 불자와 국민에게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잠시라도 느리게 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 단 5분, 10분이라도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장소와 상황에 상관없이 잠시 멈춰 보길 바랍니다. 사실 시간은 충분합니다. 번뇌가 많아 방하착(放下着)을 잊을 뿐입니다. 스스로 분별심을 끊기 위해 기도든 주력이든,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 있을 때 작은 행복에서 큰 행복을 찾아간다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진정한 '열반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호산 스님이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2023년 10월 25일 봉선사에서 봉행된 제17대 교구장 진산식 모습.



봉선사가 2023년 11월 19일 경내 청풍루에서 '봉선사청년연합법회'를 처음 열고 청년 전법 의지를 다졌다.



2024년 5월 19일 양주 회암사지 일원에서 봉행된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



2024년 봉선사는 시대 흐름에 맞춘 '반려견과 함께하는 선명상 축제'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39 진정한 보시란



▶한줄 요약
부처님께서는 복을 얻는 것조차 실체가 없는 것이므로 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조차 내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복덕(福德)을 많이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가 바라지 말라, 그대 마음만 불편해진다

보시 뒤 바라는 마음 갖는 건
또 다른 인과 윤회 생성 과정
복 얻는 마음조차 내지 않아야
진정으로 福德을 많이 얻게 돼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오늘의 명상]
억만 금의 보석으로
억만 명에게 보시(布施)하는 것은 작은 공덕이다.
보시한다는 마음 없이 보시하는 것은
더없이 큰 공덕(功德)이다.

뭇 사람들은 불교를 '비현실적이지 않나'라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공(空)이다", "업(業)이다", "인연이다", "인과(因果)다"라고 하고 "마음을 비워라", "주어도 준 바가 없이 줘라", "집착하지 말라", "생각과 감정을 놓아라", "분별하지 말라" 등 뭔가 뜬구름 잡는 듯한 이야기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체 인간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한 순간이라도 어떻게 산다는 말인가"라며 하물며 "스님들은 현실을 너무도 모르고 산에서 편안하게 신도들의 보시로 살아가니 각박한 세상사에 대해 그 치열함을 모르는 소치"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각박한 세상을 떠나 편안하게만 보이는 절 생활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기에는 부모 형제, 처자식 등 묶인 것이 많죠. 그럼 밖에서 그냥 치열하게 사는 수밖에요. 이와 같이 세상에는 공짜란 없습니다.

세상일이란 티끌만한 것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중생은 특히 사람들은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 살고, 최소한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라는 만큼 얻은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우연이나 요행은 없습니다. 모두가 필연(必然)입니다. 이것이 업이고 인과이고 분별이며 인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 윤회의 고리를 끊고자 불교를 통해 배우고 실천하며 수행하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일입니다. 반드시 복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내 것을 주거나 돕는다는 마음 한편으로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 또한 잠재적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돕거나 준다는 것은 어지간한 내공 없이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도와준 것에 대한 업식이 남아 있다가 언젠가는 다시 돌려받기 위한 아뢰야식(잠재의식)이 발동하게 됩니다. 이미 준다는 생각이나 돕는다는 생각 자체가 인과를 낳기 때문에 이미 불편한 마음을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하거나 배신을 한다면 그 속상한 마음이야말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이치와 마음의 모습이 인과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준다는 마음도 돕는다는 마음도 내지 않음으로, 내 것이라는 생각도 없고, 준다는 생각도 없고, 더구나 받는다는 생각도 없으니, 돌려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편한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는 〈금강경〉 제19 법계통화분(法界通化分)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에 가득 찬 칠보를 보시(布施)한다면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복(福)을 얻음이 많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복을 심히 많이 얻나이다."

"수보리여. 만약 복덕(福德)에 실체가 있다면 여래는 복덕을 많이 얻는다고 설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래 복덕이란 없는 고로, 여래는 복덕을 많이 얻는다고 설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복을 얻는 것조차 실체가 없는 것이므로 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조차 내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복덕(福德)을 많이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인연·인과의 질서에 맡기고 마음을 텅 비워 놓을 수만 있다면 온갖 복락(福樂)이 나를 완전하게 보호하고 감싸 줄 것입니다.

[오늘의 명상]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니
내일은 낮과 밤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도 반드시 온다는 것이며
나와 너의 미래 역시 이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迷生寂亂(미생적난) 미혹하면 고요함과 어지러움이 생기고
悟無好惡(오무호악) 깨달으면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으니
一切二邊(일체이변) 모든 상대와 두 가지 마음은
良由斟酌(양유짐작) 능히 헤아려 짐작하고 남음이로다.

중국 선종 3조 승찬(僧燦) 대사께서 선(禪)의 요체를 간략하게 말씀하신 〈신심명(信心銘)〉 22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명(無明)에 의해 중생의 두 가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생각으로는 좋고 싫음이 생기고, 감정으로는 즐겁고 괴로운 마음이 생겼고 이 둘의 마음은 시공(時空, 때와 장소)을 달리하여 차례로 인과(因果, 이 마음과 저 마음)의 업보(業報, 현실)로 나타납니다.

한 번의 좋은 생각과 즐거운 감정이 생기면 한 번은 반드시 싫은 생각과 괴로운 감정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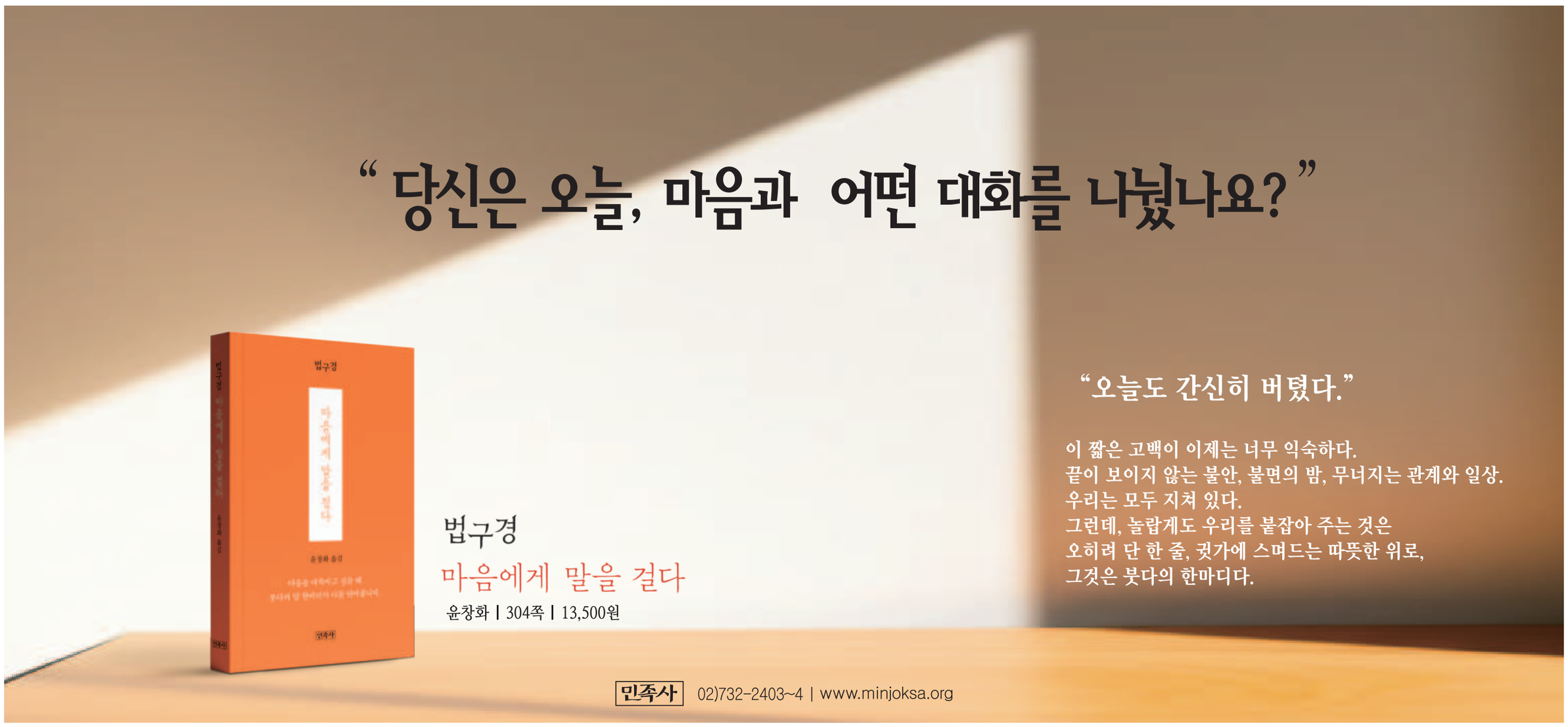
육근(六根, 눈·귀·코·혀·몸·생각)과 육경(六境, 시각·소리·향·맛·촉감·기억)과 육식(六識, 육근·육경의 인식)으로 감지되는 온갖 일들은 이 두 마음에 따라 인연이 되어 실제로 생겨나게 되니 일체(一切)가 유심조(唯心造)입니다.

좋고 싫은 생각과 즐겁고 괴로운 감정이 이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 이 두 마음에 따라 현실의 온갖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이 본체이면 내가 사는 세상의 모든 인연 되는 것들은 내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 지나간 것도 이 두 마음에 의해 생겨난 것들이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 두 마음이 나타나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능히 헤아려 짐작하고 남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는가? 그럼 나쁜 일이 생길 것입니다. 나쁜 일을 겪어 보았는가? 그럼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이 번거롭다면 두 마음의 분별심(分別心)을 없애 버려야 합니다. 분별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당장 모든 생각과 감정을 놓아 버리면 됩니다. 그리 하기가 어렵다면 보시와 정진, 기도와 참선으로써 극복하십시오.

〈조계종 총무원장〉



이일야의 詩, 불교를 만나다 ⑲ 나눔[布施]이란? : 안도현의 '연탄 한 장'



▶한줄 요약
시인은 보시바라밀의 실천을 온몸으로 보여 주는 연탄을 바라보면서 삶을 더 깊이 있게 음미하도록 이끈다.

연탄 한 장의 나눔

군대 시절의 일이다. 상병을 달고 설레는 마음으로 며칠 후 가게 될 첫 휴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선임병에게 잘못 맞는 바람에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말았다. 아픈 것은 둘째 치고 이 모습을 보면 아버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를 생각하니,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휴가를 나갈 수 없었다. 그때 한 동기가 취사장에서 달걀 하나를 얻어 와 눈 주위를 문질러 보라고 주는 것이었다. 무슨 효과가 있겠냐 싶었지만, 속는 셈 치고 탄약고 보초를 설 때마다 살살 문질러 보았다. 한 이틀쯤 지나고 거울을 보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멍 자국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호기심에 달걀을 깨 보니, 검푸른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때 비로소 알았다. 이 물건이 내 아픈 상처를 모두 받아 냈다는 것을.

그 당시 김형곤이라는 개그맨이 유행시킨 재미난 유머가 있었다. 한 젊은 청년이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3년 동안 산속에서 도를 닦았다고 한다. 열심히 수행했지만, 한 소식도 듣지 못한 청년은 하산해 집에 가는 기차를 타게 된다. 그런데 기차 안에서 과자나 음료수, 맥주 등을 파는 이의 말을 듣고 그 해답을 찾는다. 바로 이 소리다.

"삶은 달걀요!"

삶은 달걀 파는 소리를 듣고 삶이란 달걀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내용이다. 군대 시절 이 물건이 눈 주위의 멍을 삼킨 것처럼, 다른 이들의 아픔을 포용하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라는 뜻이다. 경험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달걀 속에 담긴 삶의 철학이었다. 마치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上求菩提]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下化衆生]' 보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수업 시간에 가끔 들려주곤 한다.

안도현 시인의 '연탄 한 장'을 읽으면서 문득 그때의 일이 떠올랐다. 달걀과 연탄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다른 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점에서 둘이 닮았기 때문이다. 연탄 역시 자신을 불태워 얼어붙은 방구석과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준다. 지금은 도시가스가 널리 보급돼 쉽게 볼 수 없지만, 예전에 연탄은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였다. 그래서 겨울철 창고에 높이 쌓인 연탄을 보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거꾸로 몇 장 남아 있지 않으면 근심과 걱정이 앞서곤 했다.

어디 그뿐이던가. 다 타고 남은 연탄재는 빙판길에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든든한 방패막이 돼 주었다. 시인의 지적처럼 자신을 산산이 으깨어 다른 이들이 마음 놓고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준, 그야말로 버릴 것 하나 없는 존재였다. 안도현 시인은 자칫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던 '연탄 한 장'에 담긴 소중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안도현은 1981년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낙동강'이라는 시가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1984년에는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 당선되기도 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시인은 중학교 국어 교사로 활동했으나 전교조 정회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직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창작 활동을 이어 갔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너에게 묻는다', '연어', '스며드는 것' 등이 있다. '우리가 눈발이라면'은 중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영향력도 큰 편이다. 소월시문학상과 백석문학상, 윤동주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연탄 한 장'은 1994년 출간한 시집 〈외롭고 높고 쓸쓸한〉에 실린 작품이다. 출판사에 의하면 '일상의 평이한 현실에서 출발하여 평범하지 않은 성찰'에 이르게 하는 시집이라 한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연탄 한 장'을 통해서도 삶을 좀 더 깊이 있게 음미할 수 있다. 과연 연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직접 들어 보기로 하자.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 삶이란 / 나 아닌 그 누구에게 /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 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 연탄차가 부릉부릉 /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

다른 이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연탄
온몸 불태우면서도 아상 내지 않아
무주상보시 실천하는 보살의 모습

네 /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 생각하면 / 삶이란 /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연탄 보살의 보시바라밀

이 시를 읽으면서 '설중송탄(雪中送炭)'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났다. 눈 내리는 추운 겨울 땔감을 보내 준다는 뜻이다. 중국 송나라 때 혹한 속에서 고생하는 친구를 위해 숯을 보내 주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이야기다. 춥고 힘들 때 벗이 보내 준 땔감 하나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 한없는 감사함이 느껴지는 이유다. 예전에 연탄이 떨어지면 옆집에서 한 장씩 빌리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었다. 형편이 어려워 돌려주지 못해도 얼른 갚으라고 채근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연탄이 많이 사용됐다. 한마디로 연탄은 나눔과 온정의 상징이었다.

대승불교에서는 그 어떤 수행보다 나눔을 중요하게 여긴다. 대표적 수행 체계인 육바라밀(六波羅蜜)에서도 보시바라밀이 가장 먼저 나온다. 육바라밀은 보시(布施)와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智慧)를 가리킨다. 바라밀이란 본래 범어인 '파라미타(paramita)'를 소리 나는 대로 옮긴 것이다. 여기에는 완성과 도피안(到彼岸)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 피안에 이르는 것이 곧 수행의 완성을 의미하므로 맥락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한마디로 보시를 비롯한 여섯 가지 실천을 통해 수행을 완성하고 괴로움이 가득한 차안(此岸)에서 행복이 가득한 파라다이스 피안(彼岸)에 이른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보시는 육바라밀 가운데 가장 앞에 나올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보시에는 내가 가진 재물을 함께 나누는 재시(財施)와 아는 것을 베푸는 법시(法施), 그리고 두려움을 없애 주는 무외시(無畏施)가 있다. 특히 무외시는 돈과 지식이 없어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예컨대 찡그린 얼굴과 퉁명스러운 말투는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한다. 이것도 일종의 악업(惡業)을 짓는 행위다. 하지만 미소 띤 표정 하나만으로 우리는 선업(善業)을 짓고 상대를 기쁘게 할 수 있다. 필자가 수업이나 법회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다.

"오늘도 마음엔 평화, 입가엔 미소 가득한 하루 되세요."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보시는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바라밀, 즉 수행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평소 나눔을 실천할 때 두 가지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나는 보시가 미안함이 아니라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나눔을 실천하면서도 간혹 이런 실수를 한다. "나는 얼마를 보시했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안 해?"라고 말이다. 고마움이 미안함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이렇게 되면 나눔이라는 의미 자체가 퇴색되고 만다. 그래서 보시를 실천하는 데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대가 몰라줬을 때 이를 수행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가 알아주면 고맙지만, 몰라주면 나도 모르게 서운함을 느낀다. 불교에서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시했다는 상(相)을 내지 말라고 강조하지만, 웬만큼 수행이 깊지 않으면 현실에서 실천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를 공부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다. 상대가 모른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정말로 무주상보시를 잘 실천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니 서운함은 날려 버리고 정말로 수행을 잘한 자신을 칭찬하고 토닥거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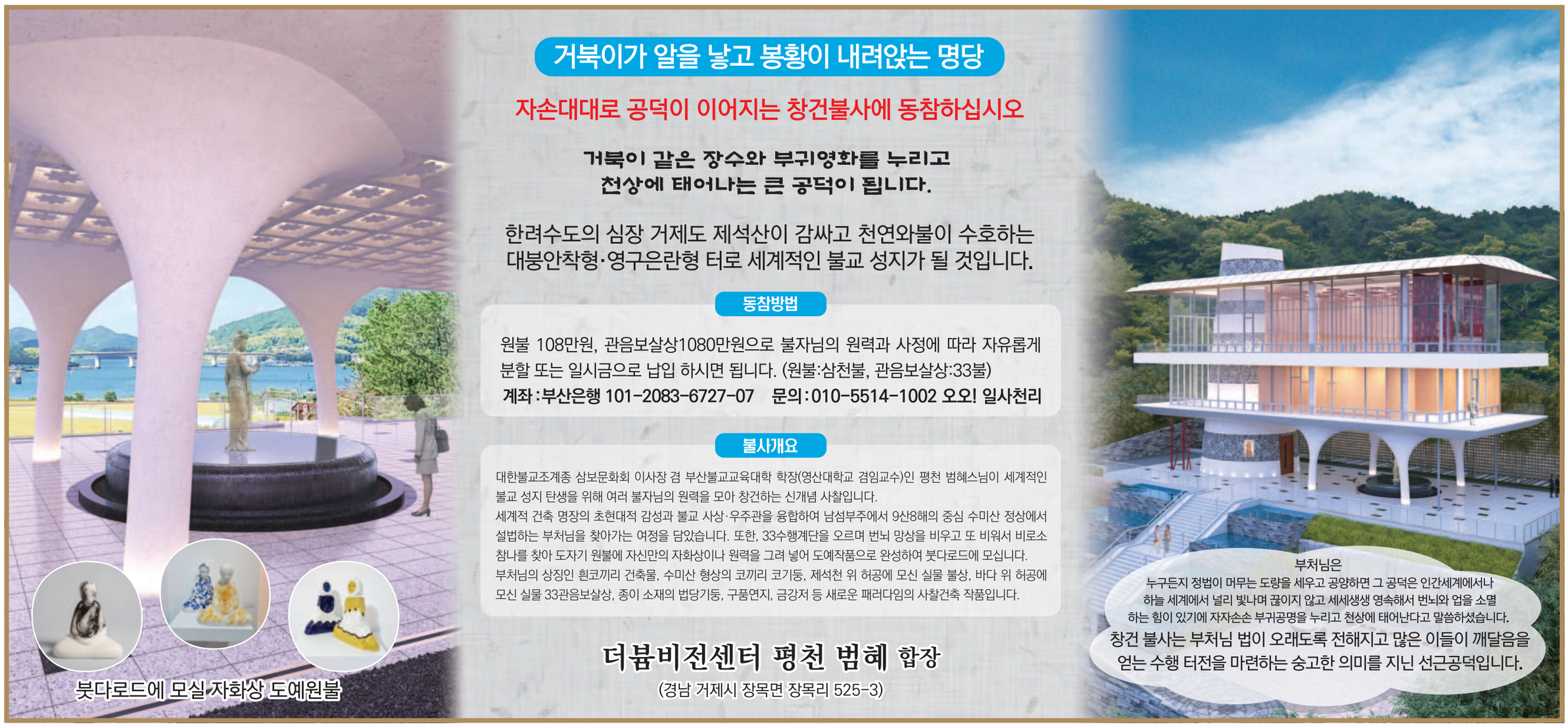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연탄 역시 다른 이를 위해 온몸을 불태우면서도 결코 아상(我相)을 내지 않는다. 그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자신을 뜨겁게 태울 뿐이다. 사람들은 연탄 덕에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고마움을 알지 못한다. 그렇다고 이 물건은 서운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쌀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마치 보시바라밀은 이렇게 실천해야 한다고 온몸으로 보여 주는 것 같다.

시인은 이런 연탄을 보면서 스스로 고백한다.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누구에게 연탄 한 장이 되지 못했다고 말이다. 그리고 삶이란 연탄처럼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이라는 성찰을 하게 된다. 시인의 눈에 비친 연탄은 자신을 모두 태우고도 다른 이들이 혹여 미끄러질까 봐 남은 재마저 산산이 부수어 길을 내고 있었다. 전형적인 보살의 모습이다. 다만 이를 모르는 중생들이 연탄재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할 뿐이다. 시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 너는 /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은 보시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알게 해 준 '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보살이었다.

〈전북불교대학 학장〉



2025년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지원사업 선정 프로그램

AI와 함께하는 마음돌봄 체험

2025.
11.02. 일요일.
11.14. 금요일.

- 2025년 11월 02일(일) 10:00 ~ 17:00 한국프레스센터 서울마당 B구역
- 2025년 11월 14일(금) 10:30 ~ 16:00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IF ZONE
- 주최/주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
- 참가비: 무료

주요 프로그램

- 디지털 마음진단 체험– 뇌파, 맥파 등을 실시간 측정 및 VR명상체험
- 대화형 AI심리상담 체험 – AI키오스크 감정 입력 및 심리검사 진행, 개인 맞춤형 명상(5분) 제공
- AI 미디어아트 체험 – 김원화 작가의 〈인간의 거울〉 전시관람

dongguk UNIVERSITY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생활

1551호 | 16 | 전면광고

큰 바다는 널리
온갖 물을 받아들이지만
차는 일이 없고 넘치는 일이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대승장엄경론》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포교원 건물 급매
- 대지 : 200평
- 4층 포교원, 5개층, 산 및 근린
- 생활시설, 현6000/700만 수익
- 시세 70억 매가 45억, 주차가 매수완료시 수익1000~1300만 가능

- 위치 : 충남사찰 봉안당
- 면적 : 2000평, 사찰
- 법당 : 30평, 봉안 20000분
- 현재운영 중, 버스 진입 가
- 매가 : 250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서울 포교당

- 서울 은평구 3층건물 3층 (지하철역에서 300m이내 대로변 위치)
- 임대평수 24평
- 보증금 1000/월세 80만원
- 시설 인수 2500만원 필요, 냉난방 완료
- 인수 후 바로 사찰 운영 가능

010-3776-3795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67번지 4층
- 약 30평, 방2, 법당1, 화장실1
- 보증금 500/월세 4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인연닿아 포교당 운영하실 스님 찾습니다

010-4641-5474

포교당 안내

전월세입자 구함

- 위치 :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160 4층
- 면적 : 4층 45평, 총 90평 전체 사용 가능
- 대웅전 약 30평, 공양간, 종무소
- 요사채 별도 존재,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전세금 천만원/월세 60만원(절충가능)
- 집기 일체 3천만원(절충가능)
- 4층 전세 사용 함

010-4179-6212

사 찰 안 내

- 장소 : 여주시 점동면 산사
- 대지 : 703평
- 대웅전, 진신사리 3층석탑,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종무소
- 상수도, 지하수, 전기 (태양광 포함 13K)
- 양도가액 : 6억원

010-5481-256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만산길 320 청명사
- 가액 : 2억 7천 만원
- 총 토지 면적 : 520평 / 법당 : 19평 요사채A동 : 19평 / 요사채B동 : 17평 삼성각 : 2.5평 / 주지 : 연공스님
- 건물 및 토지 일괄 매매, 즉시 입주 가능 노스님께서 건강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010-5275-137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 : 230평/건물 : 연면적 150㎡
- 대웅전(목조) 산신각(목조신축) 주지스님 처소(신축)
- 요사채 및 종무소
- 진주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가액 : 6억원

010-3808-385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서면 춘장대 IC 15분거리
- 대지 : 367평 건물 연면적 : 160.36㎡ 법당, 주지 스님 처소
-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가액 : 3억5천만원(협의가능)

010-5046-5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세권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1동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1동 / 종무소 · 객방 13평-1동
- 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 다원 최상입지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시내
- 대지 : 11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 가액 : 7억 4000만원

010-3868-8219

사찰(급)안내

- 신축 빌라식 3층 건물
- 각층 임대 및 매매 가능
- 위치 : 부산시 구포시장 농협 옆
- 1층 근린법당 약 50여 평 5000만 월 70만
- 2층 주택 법당 5000 월60만
- 3층 주택 방3칸 5000 월50만
- ※3층 복층 사용 가능

010-5511-7000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 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 지 : 700평 (실사용 천평)
- 건 물 : 법당 (25평) 산신, 칠성, 용왕
- 요사채 : 슬라브 2동, 황토방 2동
- 해우소 : 1동. 차량진입, 주차장
- 금 액 : 5억

산이 병풍처럼 쌓인 도량, 남향이라 따뜻하고 앞이 탁트이고 살기좋은 도량, 큰비가 와도 물 배수잘됨. 도량에 과일나무 자두, 호두, 은행, 오디, 감나무, 매실, 두릅, 머위, 고사리 등

010-9203-1165

사찰(급)안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가액 5억 3000만원 (융자 3억 가능)

010-6898-9114

사 찰 안 내

"소중한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 면적 : 3600평(건축물 : 전통양식)
- 극락전/산신각/종각/미륵불
- 용왕당(연못) 요사채 2층 80평(외) 등
-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막골길267-28 (작은 보시금으로 매입 가능합니다!)

010-8961-5489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49번지(석교동) 광명선원
- 3층 건물 중 2층 33평
- 보증금 500만원/월세 35만원
- ☆ 렌탈제품, 정수기, 공기청정기, 인터넷.cctv, 비데, 전화, 체크기 등 이전 ☆

광명선원 043-224~2474
010-3222-2474

암자(토굴)안내

- 위 치 : 경북 영주 시내
- 전망이 좋은 곳 자리함
- 대 지 : 82평
- 마당 및 건물 3동
- 가 액 : 1억원

010-5538-557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대출 2억 1300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장호원 감곡시내
- 대지 : 800평
- 대웅전, 연못, 휴게소, 찜질방, 종각 산신각, 신비한 거북바위, 요사채 방7개, 리라이트찜질 가온기5대
- 가액 : 9억 / 전세 : 3억 5천 하실분 전화주세요 문자 먼저 주세요

010-5883-2255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용암면 계산리 96-2
- 약 1000평부터 5000평까지 분할 매매 가능
- 탁트인 전망, 토목공사 전기 수도 완료 / 가람장소로 적합
- 가액 : 평당 60만원(절충가능)

010-8857-98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내남면
- 산 3900평 대지258평
- 건물3동(대웅전, 요사채, 공양간)
- 주차 가능, 경주시 15분 거리
- 가액 : 3억 5000만원 (집기일체, 절충가능)

010-4554-598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 대지 : 210평
- 건물 : 법당, 삼성각, 요사채(방 4개), 주차장
- 가액 : 보증금 500만원/년 400만원

※집기류, 가전제품, 모든 기물 양도
경내 영험있는 서낭나무 있음
무속인, 철학인, 기도승 대환영

010-5333-8905
010-5022-2187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
- *서울에서 약106㎞ 1시간 30분, 동홍천 IC에서 17㎞ 25분거리
- 총토지면적 : 546평
- *대지 199평, 건평 25평 1동, 임야 247평 (산지전용 토목공사 완료), 도로 약 100평
- 사방이 국유지에 쌓인 천연 휴양지로 토굴이나 개인 선방용 추천
- 가액 : 1억 8천만원(가격 조정 가능)

010-8833-6949

사 찰 안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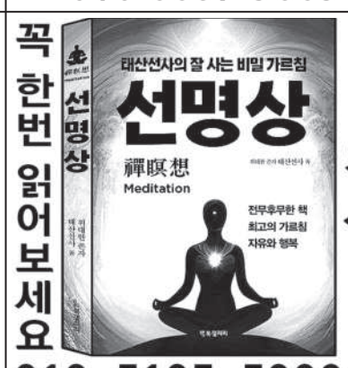
- 위치 : 부산시청에서 차로 10분 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요사채
- 전세 가액 : 3억원(월세 가능)

010-4561-6368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시 치악산 산하
- 부지 1330평
- 대웅전(60평), 요사채(40평), 황토방(10평)
- 상수도, 지하수, 전기(태양광 포함 15k)
- 심야전기 보일러
- 가액 : 8억 8천만원

010-6372-8968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범음·범패 학인 모집

- 각단의식 및 예불, 천수바라, 작법
- 각 사찰 행사 합니다
- 진주 금륜사 강주 스님 도강 합장
- 주소 :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륜사

010-7579-8200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즉시 영가 천도 /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집이나 땅 매매 안되는 분 성불 시켜드립니다
공항장애, 간질 등 몸이 안좋으신분 치유해드립니다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010-4804-2309

전국 어디든 사찰 공양주 보살님 처사님 구해드립니다

국제결혼 무료로 인연맺어드립니다

010-9260-1672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스님, 처사님, 행자, 공양주보살

(75세까지 가능) 구함

부산 만덕사

010-3840-4355

들기름을 이용한 단청 보호 및 색채 보존제

들기름 전통 도료

특허출원번호 10-2023-0181680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제 FB25-07-0032호

國寶 明油·蘇子油

명유·소자유

단청보호, 색채 보존제

발수코팅·오염방지 기능

천연의 식물성 들기름 원료를 이용하여 우리의 전통과 과학으로 특화된 기술의 결합체인 들기름 전통 도료입니다.

사용처 : 문화재(단청마감재), 색채 보존제, 사찰, 한옥, 공예품, 민속품, 목재 보호 및 코팅이 필요한 모든곳, 경첩, 놋쇠 등

항균시험 99.999%, 중금속 불검출 -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제주목 관아(문화재) 시공사례

동화특수산업(주)
국보도료연구소

문의 | 010-3747-2111
TEL | 031-451-6232 FAX | 031-451-6238
주소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66, SK벤티움 102동 1201호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자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⑳ '첫, 사랑을 위하여'(2025)

아낌없이 사랑 나누는 삶을 살라

20년 전쯤 상영한 '라디오스타'(2006)라는 영화가 있었다. 괴팍한 성격으로 서울에서 더 이상 발붙일 데가 없어진 왕년의 가수왕 최곤(배우 박중훈)이 쫓겨가다시피 한 영월의 작은 방송국에서 라디오 디제이를 맡게 되는데, 첫 방송의 첫 멘트를 이렇게 시작한다. "처음이라는 말처럼 설레는 단어가 있을까요? 첫울음, 첫눈, 첫 만남, 첫 데이트, 첫 키스…."

많은 사람들이 '처음'이라는 말에서 설렘을 느낀다. 새로운 세계에 첫발을 내딛는 신선함이 있기 때문이고 그 신선함이 소중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삶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지고 무료해진 우리는 문득 그 첫 마음, 즉 '초심'을 그리워하고 다시 돌아가고자 다짐하는지도 모르겠다.

드라마 '첫, 사랑을 위하여'는 이처럼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첫사랑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공사판 현장 소장으로 일하는 지안(배우 염정아)은 혼자 대학생 딸을 키우는 싱글맘이다. 그런 지안의 딸 효리(배우 최윤지)는 언제나 당당한 싱글맘 엄마와 '딸바보 아빠'를 자처하는 엄마 친구 선영(배우 김선영) 이모 덕에 씩씩하게 우등생으로 자라 한국대 의대 본과 3학년에 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효리는 지안에게 말도 없이 학교에 자퇴서를 내고 청해시의 바닷가 마을로 가출을 한다. 자신의 미래인 딸 효리가 의대를 자퇴한 사실을 알고 딸을 찾으러 간 지안은 효리에게서 뇌종양이라는 뜻밖의 고백을 듣는다.

지안과 효리가 우연히 가게 된 청해시에는 마침 지안의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 정석(배우 박해준)이 아들 보현(배우 김민규)을 혼자 키우며 건축사로 일하고 있었다. 지안은 정석의 도움으로 효리의 꿈이었던 집을 짓고 청해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지안과 효리의 제2의 인생, 여기에 그들의 첫사랑 정석과 보현과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런데 드라마 '첫, 사랑을 위하여'의 제목은 왜 '첫사랑'이 아니라 '첫, 사랑'일까? 이 부분이 의미심장하다. '첫사랑'이 아니라 '처음 사랑'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남녀 간의 '첫사랑' 이야기만을 담은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석은 지안의 첫사랑이다. 그리고 청해시에서 처음 만난 효리와 보현 역시 서로가 첫사랑이다. 이런 일차적인 남녀의 첫사랑 이외에 드라마 제목 '첫, 사랑'에는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사랑의 대상, 즉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다.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처음 사랑 알게 한 존재 소중함 담겨
'본래 완전함' 깨닫는 것이 초발심
매 순간 처음처럼 지금 누리라 메시지

사실 지안은 효리의 친엄마가 아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절친'이 이른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천덕꾸러기가 된 친구의 딸을 입양해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아온 것이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고등학교 시절 엄마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다. 그런 지안에게 엄마가 떠나던 날 가지고 간 캐리어와 똑같은 캐리어를 들고 '엄마'라며 나타난 인물이 있다. 알고 보니 미국에 이민 간 딸의 죽음으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전직 의사 문희(배우 김미경). 딸의 죽음을 자책하는 문희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자신의 엄마를 마음으로 용서한 지안은 문희와 같이 살면서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할머니, 엄마, 딸, 삼대가 함께하는 가족을 만든다.

한편, 어머니와 다투고 집을 나온 오태오(배우 양경원)의 이야기도 시선을 끈다. 태오는 자신을 미워해서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하는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사실은 뇌졸중 후유증을 앓고 있었고, 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 주기 싫어서 만나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오열한다. 태오의 어머니는 마음 약한 작은아들이 자기 탓을 할까 봐, 보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던 것. 이처럼 드라마는 다양한 어머니를 등장시켜 서로의 '첫사랑'인 자식과 부모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

불교에서 '처음'이라는 말이 가장 인상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아마 화엄의 '초발심시변성정각(初發心時便成正覺)'일 것이다. 깨달음을 구하겠다고 발심하는 그 첫 마음이 바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순간이라는 의미이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첫 순간이 완성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화엄경〉의 구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아래에서 열리는 법회를 시작으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화자재천의 순서로 천상계에서 법회가 열리다가 다시 보리수 아래로 돌아와 열리는 법회로 끝난다. 이때 각 장소에 따른 법회마다 설해지는 가르침의 내용이 구별된다. 기본적으로 보리수 아래에서는 부처님 세계에 관한 설법이 이루어지고, 천상계의 설법은 보살도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리수 아래에서 출발해 천상계를 거쳐 다시 보리수 아래로 돌아오는 〈화엄경〉의 구조는, 중생이 보살도를 닦고 닦아 깨달음을 얻은 자리가 바로 처음 출발한 그 자리임을 일깨워 준다.

애초에 중생은 본래부터 부처였다. 다만 스스로 부처임을 모르기 때문에 중생으로 산다. 내가 부처임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나의 삶은 중생의 삶이 아니라 부처의 삶이다. 그러므로 〈화엄경〉에서 설해지는 보살도는 사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의 과정이 아니라, 부처가 부처의 행동을 하면서 세상을 장엄하는 것일 뿐이다. 그것이 '화엄(華嚴)'이다. 온갖 보살도의 꽃[華]으로 불국토를 장엄[嚴]한다는 뜻이다.

내가 본래 완전함을 깨닫는 순간 그저 완성된 삶을 살아나갈 뿐이라는 것이 불교의 초발심이다. 변질되지 않은 최초의 순수한 마음이라는 뜻의 흔히 말하는 초심과는 분명히 다르다. 드라마 '첫, 사랑을 위하여'의 첫 마음은 초발심일까, 초심일까?

드라마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나 사랑을 알게 한 존재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첫 장면부터 뇌종양이라는 시한부 인생의 주인공을 내세워 사랑하는 엄마가, 딸이, 가족이,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지금 당장 그 사람과 함께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라고 말한다. 매 순간이 처음인 것처럼 바로 지금을 누리라는 것이다. 매 순간이 처음이면 매 순간이 마지막이니 따로 시작일 것도 없고 끝날 것도 없다. 그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장엄할 뿐.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술 취한 코끼리도 스님들을 공경하다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㊴ 취상생신 인연(醉象生信 因緣)

⑥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옛날에 초복덕(超福德)이라는 국왕이 있었다. 나라에 죽어야 할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지만, 왕은 성품이 인자해 그를 죽이고 싶지 않았다. 이때 지혜가 많은 신하가 '걱정 마십시오. 대왕님이 살생의 죄를 짓지 않게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지혜의 힘으로 죄인을 술에 취한 사나운 코끼리에게 끌고 갔다. 술 취한 코끼리는 죄인을 들어 올려 공중에서 땅바닥에 내려치려 했다. 그러나 죄인의 붉은 옷을 보고는 가사라고 생각해 내려놓으며 참회하고 슬피 울며, 그 사람을 존경하며 우러러보았다. 대신은 이 광경을 보고 왕에게 말했고 왕은 놀라 기뻐 찬탄하며, 전국에 영을 내려 삼보를 더욱 공경하게 하고 살생을 금했다. 선남자야, 그 취한 코끼리는 비록 축생의 몸을 받았지만, 가사를 공경하고 악업을 짓지 않았다. 그런데 미래 세상의 포악한 왕과 바라문 등은 온갖 악업을 지음이 술 취한 코끼리보다 더하며 … 내 제자들에 대해 공경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문하며 감옥에 가두거나 그 목숨을 끊게 한다. 이것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에게 큰 죄를 범하며 선근을 불태우는 것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반드시 무간지옥에 나느니라.

⑦또 선남자야, 미래 세상의 부처님 국토에 사는 포악한 왕과 재관, 거사들은 후세의 과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 그리하여 모든 스님에게 주는 의복, 음식 등 갖가지 필수품을 빼앗아 계율을 깨트린 악행 비구나 속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들에게 돌려주어 공동으로 쓰게 하거나 혹은 혼자서 쓴다. 따라서 국토를 보호하는 하늘, 신 등은 삼보를 믿고 공경하는 이들로 하여금, 그 포악한 왕과 사문, 바라문 등에 대해 성을 낸 연유로, 그들은 오래지 않아 몸이 못쓰게 되며 … 목숨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무간지옥에 나느니라."

이렇게 해서 제36호부터 게재한 십악업(十惡業)의 ⑥과 ⑦을 끝내며, 다시 ⑧에서부터 ⑩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⑧또 선남자야, 미래 세상의 부처님 국토에 사는 포악한 왕 등은, 후세의 과보를 두려워하지 않아 나의 법에 의해 출가한 이로서 총명하고 법을 많이 듣고 말이 원만하며 삼승의 법에 통하여 능히 전하며 유정들을 이롭게 하는 것을 보면, 법사를 괴롭히며 바른 법을 방해한다. 이러한 인연으로 일체 선신들의 분노를 사며 몸이 못쓰게 되며 … 무간지옥에 나느니라.

⑨또 선남자야, 미래 세상의 이 부처님 국토에 사는 포악한 왕 등은 선근이 미약하며 과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스님들에게 보시로 주는 물건, 즉 사사(舍寺), 농장, 하인, 축생, 재보, 꽃· 과일나무 등은 덕을 갖추고 수행하는 비구들이 수용해야 하거늘, 저들이 강한 세력으로 빼앗아 자기와 남을 위해 쓴다. … 저들은 목숨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무간지옥에 나느니라.

⑩또 선남자야, 미래 세상의 포악한 왕과 권속 등은 신심이 없으며 아첨하고 어리석으면서 총명하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악한 벗을 따라 행하며 성인의 법에 대해 의심을 품고, 후세의 괴로운 과보를 두려워 않는다. … 나의 법을 믿어 받들지 않고 탑과 절을 부수며 비구들을 구박하며 마치 종처럼 부린다. … 이들은 하천한 사람의 몸도 얻기 어렵거늘, 이승의 보리를 증득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는 자타를 해치어 부처님도 구제하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야, 어떤 이가 기름 짜는 업을 하는데, 낱낱의 씨에 벌레가 생겼고 바퀴로 누르면 기름이 흘러나온다. 보아라, 그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였겠는가? 또 이 사람이 열 개의 바퀴로 계속 짠다면 하루에 짠 기름은 수천 섬이 될 것이요, 그렇게 천 년을 짠다고 하면, 그가 죽인 생명은 얼마이며 그 죄는 또 얼마나 크겠는가?

지장보살마하살은 사뢰었다. '매우 많습니다. 그는 무수한 생명을 죽일 것이며, 그 죄는 헤아릴 수 없어 셈으로 비유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또, 선남자야, 어떤 이가 재물을 위해, 열 개의 유곽을 두며 하나하나에 천 명의 음녀(淫女)를 두고 사람을 유혹해 정사(情事)를 행했다고 하자. 이렇게 천 년을 하면, 그 죄는 셀 수 없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열 개의 바퀴로 기름 짜는 사람의 죄도, 이 한 유곽에서 지은 죄밖에 되지 않느니라. 또 선남자야, 어떤 이가 재물을 얻으려, 열 개의 술집을 두고 낱낱의 술집에 천 명의 술꾼을 청해 마시고 즐기기를 밤낮 계속했다고 하자. 이렇게 천 년을 했다면, 앞의 열 개의 유곽이 지은 죄도 이 한 술집에서 지은 죄밖에 되지 않느니라. 또한 선남자야, 어떤 이가 재물을 위해 열 개의 도살장을 두고, 낱낱의 도살장에서 하루에 소, 염소, 사슴, 닭, 돼지 등 천 마리의 생명을 죽인다고 하자. 이렇게 천 년을 계속하면 그 죄를 헤아릴 수 없어 앞에 말한 열 개 술집의 죄도 이 한 도살장밖에 되지 않느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기름 짜는 열 개 바퀴의 죄는 저 하나의 유곽에서 짓는 죄와 같고, 저 열 개의 유곽에서 짓는 죄는 저 하나의 술집에서 짓는 죄와 같으며, 저 열 개의 술집에서 짓는 죄는 저 하나의 도살장에서 짓는 죄와 같고, 저 열 개의 도살장에서 짓는 죄는 포악한 왕과 그들이 짓는 죄와 같으니라.'"

〈송림사 주지〉

부처님의 고행과 깨달음, 열반에 이르기까지
인도/네팔 불교 성지순례 8박10일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쉬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문의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성지순례 6박8일
▶일 정 :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리-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누와라엘리야-아훙갈라-콜롬보-인천
▶동참금 : 문의

미리 준비하는 26년 성지순례+관광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지상낙원 발리 4박6일

꽃피는 봄 일본
오사카/나라/교토 4박5일
다카마츠/시코쿠 4박5일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

이승혜의 그녀, 붓다를 만나다 ⑳ 불화로 피어난 '금지옥엽'의 마음



▶한줄 요약
조선 시대 공주들의 삶과 간절한 바람은 불화의 화기에 오롯이 나타난다.

조선 공주들의 염원, 불화에 새겨지다

'황금 가지와 옥 잎사귀', 이처럼 귀하고 어여쁜 존재가 또 있었을까. 바로 임금의 딸들을 일컬음이다. 조선 시대 임금의 딸은 왕비가 낳은 적녀인 공주와 후궁의 소생인 옹주로 구분됐다. 이들은 태어난 직후에는 아기씨라 불리다가 예닐곱 살이 되면 정식으로 봉작됐다. 열 살 무렵이 되면 혼례를 올리고, 성년인 16살쯤 되면 궁을 나와 남편과 함께 살았다고 한다.

공주는 '왕실 여성'이라 하면 바로 생각나는 존재지만 의외로 내명부(內命婦)가 아니라 외명부(外命婦)에 속한다. 공주는 왕과 왕비, 대군과 마찬가지로 품계를 초월한 무품(無品)이었다. 이들은 왕녀라는 신분 덕분에 특권을 누린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평탄한 삶을 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공주들이 살아간 삶의 모습을 방대하고 치밀하기로는 독보적인 조선 시대 기록문화 안에서 찾기란 어렵다. 남성의 붓이 써 내려간 역사 속에서는 공주들 역시 주변적인 존재였다. 아버지인 왕과 남편인 부마들에 관련된 기록 속에 부수적으로 등장할 뿐이다. 그러나 조선 시대(1392~1910) 불화의 화기(畵記)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공주들의 삶과 이들이 품은 간절한 바람을 우리 앞에 오롯이 드러낸다.



약사여래삼존십이신장도(藥師如來三尊十二神將圖), 조선 1477년, 족자, 비단에 채색 · 금니, 화면 85.8×55.9㎝, 리움미술관. 사진=리움미술관



아미타불회도(阿彌陀佛會圖), 조선 1831년, 족자, 비단에 채색, 화면 134.8×183.3㎝, 국립중앙박물관. 사진=emuseum



아미타불회도의 화기 부분. 사진=emuseum

병고에서 놓여나길 바랐던 명숙 공주의 바람

조선이란 새 왕조 출범 뒤 여러 국왕은 공적으로는 불교를 통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인지 현존하는 조선 전기의 불화는 130여 점에 불과하다. 이 중 대비와 왕비를 비롯해 내명부와 외명부의 왕실 여성이 발원한 불화는 20여 점에 달한다. 그중 리움미술관 소장의 '약사여래삼존십이신장도'는 현존하는 사례가 매우 드문 15세기의 불화로 더욱 의미가 깊다.

그리 크지 않은 화면 하단 중앙에는 2줄의 금선을 둘러 구획한 붉은색 화기란이 마련돼 있다. 그 안에 금니로 쓴 기록에 의하면, 이 불화는 1477년(성종 8)에 명숙 공주(明淑公主, 1456~1482)와 부마 홍상(洪常, 1457~1513)이 임금을 축원하고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이 자신들에게 미치기를 기원하며 발원한 미타회(彌陀會)·약사회(藥師會)·치성광회(熾盛光會)·○○관음(○○觀音)·의암관음(倚岩觀音)의 총 다섯 폭 중 한 점이다. 이어지는 발원문을 통해 명숙 공주 부부가 재앙과 고통에서 자유로운 정토를 사모(思慕)하고, 질병의 치유와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팔난(八難)에서 구제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폭의 불화를 일시에 발원했음을 알 수 있다.

화기에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인 명숙 공주의 이름이 먼저 기재돼 있어 눈길을 끈다. 공주로서의 신분과 시주자로서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모두 반영된 결과이리라. 명숙 공주는 조선의 제9대 군주인 성종(成宗, 재위 1470~1495)의 동복 누나로, 세조의 맏아들이자 후일 덕종(德宗)으로 추존된 의경 세자(懿敬世子, 1438~1457)와 소혜 왕후(昭惠王后, 1437~1504)의 고명딸이다. 명숙 공주는 많은 불사를 주도했던 할머니 정희 왕후(貞熹王后, 1418~1483)와 어머니 소혜 왕후, 오빠인 월산대군(月山大君, 1454~1489)의 영향을 받아 불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명숙 공주는 열두 살에 홍상에게 하가(下嫁)해 1471년(성종 2)에 아들을 하나 낳았으나, 꽃다운 20대를 병마에 시달리며 보냈던 것 같다. 병약한 명숙 공주가 질병을 맞닥뜨리면 '신기한 효험이 있는 약[神藥]'을 주시는 약사부처님께 귀의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공주 부부가 1477년에 발원한 불화 중 현재까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약사여래삼존십이신장도' 한 점에 불과하다. 이 불화는 높은 대좌 위에 약합을 든 채 결가부좌한 약사여래를 권속들이 둘러싼 구도를 보여 준다. 약사여래의 좌우에는 일광보살(日光菩薩)과 월광보살(月光菩薩)이 시립하고, 그 뒤로 여섯 명의 신장이 좌우를 둘러싼 모습이다. 갖가지 빛깔의 구름이 이들을 감싸며 화면에 상서로운 분위기를 더한다. 상하의 구분이 명확한 구도, 여래가 걸친 대의에 묘사된 당초원문(唐草圓文), 금니의 풍부한 사용, 뛰어난 배색 처리는 전통적인 고려 불화와 비슷하다. 여래 정수리 위로 솟아난 뾰족한 계주(髻珠)와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특히 작은 입의 표현에서 조선 초기에 새롭게 나타난 표현을 볼 수 있다.

왕실 안녕을 바라며 세 공주님이 발원한 불화

조선 후기의 불사는 왕실보다는 스님들과 민간 신도들이 주축이 된 경우가 많다. 심산유곡의 사찰 역시 전 국토를 초토화한 임진왜란이란 전대미문의 전란에서 무사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연유로 17세기는 사찰을 재건하고 불상과 불화를 조성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빈번했다. 전국적인 재건 불사는 18세기에 들어서며 다소 주춤해졌지만, 19세기에 접어들면서 한양 도성 주변의 사찰과 암자에서 활발한 불사가 거행됐다. 왕실 여성들이 불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는 것도 이때의 일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아미타불회도(阿彌陀佛會圖)'는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조성된 불화이다. 불화는 중앙의 화려한 나뭇결무늬의 대좌 위에 앉아 설법 중인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하단에는 4명의 보살, 제석천과 범천, 사천왕이 정연하게 배치됐고, 상단에는 아미타여래를 십대제자와 보살, 건달바와 야차 등의 신중이 좌우로 둘러싼 구도이다.

부처님 대좌 밑 화기 안에는 '주상 전하 경술생 이씨 성수만세, 왕비 전하 기유생 김씨 성수제년, 빈궁 저하 무진생 조씨 수명천추, 세손 저하 정해생 이씨 봉각천추(主上殿下庚戌生李氏聖壽萬歲 王妃殿下己酉生金氏聖壽齊年 嬪宮邸下戊辰生趙氏壽命千秋 世孫邸下丁亥生李氏鳳閣千秋)'라는 축원 문구가 적혀 있다. 이들은 각각 조선의 제23대 국왕인 순조(純祖, 1790~1834, 재위 1800~1834)와 그의 왕비 순원 왕후(純元王后, 1789~1857), 후일 신정 왕후(神貞王后, 1809~1890)가 되는 세자빈 조씨와 헌종(憲宗, 1827~1849, 재위 1834~1849)이 되는 세손을 이른다.

불화 하단부에는 가로로 길게 공간을 마련해 화기를 적었다. 이는 조선 후기 불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다. 화기를 통해 이 불화가 1831년(순조 31)에 조성돼 수락산(水落山) 내원암(內院庵)에 점안·봉안된 불화임을 알 수 있다. 화기는 크게 시주자 명단, 불사를 위해 일한 이들의 소임과 이름을 적은 '연화질(緣化秩)', 불화가 봉헌됐던 내원암에 주석 중이던 스님들을 적은 '본암질(本庵秩)'과 수락산 일대의 스님들을 망라한 명단으로 생각되는 '산중질(山中秩)'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시주자 명단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이는 '곤명 경오생 이씨, 곤명 무인생 이씨, 곤명 임오생 이씨(坤命庚午生李○ 坤命戊寅生李○ 坤命壬午生李○)'의 세 사람이다. 곤명은 여성을 의미하며, 이씨라는 성씨에서 축원문 속 인물들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세 사람은 순조와 순원 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1남 3녀 중 명온 공주(明溫公主, 1810~1832), 복온 공주(福溫公主, 1818~1832), 덕온 공주(德溫公主, 1822~1844)이다. 화기에는 세 공주에 이어 명을 받들어 시주를 권유한[引勸奉命] 상궁 최씨(尙宮崔氏)와 상궁 신묘생 최씨(尙宮辛卯崔○)의 두 사람이 기록돼 있다. 상궁은 내명부에 소속된 궁관(宮官) 중 가장 높은 정5품의 위치에서 궁내 사무를 총괄하는 여성 관리이다.

불화가 조성된 1831년은 다음 세대의 왕실을 이끌어 갈 효명 세자(孝明世子, 1809~1830)가 불과 스물한 살의 나이로 훙서한 다음 해이다. 자식을 앞서 보낸 순조와 순원 왕후, 하나뿐인 오라버니를 영영 떠나보낸 세 공주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했을 것이다. 세 공주는 슬픔에 젖은 부모님을 위로하고, 홀로 남은 세자빈과 막 세손에 책봉된 조카의 앞날이 튼튼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 불화를 조성했다. 아마도 효명 세자와 나이가 비슷해 사이가 더 가까웠던 맏언니 명온 공주가 주도해 발원하고, 가까운 상궁들을 동원해 불사를 거행했을 것이다. 불화에는 효명 세자가 극락의 즐거움을 누리기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다.

공주의 마음이 피어난 자리

존귀한 신분의 공주도 혼인하면 친정 부모님이 더 애틋해지는 딸이자, 남편과 시부모에게 예를 갖추어야 하는 며느리였고, 병마 앞에서는 어린 자식을 남기고 눈을 감아야 했다는 점에서는 여염의 여느 여성들과 다르지 않았다. 명숙 공주에서 덕온 공주에 이르기까지, '금지옥엽'이라 불렸던 이들의 삶과 불심은 화폭 위에 피어나 우리 곁에 남아 있다.

〈동아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근원이 바로 한 점의 마음에 달려 있다

꼭 오계를 받아야 하나요?

질문 이번에 선원에서 수계법회가 있다고 친구의 간곡한 권유를 받고 수계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공부 하는데 꼭 오계를 받아야만 할까요?

답변 여러분이 보이는 데에서 이 오계를 받았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는 여러분의 몸에 마크가 붙은 거와 같아요. 청와대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꼭 표시가 있어야 들여보내죠. 그와 같이 우리가 당장 죽으면 그 마크를 보고서 모셔가고 그 마크가 없으면 지옥으로 먼저 들어가죠. 지금,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먼저 들어가듯. 경찰서에 들어가서 웬만큼 다 서류를 꾸려서 다 해 가지고 검사로 올라가 가지고 검사가 또 해 가지고 판사로 올라가는데, 그만큼 그 위대한 마크가 있다면 그냥 무사통과거든요, 무사통과. 이게 그런 마크나 똑같아요. 스님네들은 십계를 받고 그렇게 하지만 이 신도들은 단 오계도 잘 지키지 못하니까 오계를 받게끔 한 거죠. 오계라도 잘만 받으면 그거는 무사통과예요. 못 믿거든 요담에 한번 보세요. 요담에요, 내가 지금 살아 있으니까 못 보겠지만 한번 요담에 꼭 내가 보겠다 하면 그대로 보여져요. 또 때에 따라서는 가르쳐도 줘요.

사람은 겉으로 못 보지만 이 공부 한 사람은 다 보죠. 갈빗대가 몇인지도 보고 다 봐요. 외려 가서 펼쳐 놓고 보는 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은 못 보시니까 천상 꿈이라고 붙여야 이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하여튼 여러분이 살면서 고통이 아무리 오더라도 '허허, 이것 또 물이 파도가 치는구나. 바람이 불지 않게만,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다면 물은 잔잔할 텐데.' 이렇게 그냥, 그게 시적이죠. 아주 얼마나 좋아요. '바람만 안 불게 한다면 물은 잔잔할 텐데,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선 진짜로 믿는다면 웃음이 나고 그런 말을 해 놓고도, 믿지 못한다면 바둥바둥 뛰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급한 일이 생기면 온통 야단나죠. 그게, 그게 어디 진짜 사람 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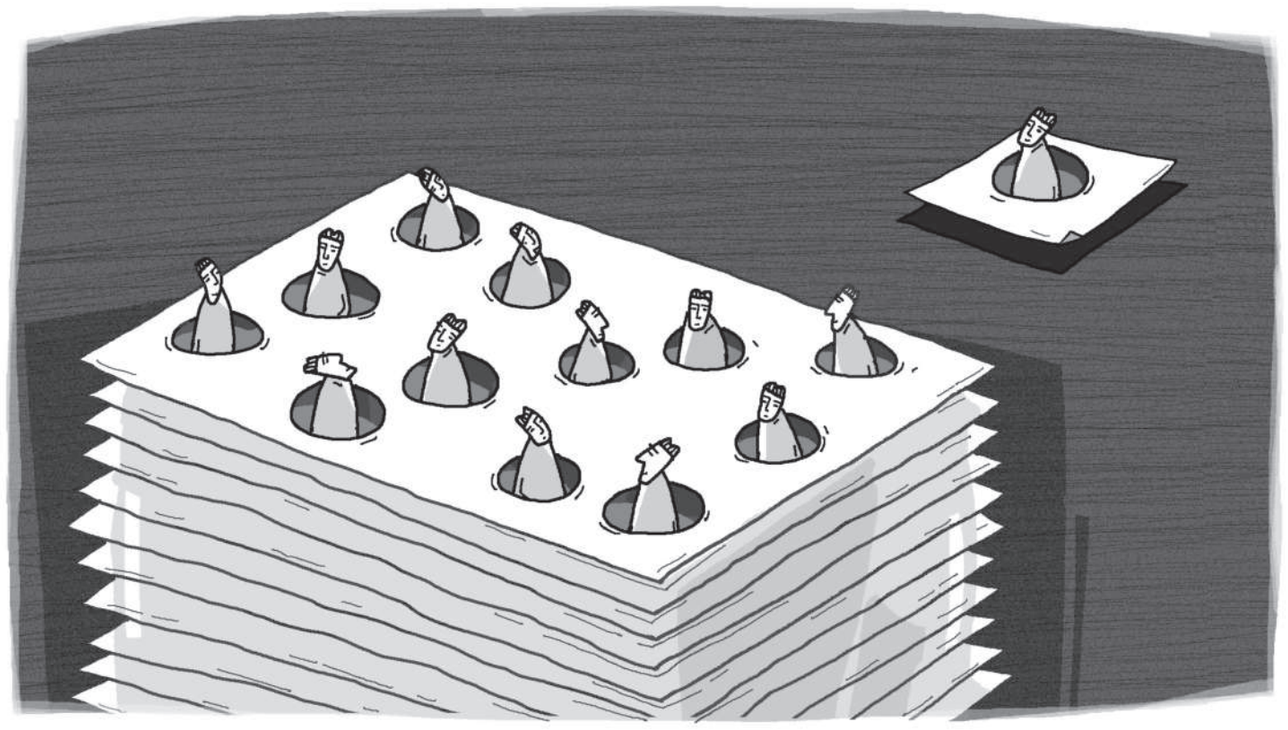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공부에 있어 중요한 게 무엇인지요

질문 대자유인 되기 위하여 한마음 도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마음공부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처님께서도 자기가 부처다, 또는 중생들은 중생들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곤충에 이르기까지 나 아님이 없다는 얘깁니다. 잘못하는 사람을 봤을 때에는 전자에 내가 모를 때의 그 모습으로 보고, 나하고 둘이 아니게 보니까 안타까운 거지, '내가 잘 알고 저 중생들이 불쌍하다.' 이건 멀쩡한 거짓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뜻을? 나 아님이 없다고 할 때 둘이 아닌 거예요.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돌아 나올 때 어떤 거는 안 됐을 거 같습니까? 곤충에서부터 진화돼서 화하고, 화해서 진화되고 나투면서 이 세상에 출현했을 텐데 어떤 것이 안 됐을 성 부르냐 이겁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전자에 거쳐 온 걸 알기 때문에, 그 모두를 봐도 남의 잘못 같지 않고 바로 그때의 내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고 눈물 나고, 모두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더불어 눈물이지, 나 혼자 불쌍하다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일체 한마음의 눈물이지, 나 개별적인 눈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기저기 끄달리지 마라." 그러는 것은 뭐냐. 털구멍을, 내면의 털구멍 한 구멍밖에는 통신처가 없다 이겁니다. 털구멍이라고 하는 자체도 방편이에요. 이게 가르치려니까 털구멍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털구멍이란 이름 없는 그 이전을 털구멍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털구멍에 들여놔도, 많은 거를 다 들여놔도 두드러지는 법이 없고, 다 내도 없어지는 일이 없다 이겁니다. 마음이란 그렇게 묘하고 광대해서 이 삼천대천세계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대천세계에 우주 전체가 다 한마음, 체도 없는 마음 속에 자리를 해도 손색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두드러지지도 않고 말입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물을 몇 그릇 갖다 바다에다 부어 보세요, 두드러지나. 물을 몇 그릇 떠서 써 보세요, 물이 주나. 그와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공부는 안 하고는 그냥 갈 수 없는 공부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하니깐 그냥, '여기서 그냥 미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즉 생활도 잘하면서, 이게 그대로 생활 자체가 재료니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재료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공으로 떨어지게 하지도 말고 물질로 흐르게 하지도 말라 이겁니다. 정당하게 생각하고 뛰면서, 뛰면서 생각하는 게 그대로 행주좌와 그냥 참선이다, 그대로. 그게 도심이에요.

가장으로서 잘하고 싶은데…

질문 사는 데 급급하다 보니 애들을 키우는 가장의 역할에 소홀했나 봅니다. 애들이 좀 난폭해지고 있어요. 가장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답변 소소하게 우리 살아나가는 데도 그 영향이 애들한테 얼마나 미치느냐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임신을 했을 때는 내가 먹는 대로 영향이, 의학적으로는 먹는 대로 영향이 애한테 간다, 약을 먹으면 약이 영향이 가고 이런 것만 알았지, 보이지 않는 기묘한 그 뜻이 전달이 되는 거는 도대체 모르거든요. 인연에 따라서 만나서 여기에 내가 임신을 했다면 자기의 그 영향대로 거기에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작으면 그 아이도 작지 어떡하겠습니까? 영향을 자꾸 받았으니까.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느니라."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난하고 쪼들리고 배우지 못하고,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음이야 가난해서 되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다면 모든 일이 전체 가난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죽을 한 그릇 먹어도 허허 웃으면서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도다.' 하고 아마 하늘을 보고 웃을 겁니다. 이 정도로 돼야죠. 지금 우리는 이 손바닥만 한 데 오물쪼물 모여서 살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네 가정 내 가정 찾고 온통 야단들을 하는데 나는 도무지 아주, 그래요. 이 지구 한 덩어릴 딱 따져 놓고 본대도, 그 손바닥도 못한 놈의 거를 가지고 온통 야단들이거든. 이게 도무지 이게 될 노릇이냐 말입니다.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공부는 모든 걸 무효로 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 19면에서 계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애들한테, 낳을 때 배 속에서 받는 영향은 너무도 큰 겁니다. 그런 데다가 사회 상식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이런 건 또 낳아서 받는단 말이죠. 낳아 가지고도 받아요, 그놈의 걸. 애 보는 데 뭐, 별 욕 다 하고 별 싸움 다 하고, 그저 나가고 들어오고…. 벌어먹는 것도 중하지마는 벌어먹는 것도 사람이 본부가 있다면 본부에다 연방 전달을 해 가면서, 상응하면서 한다면, 만약에 부부 벌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애들이 천상 착해요. 본부가 항상 지키고 본부가 항상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아들처럼 내버리고, 이것은 뭐, 먹을 거나 주고 그저 조금 저거 하면 돈이나 주고 이러니까 애들이 아, 외롭고 '야, 집에 들어가 봤자야 뭐, 그것도 없는데, 친구한테나 가야지.' 이럭하다 보면은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벌어먹고 사는 것만 중요시하지 말고 남편들도, 젊은 사람들은 이거 꼭 들어둬야 할 일입니다. '나는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이러니까 남편이라도 생각해 주겠지.' 천만에요. 자기의 욕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땐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살려고 앨 써도 그것은 아랑곳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 리라도 쫓아다니면서 살아요.

또 어느 가정에서든지 남편이 손이 안 닿을 때에 일하는 건 괜찮아요. 와서 가깝게 닿을 때는 언제나 내가 항상 사랑을 주는 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동생이 돼 주고 딸이 돼 주고, 때에 따라서는 할머니도 돼 줄 수 있어야 그 가정이 풍부하고 그 본부의 근본을 따라서 오직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이겁니다. 또 남자는 언제나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행을 다하면서 또 결국은 아버지도 됐다가 친구도 됐다가, 또는 동생도 됐다가 아들도 될 수 있는 그런 이치가 있어야 그 집안은 화목하고 재미있는 집안이에요.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안다면 사랑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 겁니다. 사랑? 사랑이 뭐 말라빠져 죽은 사랑이야? 도대체 그러한 값싼 사랑, 값싼 눈물, 값싼 행동. 이거, 아이고! 눈 감고 아웅이지, 도무지 나는 신청부 뒷다리 같아요. 뭐, 죽느니 사느니 하다가도 그저 조금 어떻게 됐다 하면은, 딴 데 좀 냄새를 맡았다 하면 그냥 이거 언제 봤더냐 그러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둥우리를 만들어 놓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있다 뿐이지, 이건 그냥 뭐…. 그러한 값싼 사랑은 차라리 사랑이란 말도 하지 말아야지 사랑은 뭐 말라빠져 죽은 사랑입니까, 그게?

진짜 부처님의 자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못났든 잘났든 아름다운 자비. 이 자비로써, 이 본부의 법으로써 모든 일을 행해 나가는데 아니, 우리 몸, 가정뿐인가. 세계뿐인가.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근원이 바로 한 점의 마음에 달려 있으니, 이 높은 뜻을 어떻게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열심히 자기 주인공에 의해서 진실하게, 값싸게 찾지 말고 진실하고 무겁게, 오뚝이가 무거워서 어디다 내던져도 우뚝우뚝 서듯이 말입니다. 시장바닥에 내던져도 우뚝우뚝 서듯이.

여기 선원에 다니다가 보니까 아니, 잘못돼서 "아이고! 내가 아무리 다녀도 뭐 효득이 없던데요. 그거 뭐, 다니나마나지."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여기 온다고 해서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미 벌여 놓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수습을 하려면 크게 수습이 될 걸 작게 수습을 할 수밖엔 없는 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어떠한 뭐가, 자갈밭이 닥친다 가시밭이 닥친다, 어떠한 낭떠러지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눈도 깜짝거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본부를 찾는 법입니다.

내 앞에 어떠한 가시밭이 닥친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눈도 깜짝거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본부를 찾는 법입니다.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려면

질문 불교에서는 인과의 법칙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러한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요?

답변 나는 항상 그럽니다. 다른 이름을 믿고 빌고 기도하고, 또는 형상을 믿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어느 법당엘 가든지, 강당엘 가든지 형상은 네 형상과 똑같이 둘 아니게 봐라. 그 마음이 둘 아니다. 내 형상과 둘 아니고 마음도 둘 아니고 법 또한 둘 아니다. 그러니 둥글게 내 마음과 모든 걸 한데 합쳐서 일배를 올리더라도 둥글게 일배를 지극하게 올리고, 나올 때 다시 주인공에다 맡기고 나오너라.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몸뚱이 속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있죠?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죠? 모두가 초월해서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님'으로다가 하나로 붙이겠습니까?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자기 주인공입니다. 각자.

그래서 자기 님을, 즉 말하자면 과거에 수없이 살아오고 형성시킨 자기 자랑스러운 임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본래는. 그런 건데 모두 기독교에서나 가톨릭교에서나, 나도 가톨릭교에 좀 있어 봤습니다마는 말이에요, 내가 기껏 잘못해 놓고 고해 성사 할 때는 신부님한테 가서 다 옮기고 돌아서죠. 그러곤 편안하다고 돌아서는 거예요. 나도 그래 봤으니깐요. 그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에누리가 없는 게 세상살이에요. 삶이에요, 모두가. 우연히도 없어요. 두 부부가 만나도 우연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나가 보세요. 전부 끼리끼리 놓여 있죠? 상점에도 끼리끼리 놓여 있지 뒤섞여서 있습디까?

그러니까 끼리끼리 차원대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도 따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깐 내가 망해도 '네가 잘못해서', 뭐, '재수가 없어서 안됐느니' 이런 소린 아예 하지 마라 이 소리죠. 모두가, 모두가 자기 차원에 따라서 자기 탓이니까 자기가 아무리 잘했어도, 자기가 돈을 벌었어도, 또 망했다 하더라도 자기 탓이에요. 자기가 없다면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 탓이죠. 안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법당엘 가거나 강당에 가면 기도하면서 아휴, 그냥 '하느님 아버지시여!' 또 불당에 가면 '아이고,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이여! 지장보살이시여!' 뭐, 그냥 별놈의 이름을 다 찾죠. 그러나 그게 없는 이름은 아닙니다. 다 있어요. 우리가 아파서 주인공에다 맡기면 약사가 되거든요, 약사보살. 진짜 자기가 약사보살이 돼요. 또 자기가 가난하고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문제가 생겨서 너무 답답할 때에 거기다 맡기면 관세음이 되죠, 관세음보살이. 명이 짧아서 어쩌나 그러고 걱정될 때는 칠성부처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주인공한테 맡기면 내 주인공으로 하여금 통신이 돼서 그 칠성부처가 책임을 맡죠.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칠성부처가 그 명을 다루죠.

그리고 또 누구나가 차원대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죽으면 자기가 산 대로, 행동한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모습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로 나왔다면 개 대접밖엔 못 받죠. 우리가 살아 보지 않아요? 개 새낀 개 새끼지 뭐 사람의 새끼냐 이러죠. 뱀이라면은 뱀의 대접밖엔 못 받죠.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대접을 받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한 대로 조금도 어김없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공부는 모든 걸 무효로 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잘되고 잘못되는 거를 다 그냥 무효를 시키면서 새로이 내가 원하는 모든 거를 개척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 공부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빌어서, 빌어먹는다는 말이 있죠, 왜? 빌어서 뭐를 조금 얻어서 쓴다 하더라도 고거 없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 나한테 좀 더 마음을 크게 내 주셔서 해 주시오." 이러죠. 그러나 나는 다 생각이 있습니다. 본인을 가르치는 데는 그렇게 "그러세요." 이래서는 절대 안 되죠. 본인이, 본인이 직접 하게 만들면서 해 줘야죠, 재주를 가졌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더러 "그대의 주인공에 관하시면 되죠. 열심히 해 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또 되겠으니까. 나부터라도 지금 집안에서 콩 튀듯 팥 튀듯 하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면 말 한마디라도 편안하게 해 줘야죠.

어떤 사람이 뭐가 잘못돼서 모든 걸 은행으로 뺏기고 인제는 집까지 뺏기게 돼서 거리로 애들하고 나서게 된다고 하면서 그냥 땅바닥에, 내가 길에 나왔는데 그 땅바닥에다가 절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랬을까요? 보잘것도 없는 고깃덩어리, 한 중한테 뭐 볼 게 있다고 거기다가, 길바닥에서 절을 하겠습니까? 남의 말은 들었지만 자신은 그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라는 거를 다 버린 겁니다, 아주. 아시겠습니까? 자기라는 거, 자기 위신이라는 거, 양심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그냥 몽땅 몸째 그냥 다 그냥 버린 거예요. 죽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잘 죽었다, 잘 죽었어. 어차피 죽으려면 그렇게 죽어야지.' 그러고선 왜 땅에서 이럭하시느냐고 일어나시라고 이렇게 해 놓고는 열심히 관하시라고, 그래도 관하시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고, 그저 관하시면서 부지런히 뛰시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더니 "아이, 집은 건지게 됐습니다." 또 얼마 있더니 "아유, 그 공장 하던 것도 되찾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 정신계의 무의 법이 그렇게 귀중하고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그런 법이 바로 50%에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할 줄 아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권리를 가지고 다 지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죄가 없다는 사실, 도둑질을 하고 사기질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가 없다. 모르니까 그런 거지, 알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신기한 건, 보시면 보는 대로 그냥 있는 게 없죠? 강도질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돌아서서 벌써 과거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게 있어서 그 강도질을 했다면 되와야 하죠? 그런데 되오기 전에 입력을 없애 버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요. 되오기 전에 입력이 되니까. 다른 입력으로 들어가니깐. 그래서 이것을 묘법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비는 게 아니라 자기 주인공한테 맡겨 놓는다면 인과응보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해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독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㊽ 육군비구를 제재한 부처님, 학교폭력(4)

학교는 법정 아닌 치유 도량이어야

6학년 때부터 이어진 폭력이 중학교에 와서야 터졌다. 네 명의 여학생이 한 아이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그중에서도 가장 지독했던 아이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다.

"난 사과 같은 건 하지 않아."

결국 지역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다. 회의 자리에서 그 아이의 어머니는 "왜 이렇게 일을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을…"이라고 말했다.

사과하지 않는 아이의 마음에는 사과를 두려워하는 부모의 그림자가 있었다. 가해 아이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나쁜 아이'로 낙인찍힐까 두려워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사과 대신 기형적인 당당함을 택한다. 이건 공감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의 회피다.

아이들은 감정 처리하는 방법을 무의식적으로 배운다. 감정을 부정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감정을 억누르고, 책임을 피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과하지 않겠다"는 말은 단지 고집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배운 생존 방식이다.

많은 가해 학생들의 심리적 배경을 들여다보면, 그들 역시 관계 속에서 상처 입은 존재임을 발견하게 된다. 이들은 가정에서 충분한 보살핌과 경계(분별력)를 배우지 못한 채 자라며, 감정 표현보다 억압을 먼저 익힌 경우가 많다.

사랑받지 못한 결핍과 불안은 종종 힘으로 관계를 통제하려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신이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일 때가 많다. 가해 행동은 그저 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언어를 배우지 못한 결과다. 두려움과 분노, 수치심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공격으로 바뀌고, 폭력이 관계의 표현 방식이 된다.

결국 그들의 내면에는 "나도 봐 달라", "나도 아프다"는 무의식의 메시지가 숨어 있다. 따라서 가해 학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처벌보다 자신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고통이 어떻게 또 다른 상처를 낳았는지를 인식할 때, 비로소 책임과 회복의 가능성이 열린다. 그 깨달음의 순간이야말로 폭력의 반복을 끊는 진짜 시작이다.

가해자들에게 반성은 나쁜 아이라는 낙인에서 강제로 시작된다. 대부분 가해자의 반성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겉으로는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치유하지 못한다.

공감은 명령으로 생기지 않으며, 죄책감은 지시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네가 피해자의 입장이 돼 봐라"는 말은 아이들에게 감정의 이해가 아닌 모방된 죄의식을 학습시킬 뿐이다. 그 결과 가해자는 "억지로 사과했다"는 억울함을 품고, 피해자는 "진심 없는 사과를 받았다"는 상처를 안게 된다. 두 사람 모두 다시 관계를 닫아 버린다.

결핍과 불안이 또 다른 상처 낳아
반성 강요보다 자발적 깨달음 도와야

특히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는 학교폭력 시스템이다. 학교폭력 대응의 구조는 점점 더 법정에 가까워지고 있다. 학교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있고, 실제 징계와 조치는 교육지원청 산하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가해 학생은 조사 대상이 되고 피해 학생은 진술인으로 불린다. 절차는 경찰 수사와 닮았고 결과는 판결처럼 내려진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수치심이 겹쳐진다.

학교는 더 이상 마음을 돌보는 공간이 아니라 사건을 처리하는 행정의 무대가 돼 버렸다. 상벌점제와 징계 1호에서 9호까지(서면사과~전학 혹은 퇴학)의 제도는 학생을 인간이 아니라 가감산의 대상으로 만든다. '얼마만큼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가'만 남는다.

학교는 아이를 가르치지 않고 판결한다. 그 결과는 냉혹하다. 가해자는 징계를 받는 순간 "벌을 다 받았다"며 반성의 문을 닫고, 피해자는 진심 없는 사과 앞에서 또다시 외면당한다. 처벌은 끝나지만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공동체는 감정의 균열 속에 남는다. 이것이 지금의 학교폭력 시스템이 만든 관계가 파괴된 잔혹한 교실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본래 이 말은 복수를 권하는 말이 아니라 과잉 보복을 막는 절제의 윤리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학교는 그 뜻을 잃었다.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인과응보식 지도가 오히려 또 다른 폭력의 형식이 돼 버렸다. 누가 때렸고 누가 맞았는가. 그 단순한 결과만 남기고 정작 그 사이에서 누가 울었는지, 누가 외로웠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이 배제된 정의는 누구도 구원하지 못한다. 법은 사건을 종결할 수는 있어도 마음의 상처는 치료할 수 없게 됐다.

진정한 회복은 강요된 반성이 아니라 자발적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가해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인식하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고통으로 이어졌는지를 마음으로 알아차리게 하는 것, 그것이 상담적 개입의 핵심이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心爲法本 心尊心使)"고 하셨다. 가해자를 단죄하는 대신 그 마음의 상처를 들여다보게 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누군가를 해친다는 것은 곧 자신이 얼마나 다쳐 있는지를 드러내는 일이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시 배우게 하는 일이다. 그럴 때 비로소 학교는 판결의 공간이 아닌, 치유의 도량이 될 것이다.

*현대불교신문 부산주재기자이자 가족상담전문가로 지역 가족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건강 365

㊾ 허리 수술

신경 손상 예방 위한 마지막 단계

"디스크가 터졌대요. 이제 수술해야 하나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MRI에서 '디스크 탈출'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허리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 요통 환자의 5~10%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생활습관 교정 등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수술 목적은 통증 제거가 아닙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술의 목적은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신경 손상을 예방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술은 언제나 마지막 단계의 치료로 고려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다리의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
2. 소변 또는 대변 조절이 어렵거나 이상이 생긴 경우(마미증후군)
3. 6주 이상 통증이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
4. 약물·주사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심한 방사통(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있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시간을 끄는 것이 오히려 신경 기능 회복을 늦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요통이거나 통증이 점차 좋아지는 경우라면, 비수술적 치료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MRI만 보고 수술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MRI에서 디스크가 돌출된 것을 보면 누구나 놀랍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보이는 병변의 크기와 실제 증상의 정도는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작은 디스크라도 위치가 나쁘면 신경을 강하게 압박해 통증이 심할 수 있고, 반대로 큰 디스크라도 증상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MRI가 아니라 증상의 양상과 일상생활의 불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엉덩이에서 다리로 뻗어 내려가는 방사통이 심하거나, 다리에 힘이 빠져 계단 오르기가 어려운 경우는 신경 압박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단순히 허리만 아프고 움직임에 따라 증상이 변하는 경우는 근육·인대 손상이나 자세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영상이 아니라 증상'이 진료의 핵심입니다.

수술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수술은 단지 통증을 줄이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수술 후에는 반드시 허리 주변 근육 강화, 올바른 자세 유지, 체중 조절, 규칙적인 운동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허리 수술, 요통 환자의 5~10% 불과
증상 양상 · 일상 불편 정도 따라 판단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통증이 다시 생기거나, 다른 부위에 새로운 병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수술 후 회복기에 장시간 앉아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면 수술 부위 주변의 부담이 다시 커집니다.

따라서 수술 이후에는 걷기 운동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재활을 시작하고, 허리의 안정성을 지탱하는 코어 근육을 꾸준히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의 성패는 수술실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 속에서 결정됩니다.

통증 방치 말고 과도하게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수술은 무섭다'는 두려움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이 지속적으로 눌리면 손상된 감각이나 근력이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MRI에만 의존해 조급하게 수술을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허리 수술의 핵심은 '언제 하느냐'입니다. 너무 일찍 해도, 너무 늦게 해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현재 신경 압박의 정도와 기능 손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치료, 그게 정답입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과 양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이, 체중, 직업, 평소의 자세와 운동 습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료에도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지인의 조언이나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상태에 맞는 개인화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이 가능하다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하며, 수술이 꼭 필요하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의해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 수술은 피해야 할 것도, 무조건 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필요 없을 때는 침착하게. 이 균형이 척추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태도입니다. 허리 통증이 생겼다면 불안함보다 이해와 실천이 먼저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꾸준한 관리만이 통증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지욱
거인병원 척추클리닉 과장

거인병원
Geo-in Hospital
051)996.7000
사직야구장 앞
어깨·관절·척추·정형외과 중점진료
세분화된 진료로 진단부터 치료까지!
광고심의필: 230622-중-155173

문선애 마취통증의학과 | 박지혜 내과 | 이지욱 신경외과 | 이승준 대표원장 정형외과 | 민영경 병원장 정형외과 | 김상효 정형외과 | 염동헌 영상의학과 | 이정향 마취통증의학과

로봇수술기를 이용한 인공관절수술

전법 일기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나를 사랑하는 법' 담긴 불교

지난 세 번의 기고에서 저는 불교와 인연을 맺어 온 과거 이야기를 주로 나눴습니다. 이제는 제가 서 있는 현재에 대해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2월 3일 서울대학교 디자인과 학생으로서의 마지막 학기를 마쳤고, 닷새 뒤인 12월 8일 저는 홍대선원 스태프로 복귀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쉬지 않고 정진하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냅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 "종교 활동에 시간을 과하게 투자하는 것은 아닌가", "서울대를 졸업하고 왜 좋은 직장에 가지 않는가" 등의 질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주변의 염려와 의문에 설득력 있는 답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좋아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불교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직장'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직장이란 잘하는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좋은 동료들과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하며 성장해 나가는 곳입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 조직의 건강함을 증진시키며, 경제적 성장까지 이뤄야 합니다.

놀랍게도 저는 홍대선원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뿐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인 가이드와의 협업을 통해, 저는 한국 전통문화, 글로벌 웰니스(Wellness) 흐름, 그리고 사람 마음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행턴(행자+인턴)'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며 시대에 필요한 교육 방향을 스님과 고민했고, 이는 업무 해결 과정과 소통 방법에 대한 귀한 경험이 됐습니다. 프로그램 파트장을 맡아 명상·수행 프로그램들을 기획·운영하며 게스트들이 JustBe를 총체적으로 경험하도록 고민한 결과, '수행 패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나이대에 쉽게 할 수 없는 귀한 경험을 얻고 있으며, 어쩌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들까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 자신의 성장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제 일은 단순히 종교 활동이 아니라, 불교와 수행 문화를 대중화시키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재작년보다 훨씬 더 큰 책임감을 지닌 채로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요가, 커뮤니티 활동, 취미 공유를 즐기고, 술 대신 차를 찾는 데에는 비슷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욕망하기보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외부로 향했던 시선을 '나'에게 돌려 주변을 평화롭게 바라보고 싶다는 마음이 라이프스타일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를 살피는 마음'에 대해 2600년간 고민해 온 철학이 바로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깊은 지혜 속에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나를 사랑하는 법'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알고 그 자신을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저와 인연 맺는 모든 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평화롭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송산하 JustBe 홍대선원 프로그램 파트장



송마나의 **시절인연**

보로부두르, 공(空)의 자리

유달리 무더웠던 여름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졌다. 한밤중 홀로 깨어 창밖을 바라보니 멀리 깜박이는 빌딩 불빛이 외롭게 느껴졌다. 건물이 외로울 리 없겠지만 내 마음이 외롭기 때문일 것이다. 외로움은 나만의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실존의 현상이다. 외로움이든 고독이든, 그것은 상실과 결핍에서 비롯된 허무가 아니겠는가.

까닭 모를 허전함에 잠겨 있는데 며칠 전 신문에서 보았던 보로부두르 사원 성지순례 광고가 떠올랐다. 거대한 사원의 품에 안기고 싶었다. 컴퓨터를 켜고 족자카르타로 가는 비행기와 사원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티켓을 예매했다.

족자카르타의 새벽하늘은 뿌옇고 탁했다. 택시를 타고 사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이 안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보로부두르는 예약한 관람객만이 정해진 시간에 가이드의 인도를 받아 사원에 올라 참배할 수 있다. 나는 첫 번째 팀에 합류했다.

우거진 나뭇잎 사이로 사원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햇빛이 쏟아지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랜 세월 길 위를 떠돌다 고향에 돌아온 듯 그리움과 안도감이 온몸에 사르르 번졌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보로부두르 사원은 우주 전체를 돌로 형상화한 법계(法界)였다. 먼 옛사람들이 쌓아 올린 거대한 석조 구조는 세계의 한가운데 솟아오른 수미산이며 우주를 펼쳐 낸 만다라였다. 사원 정상으로 오르는 계단은 인간 내면을 향한 수행의 길로 다가왔다.

사원의 맨 아래는 사각 벽으로 닫혀 있었다. 그곳에는 인간의 욕망과 번뇌를 그린 부조가 숨겨져 있다고 한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 깊숙이 감춰진 탐(貪)·진(瞋)·치(癡)를 상징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돌계단을 따라 오르니 사각 회랑이 4층으로 이어졌다. 벽면마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부조가 새겨져 있었다. 부처님의 생애와 전생 이야기, 중생의 고통과 보살의 발자취가 한 장 한 장 펼쳐지듯 드러났다. 나는 그 길을 천천히 걸었다. 돌 속에서 설법이 흘러나오는 듯했다.

사각 층을 벗어나 원형 테라스로 올랐다. 세 겹의 테라스에 반투명한 스투파 72기가 빙 둘러 있었다. 그 속에는 각기 다른 모습의 부처상이 모셔져 있다고 한다.

나는 두 손을 모으고 스투파 안을 들여다보았다. 햇빛이 스투파 격자 구멍을 뚫고 쏟아져 눈부셨다. 스투파들을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며 안을 들여다보아도 불상이 뚜렷이 보이지 않았다. 그럴수록 나는 스투파의 작은 구멍에 더 매달렸지만 그 안의 불상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 이 먼 길을 와서 부처님을 뵐 수 없다니….' 낙담한 눈빛으로 정상에 우뚝 선 거대한 스투파를 바라보았다. 그때 "너는 인간이 만든 내 형상을 보려고 이곳에 왔느냐?"라는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맨 꼭대기 스투파는 불상 없이 텅 비어 있었다.

그 공(空)의 자리는 돌로 빚은 부처님의 형상이 있는 곳이 아니었다. 내 마음속 외로움과 허무를 비워 내고 내가 부처로 서야 할 자리였다. 〈작가〉

기자칼럼

말 없는 법, 통도사가 건넨 선물

영축총림 통도사가 올가을, 사람들로 북적인다. 추석 연휴 기간에 산문 앞은 차량 행렬이 줄을 이었고 주차하는 데만 한 시간이 넘게 걸렸다.

개산대재와 미디어아트, 장밭뜰 메밀밭, 보경호 수상전까지. 사찰 전체가 거대한 전시장으로 변했다. 도량이 신도를 위한 신앙의 공간만이 아니라,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시공(時空)의 설법'으로 확장됐다.

특히 하얀 메밀꽃이 만발한 장밭뜰은 통도사 가을의 상징이 됐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구상으로 조성된 이 들판은 자연이 스스로 완성한 예술이다.

바람이 불면 메밀꽃이 물결처럼 출렁이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가족, 친구와 추억을 만든다. 꾸밈없는 자연이 예술이자 불법(佛法)이 되는 순간이다.

성파 스님의 옻칠 항아리와 회화 200여 점을 호수 위에 띄운 '성파선예 – 자유에로[自由自在]'는 그 절정이라 할 수 있다. 바람이 그림을 흔들고 빛이 그림을 비추는 순간, 예술은 인간의 손을 떠나 자연의 일부가 됐다. 호수는 거대한 캔버스이자 법당이다.

성파 스님은 전시 개막 인사에서 "시민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선물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의 선물은 무엇일까?

선사들의 설법은 언제나 말이나 형식을 넘어선다. 달마 대사는 아홉 해 동안 벽을 마주하고 침묵으로 법을 전했고, 임제 선사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는 일갈로 제자의 집착을 끊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통도사 도량은 이 같은 선사의 말 없는 법문으로 느껴진다. 도량 곳곳이 말 없는 법을 전하고 문(門) 없는 문을 여는 깨달음의 선물, 그 자체로 다가온다.

바람이 불고 빛이 스치면 메밀밭과 호수,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움직인다. 누가 설법을 하는지, 무엇이 법문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자연이 설하고, 인간이 듣는 자리. 바로 그것이 성파 스님이 세상에 건넨 진짜 선물이 아닐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 • 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 왜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시 험사 여부
- 생업가정흥쇠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구체 사안)
- (상대적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검증 30년의 신뢰! 분실 파손 재실행 영구사용!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50일간 특별할인가격 9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50일간 특별할인가격 2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위 육임 프로그램과 육임Ai와 육임 각 활용서 극대 효능을 위한 저, 효사 개별 직접 방문 전국 순회 일정입니다.
서울지역 월요일 14시 대전지역 화요일 14시 전주지역 수요일 14시 광주지역 목요일 14시 부산지역 금요일 14시 대구지역 토요일 14시 강원지역 일요일 14시

- 귀신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기도) 효과 유무
- 효과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

분별 멈추는 순간, 전쟁도 멈춘다

현불논단



성제 박준석 정사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

이탈리아가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전쟁 중단을 위한 전 지구적 휴전 제안을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올림픽은 단지 경기의 장이 아니라 평화의 제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정말 가능할까?', '말뿐인 선언이 아닐까?'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의 역시 부처의 자리[佛地]에서 보면, 중생의 간절한 염원이자 깨달음을 향한 실험대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갈등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가자지구의 참상, 우크라이나의 전투, 국경 분쟁 등은 모두 중생이 처한 고통의 현장이다. 불가의 가르침으로 보면, 전쟁은 분별과 탐욕이 결합해 빚어낸 업(業)의 발현이다. '내 것', '내 민족', '내 이념'이란 분별이 자리 잡을 때 불신과 적개심이 자라나고, 그 불길은 세상을 태워 버린다. 그러므로 이탈리아의 올림픽 휴전 제안은 일시적이라도 무기를 내려놓고 서로를 향해 손짓하자는 상징적 메시지다. 이는 '적이 아닌 존재로 마주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다.

'평화의 올림픽' 선언은 거대한 상징이다. 그러나 상징만으로 그치면 그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진정한 의미를 이루려면 두 축이 함께해야 한다.

첫째, 내면의 전환이다. 전쟁을 멈추자고 외치는 것은 곧 마음속 전쟁을 멈추는 것과 같다. 공

전쟁은 분별·탐욕 결합한 업의 발현
내면 전환·구체적 제도와 행동 바탕
'평화의 올림픽' 불국토 이상 다가서

(空)과 연기(緣起)의 이치를 자각하고, 타자와 자신 사이의 분별을 줄이는 데서 평화는 시작된다.

둘째, 구체적 제도와 행동이다. 휴전 선언이 선언으로만 남지 않으려면 무기 수출 통제, 난민 지원 확대, 외교적 중재 강화, 국제 법질서 확립 같은 실제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평화는 말이 아니라, 일상의 선택 연쇄로 드러나는 법이다. 올림픽이 '경쟁과 승리'의 상징에서 '화합과 조화'의 장으로 재구성된다면, 그것은 불국토의 이상에 한 걸음 다가서는 길이 된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불교의 핵심인 비량(非量)의 사상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비량은 불교 유식학에서 잘못된 인식이나 수단, 즉 그릇된 지식의 획득 과정을 뜻한다. 인연에 따라 '나'를 집착하는 제7 말나식(末那識)의 작용처럼, 본질이 왜곡돼 발생하는 인식의 오류를 지칭한다. 어떤 존재가 더 옳다고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 마음을 지니는 것은, 모든 법이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날 뿐임을 자각하는 평등지(平等智)의 발현이다.

전쟁과 갈등의 세계는 언제나 "우리 편이 옳고 저쪽은 그르다"는 분별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비량의 눈으로 보면 적도 동지고 나도 타자이며 모두가 연기 속에서 서로를 낳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탈리아의 올림픽 휴전 제안은 단지 유럽의 외교 뉴스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하나의 법문이다. 우리가 마음속 싸움을 멈출 때, 세상의 전쟁도 멈출 가능성이 열린다. 평화는 위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총보다 온기를 지니고 무력보다 미소를 선택하는 길, 그 길을 중생과 함께 걸어가기를 서원한다.

명상의 그림자

세간과 출세간



효록 스님
다르마심리상담명상센터 대표

고대의 지혜가 현대인을 구원할 수 있을까. 최근 뇌과학 연구는 명상이 단순한 심리적 안정 기법을 넘어 인간 두뇌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훈련임을 밝혀냈다.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면 자기 조절과 집중력이 향상되고, 편도체의 과도한 반응은 완화돼 불안이 줄어든다. 또한 해마와 전전두엽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면서 정서 경험을 더 유연하게 통합할 수 있다.

명상의 가장 본질적인 힘은 '보는 힘'이다. 명상은 억누르거나 피하지 않고, 생각과 감정을 파도처럼 바라보는 법을 가르친다.

1990년대 이후 발전한 명상신경과학은 장기 수행자의 뇌에서 독특한 회로 활성화를 보여 줬다. 배외측 전전두엽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면, 끊임없이 자기중심적 수다를 늘어놓는 '내면의 원숭이'가 잠잠해진다. 또 호흡 수행은 긴 날숨을 촉진해 편도체의 흥분을 낮추고 몸과 마음을 진정시킨다. 명상 관련 뇌과학 연구는 호흡이 단순한 생리적 과정이 아니라, 뇌를 조용히 하는 치유적 작용임을 보여 준다.

명상은 심리적 치유를 돕기도 한다. 신체적 감각에 언어를 붙이면 경험과 동일시되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 그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해리된 경험이 의식 속에 통합되고,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바뀐다. 몸을 다시 느끼고 감각과 정서를 연결하는 순간, 자각은 치유의 문을 연다.

명상의 본질은 '바르게 보는 힘'
현실 회피·자기 확증 경계해야
삶의 고통 마주하는 용기의 길

그러나 명상이 언제나 긍정적 효과만을 이끄는 것은 아니다. 존 웰우드가 지적한 '영적 우회(Spiritual Bypassing)'는 해결되지 않은 내적 상처·분노·상실감에 직면하기보다 영적 개념으로 덮어 버리는 경향을 말한다. 예컨대, 분노를 억누른 채 '무상하니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할 경우, 진정한 통찰이 아닌 억압이 될 수 있다. 이때 명상은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회피의 도피처가 된다.

또 다른 그림자는 쵸감 트룽파가 말한 '영적 물질주의(Spiritual Materialism)'다. 이는 명상을 통해 평온이나 황홀한 체험 같은 특정한 마음 상태를 얻으려 하거나, 그것을 자신의 장식물로 삼는 태도를 말한다. '나는 더 깨달았다', '나는 특별한 인간이다'란 자기 확증은 수행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집착의 또 다른 형태가 된다. 순간적 체험을 붙잡으려 할수록 더 큰 갈증과 상실감이 찾아온다. 명상은 자아를 강화하는 장식품이 아니라, 자아가 움켜쥔 것을 놓는 과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첫째, 명상을 통해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편한 감정을 피하기 위해 몰입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둘째, 명상 지도자는 반드시 자기 수행을 바탕으로 지도해야 한다. 체험 없는 가르침은 공허할 뿐 아니라, 수련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셋째, 명상은 심리치료와 만나야 한다. 알아차림을 심리상담 과정에 접목할 때, 명상은 현실의 괴로움과 연결돼 구체적인 치유로 이어진다.

명상은 고대의 지혜이자 현대의 과학이 증명하는 치유법이다. 이것은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피난처가 아니라, 삶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한 용기의 길이다. 영적 우회와 영적 물질주의의 그림자를 넘어설 때, 명상은 우리를 더 자유롭고 따뜻한 인간으로 이끌 수 있다.

社 說

화재의 상처, 새 도약의 계기 삼아야

지난 6월 발생한 조계종 총무원 청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는 불교계에 깊은 충격을 안겼다. 다행히 인명 피해나 성보 훼손은 없었지만, 종무 행정의 중심 공간이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종단의 상징이 흔들린 듯한 아픔을 남겼다.

그간 조계종은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화재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오는 12월 업무동 재입주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 2월에는 국제회의장 복구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화재 원인은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구조안전진단과 세밀한 피해 조사, 그리고 체계적 복구 과정은 위기 속에서도 조직의 안정성과 대응력을 보여 준다.

이번 복구의 핵심은 '원상회복'이 아니라 '재발 방지'다. 2004년 준공 이후 노후화된 설비를 전면 교체하고,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는 인테리어 개선이 병행되고 있다. 특히 종단 산하 시설의 화재 대응 매뉴얼을 일제 점검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복구의 완결을 넘어 새로운 출발을 이루는 것이다. 총무원 청사는 행정의 공간을 넘어 한국불교의 미래를 설계하고 시대적 비전을 공유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화재 복구에 마음을 보탠 사부대중의 염원에 부응하는 길이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는 지눌 스님의 가르침처럼, 화마의 상처를 딛고 더 안전하고 열린 불교의 터전을 일궈 새 도약의 계기로 삼길 기대한다.

올 가을, 수행 열기 되살리자

최근 선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변 확장을 위한 수행 프로그램부터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지는 세미나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이다.

대표적인 것이 조계종이 10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는 '2025 국제선명상대회 국제컨퍼런스'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기조연설을 맡아 종단이 제시하는 명상교육의 비전과 공교육 속 명상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밝은사람들연구소는 올해부터 3년 동안 '수행'을 주제로 연찬회를 진행한다. 이 대장정에는 월암 스님, 미산 스님과 정준영·이필원·권석만·박성현 교수 등 전문학자들이 참여한다.

참선·염불·사경·108배 등 불교 전통수행과 선명상을 결합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돼 10~11월 대중을 찾는다. 화두 참선·염불·사경을 선명상을 통해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이들 프로그램은 일반 대중에게 수행의 재미와 필요성을 느끼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를 '수행의 종교'라고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국갤럽이 2021년 발간한 〈한국인의 종교: 1984~2021〉에서는 주 1회 이상 불경을 읽은 불자는 응답자 중 3% 밖에 되지 않았다. '하루 1회 이상 기도한다'는 불자는 5%에 불과했다.

원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에 맞는 수행을 찾아 할 수 있는 시대다. 불자라면 관심을 갖고 수행에 임하고 그 열기를 일반 대중에게 전하기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10월 22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법계 품서식 봉행

본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화합의 승단을 목표로 본 종단 종헌 및 승니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계 품서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일시 : 11월 10일 월요일 11시
장소 : 서울 일붕선원 대법당

불기 2569년(2025) 10월 22일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고시위원회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10월 22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지역 상주하시는 종무원장 스님과 종도 스님들을 모집합니다.

010-6219-4757, 010-5385-3658

불기 2569년(2025) 10월 22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겨레와 함께한 60년
인류와 함께할 60년

대한불교관음종 창종 60주년 기념대법회



대한불교관음종이 창종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겨레와 함께한 60년, 인류와 함께할 60년을 기치로 기념법회를 봉행합니다.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조 대각국사 법맥 아래, 태허조사로 이어온 수행의 발자취
묘법연화경의 향기 속에 피어난 법화의 꽃, 그 찬란한 60년
관음의 길, 법화의 정진…백년미래 향한 자비와 지혜의 축제

일시: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서울 종로 탑골공원

주최: 대한불교관음종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의길 종로

문의: 02-763-0054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